hyunbulnews.com

현대불교

제845호 2011년 7월 20일 수요일 (음력 6월 20일 · 불기 2555년 · 주간)

부모가 참선수행 하는 모습은 자식에게 잔소리 하지 않아도 되는 가장 뛰어난 가르침입니다.

- 공주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대원 스님



정부 정말 바뀌었나

총선·대선 앞두고 정부·여당 화해 제스처

행정인권부 발표와 조계종 실무자 달라 예산 늘려 놓고 불교계 눈총받게 해서야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으로 불교계와 갈등을 빚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최근 불교계에 대해 달라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5월 전통사찰을 규제 관련 법 개선 발표에 이어, 7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전통문화재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한나라당은 정부에 ▷전통문화유산 방재시스템 통합 · 확대 ▷전통문화유산 상시관리 활동 지원 ▷전통문화유산 체험 및 문화관광 기반조성 지원 등 3대 분야 21개 사업에 2200억원 예산을 요구했다. 지난해 관련 예산 950억원 대비 132% 늘어난 금액이다.

이 가운데, 템플스테이 지원 예산은 123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어났다. 전통사찰과 불교문화유산 관리 및 개 · 보수 비용에도 관련 예산 733억원이 책정되는 등 불교계는 1381억원이 지원되는 10개 사업에서 직 · 간접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증액된 예산에는 기존의 재난방재 시스템의 확대 외에도 사찰 등 목조건축 문화재 내진 설비 등이 포함됐다. 또, 개별 문화재 단위로 이뤄졌던 방재 관리를 통합 관리로 변경하는 안도 담겼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전통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 · 발전시키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당정협의에서 기획재정부와 전통문화예산을 획기적 · 전향적으로 늘리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재희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위 활동과정을 통해 전통문화 현장을 직접 가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를 포함해 예산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이삼걸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조계종을 예방했다. 새주소 사업을 두고 불교계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달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예방에는 기획실장 정만 스님, 특보단장 정념 스님, 결사추진본부 사무처장 혜일 스님, 김영일 기획실 차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조계종은 새도로명 주소 사업이 전통문화를 없애는 중차대한 일이라며 우려의 뜻을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계종과 도로명 주소사업에 대해 상호의견을 교환했다. 조계종과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영일 기획실 차장은 "예방은 행정안전부의 갑작스런 요청으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행정안전부는 새주소 사업의 정당성만을 되풀이했다"며 "이 차 관보의 예방은 아무 의미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처럼 한 만남을 두고도 행정안전부 발표와 조계종 측 입장이 다른 것과 같이, 불교계는 정부 · 여당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당장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조계종은 당정이 전통문화재 관련 예산을 증액한 것에 대해서도 사찰이나 신행공간에의 지원이 아니라 문화재에 대한 당연한 지원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예산 증액으로 불교계가 큰 이득을 보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조계종은 이를 경계하는 논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동섭 기자





긴 장마가 지나고 20일 넘게 이어진 긴 장마에 마음까지 눅눅해진다. 무더워도 좋다. 맑은 하늘에 뜨거운 태양, 얼음물처럼 차가운 산사의 계곡으로 떠나고 싶어진다. 7월 초 장마를 피해 나들이를 나온 가족들이 공주 마곡사 솔바람길(백범명상길) 계곡에서 평온하게 물놀이를 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연등회 올해 안 무형문화재 등록

정병국 문광부 장관 조계사 법회서 발언

"연등행사(연등회)를 올해 안에 (중요)무형문화재로 등록시키고, 내년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겠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월 12일 조계사에서 열린 한국전통사상총서 한글역 출간기념 봉정법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은 문화재청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위원장 임돈희)가 연등회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보류한 것에 이은 것이다. 문화재청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는 8일 현행 연등회의 전통성에 문제가 있다며 지정을 보류했다.

정 장관은 축사에서 불교문화에 대한 국민적 오해를 바로 잡고, 그 중요성을 바로 알리게 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병국 장관은 "불교계 특혜라 오해받는 템플스테이는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하면서 부족한 숙소해결을 위해 정부가 제안해 시범 실시했던 것"이라며 "이후 외국인의 반응이 좋아 관광사업으로 지속됐던 것으로 종교적 접근에서 이뤄진 사업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관련기사 2면

불교계, 대북 인도적 지원 어쩌나

종단, 민추본 등 내부 검토·논의 중

종교계의 대북 인도적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한국종교인평화회의(이하 KCRP)가 각 종단에 대북 지원 협력을 제안했다.

KCRP 남북교류추진위원회는 7월 12일 열고 각 종단의 입장 검토 후 세부적인 사항을 재논의키로 했다. 최근 정부의 방북 지원 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K)도 이 자리에 참여했다.

남북교류추진위원회에 참석했던 조계종 내부 검토 후 KCRP 회의에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불교계의 대북 지원 노력은 최근 마련된 각 종 토론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인도적 지원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기범 기자

혜초기념관 세운다 동국대 혜초원정대

〈왕오천축국전〉을 남긴 혜초 스님의 기념관이 중국 시안(西安)에 세워질 전망이다.

동국대 혜초원정대(대장 윤재웅)은 7월 6일 중국 시안 센유사(仙遊寺)를 찾아 주지 룽탄(龍潭) 스님을 만나 혜초기념관 건립을 약속했다.

센유사는 혜초 스님이 3년간 밀교를 연구했던 곳이다. 혜초 스님은 센유사에서 황제의 부탁을 받고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다. 2009년에는 조계사와 센유사가 공동으로 '신라국고승혜초기념비'를 세우기도 했지만, 지금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원정대와 동행중인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 스님은 "동국대와 불교계가 올해 안에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국대 혜초원정대는 7월 5일부터 20일간 혜초 스님의 구법기행 루트 중 중국 시안-인도 뉴델리 구간을 답사 중이다. 조동섭 기자

845호 CONTENTS

상반기 결산 사찰② 통도사 2



탤런트 임현식 노인영화제 홍보대사 4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하반기 사업계획 6

법향을 찾아서 · 월호 스님 7

특집 · 깨달음과 열반 12~13



특집 · 연꽃축제 14



선지식을 찾아서 · 향봉 스님 16~17

타고르에 심취한 소녀 팔순에 박물관열어/김양식 원장 21

브로닌 "절 같은 남자가 이상형"

KBS '미녀들의 수다'의 스타 브로닌이 양주 육지장사(회주 지원) 템플스테이를 체험하고 자신의 이상형을 '절 같은 남자'라고 소개했다.

7월 14일 방영된 MBC '기분좋은 날(MC 이재용 홍은희)'에 출연한 브로닌은 '한국 남자'를 주제로 쓴 시를 소개했다. 어설프지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브로닌은 시에서 "남아공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아시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냥 서양 벽이 아닙니다. 한국의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랑 믿음 건강 보호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절. 제가 원하는 남자와 같습니다"라고 표현했다. 브로닌은 "한국 사찰은 벽은 힘이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 따뜻하고 사랑스럽다. 이런 남자가 내 꿈의 남자다"라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남아공 출신인 브로닌과 영국인 에바, 미국인 비앙카, 필라드인 따루 4명이 육지장사를 방문해 스님과 다담을 나누고, 108배 하기, 발우공양, 명상, 백일장, 쑥뜸 체험 등 1박 2일 프로그램에 동참했다.

참가자들은 대중방 생활과 투박한 수련복, 새벽 기상에 대해서 어색해 하면서도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부담스럽지 않은 프로그램에 만족했다.

브로닌은 "(템플스테이는) 시 쓰고 명상하고, 밥 먹고 명상하고, 모든 생활이 명상이었다. 신기하면서도 아름다워 마음이 안정되고 스트레스도 없어지는 것 같다. 수다도 필요 없어 진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자료제공=MBC

한편, 함께 출연한 에바도 "짧은 시간 동안 많이 배우고 좋은 기운 받아서 좋다. 중간 중간 스님이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좋은 말씀을 해주니 좋다"며 극찬했다. 이상언 기자







한국불교유산 세계로 성큼

조계종, 한국전통사상서 한글역 완간 기념 봉정

원효 의상 지눌 휴정 스님 등 한국 불교인물의 저술 중 정수(精髓)만을 추려 한글화한 한국전통사상서가 완간됐다. 영역 작업도 동시 진행 중이었던 책은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해 내년 중 다시 영역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조계종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위원장 자승)는 7월 12일 조계사에서 한국전통사상서 한글역 완간 기념 봉정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前 간행위원장 지관 스님(前 총무원장), 前 간행위 사무처장 승원 스님(前 기획실장)을 비롯해 유인촌 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사업이 시작되던 조계종 제32대 집행부 교역직 스님과 정부인사들도 참석했다.

前 간행위원장 지관 스님은 간행사에서 유인촌 前 장관, 조채희 前 종무실장 등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지관 스님은 "금번 번역사업은 불교문헌번역의 오래된 전범인 다자번역전통을 원칙으로 수행했다"면서 "오늘 완간된 국역 13권에 이어 내년에 영역 13권이 모두 완간돼 한국불교 1700년의 전통유산이 지구촌 곳곳에 유통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간행위원장 자승 스님은 완간사에서 "이번 완간은 1700년 한국불교 사상과 수행 전통을 오늘날의 문제해결을 위한 지혜의 등불을 밝혀가는 중차대한 노력의 한 결실이다"라고 말했다.

스님은 "〈한국전통사상서〉 속에서 조계종 집행부의 원력을 확인하고 동력을 얻을 수 있고,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불교, 자성과 쇄신의 결사정신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관 스님과(사진 좌) 자승 스님이 함께 한국전통사상서를 봉정하고 있다.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사업은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한국불교전서〉 14책에 수록된 한국 고승 등 151인의 319종 문집을 90여 종으로 간추려 편찬한 것이다.

2006년 12월 정부로부터 30억원의 지원을 받아 추진된 이 사업에는 국내·외 50여 학자가 참가하고 있다. 2010년 7월까지 한글역 13권 완간이 예정됐으나 방대한 번역작업과 영역 번역자 교체 등으로 사업 진행이 미뤄져 왔다.

글=조동섭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동방대학원대학, 비리 의혹 보도에 반발

조선일보가 동방대학원대학의 경찰청 수사를 보도한 가운데 학교측이 음해성 제보에 의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며 반발했다.

조선일보는 7월 14일자 제10면 보도에서 동방대학원대학이 재정이 파탄 상태이며 교수와 직원들 월급조차 주지 못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이런 상황에서도 정모 총장이 교비를 횡령해 9억원대 빌라를 매입하고, 아들의 식당을 차려줬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또 이 대학이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교수들에게 1인당 1000~500만원씩 돈을 받아왔고 교수들이 직접 수강생들을 모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같은 사실을 경찰청과 학교측 관계자에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동방대학원대학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학교측은 "경찰청 내사는 사실이나 음해성 제보이며 조선일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도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박기범 기자

이나은 기자의 페이스북 부루나에서는

불교 지명 변경, 예방과 조치 필요

최근 정부의 새 도로명 주소 개편 작업으로 불교식 지명이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페이스북 부루나에서는 이를 두고 적극적인 예방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부루나의 불자들은 박호석 법사가 올린 기고문을 보고, 개신교의 적극적·조직적 활동을 견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박 법사는 기고문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의 무등산 입구에는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광주의 자랑, 증심사가 있다. 그래서 광주지하철공사는 이곳을 지나는 역사 이름을 '증심사입구역'으로 명명했다. 그런데 지하철 개통 이후 개신교를 믿는 주민들의 반대로 '증심사·학동입구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아직도 증심사를 빼야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으니 머지않아서 반쪽 이름마저도 잃을지 모를 일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씨는 "이런 것을 보면 한국기독교도(천주교 개신교)들이 얼마나 역사를 기독교식으로 성역화 하는데 연구를 깊게 했는지 짐작이 간다. 불교는 시급히 한글화 작업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이왕이면 모든 국어는 부처님 법에서 나갔다는 사전작업까지 하는게 좋을 듯"이라고 말했다.

광주 증심사 관계자도 댓글을 달았다. 그는 "광주 지하철 개통 당시 '증심사입구역'이 원안이었으나 기독교계의 엄청난 반발로 재심의했고, 마지막으로 시의회에 상정이 돼 9:8로 '증심사입구역'으로 간신히 통과됐습니다. 그 후 3년이 지나도록 엄청난 민원을 계속 넣어서 역명변경위원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시민단체의 중재로 '학동·증심사입구역'으로 변경됐고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들에게서 다시는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했다.

불교계는 이러한 문제에 보다 설득력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C씨는 "불교식 지명이 바뀌니까 나선다는 것 보단 지명이란 것이 그 역사성과 지역특성이 반영된 산물임을 근거로 부적절한 지명변경의 문제점을 지적하는게 중요할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교니깐 불교식 지명을 지켜야한다는 건 불자이외의 공감을 받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총무원 '나 몰라라' 고운사 '내꺼'

낙단보 불전함 갈등

낙단보 불전함 갈등의 중재의사를 밝혔던 총무원이 대둔사와 고운사의 협의가 우선이라며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둔사와 고운사는 최근 낙단보 불전함의 관리 주체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총무원 문화부는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했다며 종단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 6월 22일자 제841호 보도)

그러나 문화부는 최근 낙단보 불전함은 종단이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문화부 국장 묘청 스님은 "낙단보 마애불은 국가문화재이고, 발굴 장소가 공공영역이기 때문에 불전함의 관리 주체를 종단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대둔사와 고운사가 서로 협의해서 결정해야지 종단이 공식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최근 양쪽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으며 공사 업체나 지자체도 이의제기가 없어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고운사(주지 호성)는 교구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불전함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주지 호성 스님은 불전함을 놓고 싸우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우려한다면서도 낙단보 불전함은 고운사가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호성 스님은 "교구관할이기 때문에 교구장으로서 의무가 있다. 교구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일단 발굴조사가 우선이니 당분간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스님은 또 "교구 본말사 협의회에서 우리 의견을 결정해 총무원에도 전달했다. 종단은 절차에 따라 정리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대둔사 주지 진오 스님도 이 문제가 계속 거론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불교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도 불전함보다 낙단보 마애불 관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불교환경연대 김두관 조직국장은 "두 사찰이 마애불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한다. 마애불 보존에 더 관심을 가지면 불전함 문제는 자연히 해결방안을 찾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재개발지역 내 사찰 지원강화 시급

성남 해원사 강제집행 철거

철거 위기에 놓인 재개발 예정지 사찰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

성남시 단대동에 위치한 태고종 소속 사찰 해원사 주지 해원 스님은 최근 인근 찜질방에서 기거하고 있다. 2005년부터 신행과 포교 및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활동해온 해원사가 입주해 있던 상가건물이 성남 단대동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됐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그동안 재개발 사업 추진을 이유로 해원사에 계고장을 보내며 자진철거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임대 보증금 수준의 보상금으로는 주변에 이주할만한 적당한 곳을 물색하지 못한 해원사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LH공사에 종교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태고종 총무원도 LH공사에 공문을 보내며 사찰이전 대책 수립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LH공사는 7월 11일 결국 행정대집행을 단행했고, 해원 스님은 40여 명의 신도들과 함께 저지에 나섰으나 역부족이었다.

해원 스님은 "법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종교시설이라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 효과적 대응을 위한 전문가들의 지원과 조율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지원이 스님들이 올바른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고 말했다.

태고종은 6월 28일에도 수락산 소재 대암사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원상복구 일제 정비를 이유로 철거된 바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태고종은 아직 이런 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은 마련돼 있지 않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교구나 종단 차원에서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있다.

태고종 총무원 관계자는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 뒤 권익 침해 사실이 없는지 확인할 것이다.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어도 종교적 특성을 고려해 해당기관에 대안 마련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은 대부분 사찰이 산내에 위치해 재개발로 인한 마찰은 적은 편이다. 관련 통계 등은 마련돼 있지 않지만 유사 사건이 발생시 해당 사찰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법률 자문과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지원한다. 박기범 기자

불국사 제2석굴암 건립 보도 해프닝

불국사가 사보 〈불국회보〉에 성보훼손 우려로 중단했던 제2석굴암 건립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경주 불국사(주지 성타)는 7월 1일자 사보 〈불국회보〉에 '제2석굴암 건립추진' 기사를 실었다. 불국사는 이 기사에서 "문화재청과 불국사가 토함산 석굴암 근처에 석굴암과 똑같은 모양과 크기의 제2석굴암(모형전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박완규 〈불국회보〉 편집장은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불국사 공식 입장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해명했다. 노덕현 기자

박구원 만평



동산불교대학 39기 신입생 모집



"끝없는 열정"
신행 교육 포교 전문도량 동산

동산불교대학은
각 분야의 권위있는 교수님들을 통해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각종 수행을 통하여 보다 행복해지고자 하는 인간의 꿈을 실현시켜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지성인들의 배움의 공간입니다.

▶ 교과목 및 교수

불교학과	대승불교, 화엄사상, 정토사상, 밀교사상, 불교사회복지론, 불교학 개론, 선학의 이해, 불교미술, 포교방법론, 비교종교론, 근본불교, 반야사상, 유식사상, 불교상담론,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법화사상 18과목
교 수 진	무진장 대종사 학장스님, 주명철 교수, 정엄스님, 김형준 교수, 보광스님, 종석스님, 보각스님, 최종석 교수, 윤열수 교수, 김호귀 교수, 활안스님, 최봉수 교수, 김상현 교수, 묘주스님, 정성준 교수, 권경희 교수, 박종 교수, 정병조 교수, 차차석 교수 외

▶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 불교학과 (180명) (토요반·목요반·통신반 각 60명) · 불교다도학과 (30명) · 불교미술학과 (30명) · 불교한문학과 (30명) · 사찰음식문화학과 (30명)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학과] 2011년 6월 27일~8월 6일 [9월 개강학과] 2011년 7월 1일~9월 8일 입학금 250,000원	[불교학과]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토요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목요반) (통신반)은 교재와 테이프 제공.

▶ 개강일시
불교학과 : 2011년 8월 6일(토) 오후 5시(동산불교회관) 입학식 및 개강
불교다도학과 9월6일(화), 사찰음식문화학과 9월7일(수), 불교한문학과 9월8일(목)
불교미술학과 9월8일(목) 개강

※특전사항 : 불교학과, 불교한문학과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원서문의·교부처
본대학 사무처 TEL (02)732-1206~8, FAX 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net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대학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8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1년 8월 3일까지
◆ 개강일시 : 2011년 8월 4일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올 가을 16만 도자대장경 봉안

통도사… 노스님 수행거처 추진 등 승려복지도 추진

통도사(주지 원산)는 주지 선출 문제로 내홍을 겪으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6월 1일 원산 스님이 주지로 임명되면서 사태가 일단락 된 뒤, 현재는 화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 중이다.

7월 초부터는 통도사의 오폐수를 양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기 위한 오폐수관 매립 공사를 진행 중이다. 올 가을에는 또 산문에서 통도사까지 2.5㎞ 구간의 전선 지중화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현재도 일부 구간은 지중화가 돼있으며 이 작업이 완료되면 흉물처럼 솟아있는 전신주들이 지하로 매립돼 통도사의 환경이 보다 쾌적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중화 작업은 전임 주지 때부터 추진되던 사업이다.

부주지 지준 스님은 통도사 운영에 있어 화합과 질서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스님은 "통도사는 1300명 승려들의 화합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스님들이 본사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종단과 본사를 위한 의무감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지준 스님은 또 "주지 스님도 방장 스님과 산중총림 원로 스님들을 모시고 통도사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세로 임하면서 더불어 함께하는 수행도량을 지향하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통도사는 상반기에 다양한 행사를 추진했다.

통도사 서운암 성파 스님은 1991년 십육만도자대장경 불사를 시작해 2000년 9월경 완성했다. 도자대장경은 사부대중의 원력을 모아 고려대장경의 원형을 그대로 도자기판에 조성하는 대작불사다. 통도사는 서운암 장경각에 십육만도자대장경을 보관하기 위해 올해 도자 대장경들을 이운해 가을 경 회향 할 계획이다. 장경각에 가지런히 보관된 도자 대장경에서는 남북 분단의 불행을 부처님의 높은 위신력으로 치유하고, 민족통일과 인류평화를 성취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었다.

부처님오신날 행사에는 예년과 같이 많은 불자들이 참여했다. 5월 10일 설법전에서 열린 법요식에는 선다회 회원들의 육법공양이 펼쳐졌고, 적멸보궁 헌다례도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봉행됐다. 이 밖에도 장엄등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봉축 행사가 이어졌다.

4월 7~ 9일까지는 매일 두 차례씩 법문을 듣는 형식으로 '보살계산림대법회'가 진행됐다. 통도사의 보살계수계산림법회는 경봉 선사에 의해 시작 됐으며 계의 중요성을 설한 자장 율사의 수계정신을 이어오고 있다. 법회에 참여한 대중들은 이런 정신을 되살리며 계율을 수지하고 더욱 신실한 불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화엄산림법회도 1만 여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1월 3일 원만하게 회향됐다. 2010년 11월 12일 입재해 53일간 구법여행을 떠났던 화엄산림법회는 前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의 입재법문을 시작으로 다양한 법사들을 모셔 〈화엄경〉의 주 내용을 강설했다. 회향일에는 前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모셔 회향법문을 청했다.

통도사는 30년 전통의 화엄살림법회를



통도사는 부처님오신날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헌다례를 봉행했다.

낮은 자세로 함께 하는 수행도량
화엄살림 법회 봉행 이어가며
경봉 선사 등 선지식 뜻이어
화합과 질서 중시하며 도약할 것

앞으로 깊이와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통도사는 화엄살림법회에 조계종에서 인정하는 전문 강사와 고승대덕을 초빙할 계획이다. 화엄경을 깊이 있게 설할 수 있는 강사를 초빙해 신도들이 감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작년에 처음 시작돼 올해 2번째로 열린 '제2회 울산 茶문화 축제'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6월 30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축제는 기념식과 국제 차학술 세미나가 진행됐다. '울산 茶문화 축제'는 울산 BBS가 주최하고 있으나 통도사가 울산 BBS건립 당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현재 주지 스님이 당연직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어 茶문화 축제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통도사는 하반기에는 승려복지 강화 차원에서 노스님들이 생활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할 계획이다. 400~500명 정도가 머무를 수 있는 이곳에서 스님들은 거처에 대한 걱정없이 수행에만 집중하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지준 스님은 "상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극복하고 전임 주지의 업무를 이어가면서 수행정진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도 열린 사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불자와 시민 모두에게 열린 공간 지향"

통도사 부주지 지준 스님



"통도사가 사부대중은 물론이고 양산 시민들에게도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을 지향할 것입니다."

지준 스님(사진)은 통도사의 하반기 계획을 설명하면서 '열린 통도사'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도사 자비도량을 수련회나 학술대회, 토론회 장소로 개방하고, 시민들이 통도사에서 삼림욕을 즐기거나 심신을 달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염된 공기와 바쁜 일상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친 현대인들에게 휴식과 수행의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관광호텔을 인수해 조성한 '통도사 자비도량'은 사부대중이 수련회나 템플스테이에서 숙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58개 객실이 마련돼 있으며 식당, 카페, 찜질방 등의 편의시설도 갖춰져 있다. 지금도 통도사 귀빈이나 손님들이 내방할 경우 숙소로 사용된다. 또한 통도사와 3㎞ 거리에 있어 '통도사 자비도량' 이용객들이 새벽 예불에 참여하기도 수월하다.

지준 스님은 "통도사 자비도량은 현 집행부가 애착을 갖고 노력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수련원으로 발전시켜 사부대중과 많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고 말했다.

지준 스님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사회에서 현대인들이 통도사와 같은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다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와 더불어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준 스님은 "부처님 말씀에 불법은 일심법이라 했으며 한 생각이 청정하면 세계가 청정하고, 한 생각을 잘못 일으키면 온 세계가 아비지옥으로 변한다고 했습니다"라며 "물질 만능 시대에 정신적 수행으로 어려운 현실을 이겨나가야 합니다"고 당부했다.

스님은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자신에게 근본적 질문을 던질 것을 주문했다.

지준 스님은 "현대의 불자들은 불자의 계율과 윤리란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사찰과 사회 봉사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보물로 지정된 통도사 영산전 벽화

국내 유일의 다보탑 벽화

사찰 벽화의 백미 인정 보물 제1711호 지정

통도사 영산전 벽화가 문화재청으로부터 보물 제1711호로 4월 29일 지정됐다. 이로써 통도사는 22개의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게 됐다.

현재 통도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 1건, 보물 21건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이다.

이번에 지정된 영산전 벽화는 한국 사찰 벽화로는 부석사 조사당벽화, 무위사 극락전 벽화에 이어 3번째다. 영산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을 그린 팔상탱화를 봉안한 전각으로 300년 전에 건립됐다. 외벽에는 17점의 벽화가 남아 있으나 훼손이 심해 윤곽이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반면 내부는 52개 벽면에 벽화가 조성돼 있다.

통도사 영산전 벽화는 다른 사찰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석씨원류응화사적〉의 내용을 벽화로 그렸다. 특히 〈법화경〉, '견보탑품'에 의한 다보탑벽화는 국내에 남아 있는 유일한 작품으로 예술성도 뛰어나 조선 후기 사찰 벽화의 백미로 평가받고 있다. 문화재청도 보물 지정예고 당시 이 점을 높게 평가했다.

문화재청은 "이 벽화는 분명한 소의경전과 예술적 작품성, 종교적 감수성, 시대성 등을 두루 갖춘 18세기 초 벽화의 기준 자료이자 이 시기 벽화를 대표할 수 있는 작품이다. 내부벽화 52점(보존상태가 불량한 외벽 17점은 제외)은 영산전과 별도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내벽에 그려진 주제는 〈법화경 견보탑품〉 벽화와 〈석씨원류응화사적〉 벽화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문화재청은 〈석씨원류응화사적〉 벽화의 경우 관련된 화제가 적혀 있고 목판의 설화보다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벽화의 도상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도사는 영산전 벽화 국가지정을 계기로 남은 벽화를 연차적으로 지정해 보존에 적극 힘쓸 계획이다. **박기범 기자**

통도사는… ##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 불보사찰

삼보사찰의 하나인 통도사는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가사를 봉안한 불보(佛寶)사찰이다. 해인사는 부처님의 말씀(法)인 팔만대장경을 간직하고 있는 법보(法寶)사찰, 송광사는 보조국사 이래 열여섯 명의 국사를 배출한 승보(僧寶)사찰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사리탑이 있는 제1 적멸보궁이기에 통도사 대웅전은 불상이 없는 것으로 유명하다. 통도사 대웅전은 정자형(丁字形) 법당 사면에는 각각 다른 이름의 편액(扁額)이 걸려 있는데, 동쪽은 대웅전(大雄殿), 서쪽은 대방광전(大方廣殿), 남쪽은 금강계단(金剛戒壇), 북쪽은 적멸보궁(寂滅寶宮)이다.

통도사는 신라 제27대 선덕여왕 15년(646)에 자장 율사 스님에 의해 창건됐다. 통도사에 봉안된 진신사리와 금란가사는 자장 율사 스님이 당나라 유학 후 귀국길에 가져 온 것이다. 이때 스님은 당나라 황제가 하사한 막대한 양의 비단과 채색옷감, 400권의 대장경, 불교용 깃발(幡幢), 꽃으로 장식된 가리개(花蓋) 등을 함께 가져와 통도사를 창건했다. 이처럼 통도사는 불사리와 가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로 대장경을 봉안한 사찰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통도사는 창건 후 신라 · 고려시대를 통해 한국 불교의 구심처로 자리 잡았다. 조선시대의 억불과 임진왜란에도 중창을 통해 법등(法燈)을 이어왔다.

통도사의 창건 정신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금강계단에 있다. 현존하는 금강계단은 창건 이후 수차례 중수돼 창건 당시의 구조를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삼국유사〉 등의 기록을 살펴볼 때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금강계단 사방에는 불좌상을 비롯해 천인상, 신장상 등 다양한 조각이 새겨져 있는데 이들은 고려와 조선시대의 중수 과정에서 새롭게 조성된 것으로 짐작된다. **박기범 기자**

제3차
백양사 야단법석
수행결사와 스승을 찾아 떠나는 길

황벽스님이 어느 날 대중한테 법문하였다.

"너희들 대중들은 하나같이 술찌꺼기나 먹고 진짜 술을 마신듯 하는 놈들이다. 이렇게 공부를 지어〔行脚〕간다면 어느 날에 깨닫겠느냐."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 나라 안에는 선사(禪師)가 없음을 아느냐?"
그 때에 한 스님이 문득 말하였다.
"여러 총림에서 대중을 지도하고 거느린 것은 무엇입니까?"
황벽스님이 말하였다.
"선(禪)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 스승이 없을 뿐이다."

질그릇이나 공예품을 만들려 하더라도 스승을 찾아나서야 한다. 스승을 만나서 가르침을 구하고 스승에게 배워야 할 것이다.
지금 수행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다. 수행의 길에 들어섰으나 갈팡질팡이다. 무엇 때문인가?
스승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진정한 스승은 누구인가. 부처님께서 남겨주신 경전(經典)인가, 옛 선사스님들의 어록(語錄-법문)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그 해답은 야단법석에서 말해 줄 것이다.

□ 법사스님과 주제
· 혜남스님(영축총림 통도사 율주) _ 율장에 담긴 수행결사
· 시몽스님(고불총림 백양사 주지) _ 선어록에 담긴 수행결사
· 용타스님(동사섭 행복마을 이사장) _ 금강경에 담긴 수행결사
· 도법스님(조계종 자성과 쇄신 결사 추진본부장) _ 생명평화경과 나의 수행
· 향봉스님(익산 사자암 주지) _ 육조단경에 담긴 수행결사

▣ 일 시 : 2011년 8월 4일(목) 1시 ~ 8월 7일(일)
▣ 장 소 : 고불총림 백양사
▣ 동 참 비 : 20만원
▣ 주 최 : 고불총림 백양사
▣ 후 원 : 현대불교 신문사
▣ 접 수 처 : 백양사 신도국
▣ 계좌번호 : 농협 645117-51-014851 (예금주 : 백양사)
▣ 문 의 : 전화 061)392-0434 / 392-0100
팩스 061)392-2081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6번지
※ 개인침구류 및 편의품을 준비해주십시오.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본사 고불총림 백 양 사

일 주 문



동헌조사 탄신 제116주기 봉찬법회
장수 죽림정사 조실 도문 스님은 7월 14일 동헌완규 조사 탄신 제116주기 봉찬법회와 온 겨레를 위한 산상기도를 봉행했다.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 2011년 여름 워크숍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 공동운영위원 미산 스님은 8월 7~13일 신정동 국제선센터에서 데이빗 브레이져(David Brazier) 박사 초청 워크숍을 개최한다.



각묵 스님 초기불교특강
각묵 스님은 7월 25~30일 실상사 재가불자여름학림에서 '지금 다시 실상의 길에 서서'를 주제로 초기불교 특강을 진행한다.



한국불교법사대학 티베트 세미나
한국불교법사대학학장 지일 스님은 7월 3일 동국대 사회과학관에서 티베트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홍신 교수 명사초청법회
김홍신 건국대 석좌 교수는 7월 16일 동산불교회관에서 '불교의 행복론과 인생사용설명서'를 주제로 연했다.



전국염불만일회 14차 염불정진대회
안동일 전국염불만일회 회장은 8월 19~21일 평창 월정사에서 제14차 염불정진대회를 개최한다. (02)732-1206



동국대, 지멘스 헬스케어와 인재양성 MOU 체결
김희옥 동국대 총장은 지멘스 헬스케어·의료기기분야의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특별 협약 양해 각서(MOU)를 7월 18일 체결했다.



민병덕 제11대 군불교후원회장 취임
민병덕 국민은행장이 제11대 군불교후원회장에 7월 8일 취임했다. 민 행장은 대전 보문고, 동국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불자이다.

〈인사〉 비구니 종회의원 상화 스님 추천

제15대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후보자로 경주 금련사 주지 상화 스님이 추천됐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성)는 7월 13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추천된 상화 스님은 8월 5~7일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후보자 등록과 자격심사를 거쳐 19일 예정된 직능대표선출위원회에서 선출이 확정된다. **조동섭 기자**

순돌 아빠가 노인영화제 홍보합니다



임현식 씨, 제4회 서울노인영화제 홍보대사 위촉

"영화에는 초년·중년·노년이 따로 없습니다. 청소년 같은 사랑도 담아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상상력이 풍부하고 감정 찐하게 멋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시는 형님, 누님들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노인영화제가 아니라 '우리 영화제'입니다. 하하하."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청원)는 영화배우 임현식 씨(65·사진)를 제4회 서울노인영화제 홍보대사로 7월 12일 위촉했다.

올해 제4회를 맞는 서울노인영화제는 서울특별시가 주최하고 서울 노인복지센터가 주관하는 영화제다. 만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직접 촬영하고 편집해 영화를 만들어 출품한다.

지난해부터는 '노인'을 주제로 한 젊은 감독들의 영화도 출품 가능해져 '미디어'를 매개로 세대 간의 소통을 도모하고 있다.

홍보대사에 위촉된 임현식 씨는 "홍보대사를 맡아달라는 곳이 워낙 많다 보니 웬만한 것은 사양해 왔다"고 말했다.

임 씨는 어르신들이 직접 영화를 제작하신다는 말을 듣고는 흔쾌히 서울노인영화제 홍보대사를 수락했다. "벌써 4회째라고 하니 놀랍습니다. 어르신들이 어떤 장비를 쓰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직 출품작을 보지 못했는데 꼭 보고 싶습니다."

이날 서울노인복지센터에는 임현식 씨를 보러온 많은 어르신 팬들이 강당에 가득했다.

임현식 씨는 "저도 올해부터 공식적으로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는 사람이 됐다. 대한민국 공식 노인으로 인정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아직도 밤샘 촬영을 하고 동료배우들과 맥주를 마시곤 한다.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생각해 본적 없다. 여기 계시는 형님, 누님들도 모두 저와 같은 마음이신 것 같아 참 좋다"고 말했다.

임현식 씨는 홍보대사로서 자신이 만나는 방송 관계자, 배우 분들에게 서울노인영화제를 널리 알리 계획이다. "이런 영화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좋은 취지의 영화제를 널리 알려야겠다는 욕심이 생긴다"며 영화제 홍보에 적극적인 의욕을 나타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청원 스님은 "배우 임현식씨는 모든 세대에게 사랑받는 국민배우로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서울노인영화제 이미지에 적격"이라며 "제4회 서울노인영화제 홍보대사로 활동해 주실 배우 임현식 씨에게 감사드린다. 노인미디어 문화 활성화와 적극적인 신 노인상 확립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글=천진영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설거지 할 때 불러요

찬불가 메들리 음반 발대



"찬불가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포교를 앞 당기는 길입니다."

한국불교예술인연합회 이사장 하윤주(55·사진) 씨가 찬불가 메들리 앨범을 발표했다. 1980년대 '당신은 나의 운명' '춘몽'으로 인기를 끌던 가요 가수가 14년 만에 음반을 내놓게 된 것.

부모님의 사업을 물려받으면서 가수생활을 접었던 그가 불교 포교를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하윤주 씨는 "기독교인들은 일상에서 콧노래로 늘 찬송가를 부르고 하는데 불교는 법회때 삼귀의, 청법가만 부르는게 전부이다. 불교음악이 활성화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주부들이 설거지 할 때, 합창단이 없는 절에서 스님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게 컴퓨터 음악으로 작업했다"고 설명했다.

15곡이 수록된 하윤주 씨의 새 앨범 〈영혼의 울림〉은 △향심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우리도 부처님 같이 △예불가 △한마음 있음이여 △길을 갑니다 등 불자들이 자주 부르는 찬불가 합창곡을 메들리 형식으로 구성했으며, 그의 히트곡 '당신은 나의운명'도 수록했다.

하윤주 씨는 가수 남강수 씨와 불자가수회를 창립했으며 불교방송 찬불가 지도강사 1기 출신이기도 하다.

하 씨는 "한국불교예술인연합회 회원은 150명 정도다. 현재 활동을 거의 안하고 행사 때만 모이는 정도다"며 "이번 앨범 발매가 예술인 불자들이 활동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02)861-1612

이나은 기자

죽음은 끝이 아니다

'행복한 삶, 아름다운 마무리' 강의



"최근 자살률이 높은 것은 죽음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이 큰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전주 참좋은우리절(주지 회일)은 7월 10일 참좋은우리절에서 250여 신도들이 모인 가운데 춘천 한림대 생사학연구소장 오진탁 교수(사진) 초청 "웰 다잉(Well dying) - 행복한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오진탁 교수는 현대인의 잘못된 죽음관을 진단하고 "삶은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며, 죽음 또한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삶과 죽음은 결코 단절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삶, 죽어가는 과정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모두 밀접하게 연결돼 있음을 강조했다.

"죽음에서 그 사람의 삶을 판단할 수 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한다면 행복한 삶, 아름다운 마무리가 가능하다."

오진탁 교수는 "사람들은 누구나 죽는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인식은 아주 없거나, 있어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면서 죽음에 대한 정확한 인식 전환을 당부했다.

이어 오 교수는 "대부분 사람들은 죽음을 앞에 두고서야 죽음을 생각하고 지나간 삶을 후회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삶과 죽음이 하나임을 아는 불자라면 죽음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아름다운 마무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언 기자

동국대 경주캠, 기업과 협약 KT, 대명콘도 등과 산학협력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김영종)가 스마트 캠퍼스 구축에 나선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KT와 7월 14일 11시 교내 백주년기념관에서 KT와 'Smart Campus 구축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동국대 경주캠퍼스 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모바일 교육환경 조성에 대해 협력하기 위한 것으로, 양 기관은 앞으로 △ 스마트 캠퍼스 인프라 구축, △ 모바일 웹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한 모바일 교육환경 조성 △ 인적 교류 협력을 통한 지역 IT 산업발전에 협력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동국대 경주캠는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임산부 권리 보호 사업을 주관하며 동국대경주병원(병원장 이경섭)과 경주 대명리조트(대표이사 조현철)와 함께 임산부 권리 보호를 위한 시설 마련에 나섰다.

동국대경주병원은 가장 먼저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마련하고 2층 로비에 임산부 전용 휴게실, 임산부 전용 계산대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2011 전국추계대학 축구연맹전 우승

2011 전국추계대학 축구연맹전에서 동국대가 연세대를 1대 0으로 꺾고 우승했다.

7월 12일 강원도 태백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결승 경기에서 동국대는 후반 25분 공격수 추평강(체육교육과 3학년)의 결승골에 힘입어, 10년 만에 우승을 노리던 연세대를 1대 0으로 제치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국추계대학 축구연맹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8강전에서 고려대를 3대 0으로 완파하는 데에 1골 1도움을 올리며 큰 공을 세운 188cm의 장신 공격수 추평강은 탁월한 위치선정과 적극적인 공격으로 팀의 우승을 이끌었다.

추평강의 결승골 이후에도 동국대는 몇 차례 연세대의 골문을 위협했다. 이에 연세대도 공격의 끈을 놓지 않았다. 후반 39분 연세대는 결정적인 프리킥 찬스를 잡았으나 골문을 살짝 비껴나가며 동국대의 높은 수비벽을 넘지는 못했다.

동국대 김종필 감독은 "사상최초 전국대회 2연패라는 큰 성과를 얻게 되어 기쁘다"며 "지금까지 고된 훈련을 잘 따라와 준 선수들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불교서적총판 운주사는 양질의 불서를 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가득한 공간
불교서적총판 (주)운주사
● 불교서적/음반 도매 ● 불교서점 개설
● 도서관 납품 ● 불교도서전 개최

깊이 있는 연구, 새로운 시각, 다양한 주제!
불교학술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도서출판 운주사의 〈프라즈냐 총서〉



1 불교철학의 역사
D. J. 칼루파하나/김종욱 옮김/신국판양장/544쪽/25,000원
불교 철학의 역사 전체를 붓다 본연의 가르침에 따라 정리한 역작!

2 한국의 불교의례 I
정각/신국판양장/460쪽/23,000원
한국불교에서 행해지는 의식 및 의례의 역사와 절차, 의미 등을 규명한 책!

3 밀교학 개론
종석/신국판양장/286쪽/12,000원
밀교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불식시키고, 종합불교·현실불교로서의 밀교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조명한 책!

4 법화경의 성립과 배경
塚本啓祥 저 · 이정수 역/신국판양장/576쪽/27,000원
법화경 성립의 배경을 문헌학, 고고학, 미술사, 고문서학, 비명학, 고대화폐학에 의거하여 실증한 책!

5 성철선사상
도대현 저/신국판양장/448쪽/23,000원
돈오돈수와 중도로 집약되는 퇴옹 성철의 선사상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한 최초의 책!

6 인도불교사
정순일 저/신국판양장/726쪽/33,000원
인도 불교의 중요 불교교리와 인물, 핵심 개념과 경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

7 주역선해 연구
청화 저/신국판양장/510쪽/25,000원
명말 고승인 우익지욱이 『주역』을 고도의 불교사상으로 재해석한 『주역선해』에 대한 국내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서!

8 율장의 승단분열 연구
자현 저/신국판양장/280쪽/15,000원
붓다 당시 승단분열의 역사적 과정을 제바달다의 파법륜승, 파승가를 중심으로 객관적이면서 생생하게 추적한 책!

9 불성론 연구
최현민 저/신국판양장/368쪽/18,000원
본성론적 불성 이해에 기반한 수증관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새로운 불성론과 수행론을 제시한 도겐의 사상을 궁구한 책!

10 불교의 마음챙김과 사상의학
불교와 사상의학 연구회 편/신국판양장/416쪽/23,000원
불교의 수행론인 마음챙김과 한의학의 치유론인 사상의학 간의 다양한 융섭과 그것이 가져오는 창발효과를 규명한 책!

11 청송의 선과 철학
소광희 외 著/신국판양장/312쪽/18,000원
『선의 세계』라는 저서를 통해 동양적 사유의 결정체인 선과 서양철학의 회통을 추구한 청송 고형곤의 사유세계를 정리한 책!



인터넷 불교서점 「붓다북」에서 프라즈냐 총서를 구입하시면 소정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5가 120번지 동일하이빌 지하 1층 ●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 전화 (02) 3672-7181 ● 팩스 (02) 3672-7186 ● www.unjusa.com

청와대 직원들도 템플스테이 합니다

청와대불자회 주관 '소통과 화합의 템플스테이'
효행사찰 용주사에서 직원 및 가족들 참여

'낳실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자리 가려내시고,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하리오, 어머님의 은혜는 가이없어라….'

"우리가 어버이날 '어머니의 마음'을 늘 부르는데 이 가사가 〈부모은중경〉에 실린 내용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부모은중경〉은 조선초기부터 여러 사찰에서 간행된 바 있으나 용주사의 〈부모은중경〉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정조의 효심에서 판각됐기 때문입니다. 정조는 보경당 사일 스님으로부터 〈부모은중경〉의 설법을 들은 후 감동해 용주사를 창건했습니다."

부슬부슬 장맛비가 오는 토요일 아침. 용주사 경내 부모은중경탑 앞에 어린아이부터 50대까지 귀를 쫑긋 세우고 권중서 문화재 해설가의 설명을 듣고 있다.

대웅전으로 발걸음을 옮긴이들은 불상 뒤에 걸린 후불탱화가 단원 김홍도의 작품이라는 설명에 놀라는 눈치다.

후불탱화에 그려진 석가모니불과 아미타불, 약사불의 모습이 조선시대 불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면적인 기법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원근법과 명암법을 사용한 것이 서양화적인 느낌을 물씬 풍기게 한다.

청와대 사회통합수석실과 청와대불자연합회(이하 청불회)는 7월 8~9일 청와대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수원 용주사(주지 정호)에서 '소통과 화합의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사회통합수석실 박인주 수석, 김석원 국민소통비서관, 김혜경 시민사회비서관을 비롯한 임직원 및 가족 60여명이 참여해 가족과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배웠다.

첫째 날 참석자들은 '사찰습의' 시간을 통해 사찰에서 지켜야할 기본 규칙과 예의를 익히고 발우공양을 체험했다. 참석자들 중 절반은 불자, 절반은 무교·이웃종교인으로 구성돼 템플스테이를 처음 경험한 이들도 있었지만 어색함은 없어 보였다.

이어서 진행된 '소중한 참나 알기 시간'. 대 여섯 명이 한 조가 돼 서로 돌아가며 부처님에게 삼배의 예를 올리듯 정성스레 절을 하고 칭찬을 해준다.

직장뿐 아니라 가족·친지 등 가깝게 자주 보는 사람일수록 서로 소홀해지는 때 더욱 소중해지는 시간이다.

이튿날, 참석자들은 〈부모은중경〉을 독송하고 선체조, 참회의 108배를 통해 참나를 찾는 시간을 가졌다.

청와대불자회 템플스테이는 지난해 마곡사에서 열린데 이어 두 번째로 열린 행사다. 행사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불자뿐만 아니라 청와대 개신교·가톨릭 담당자, 인턴직원, 대학생 불교연합회 출신 행정관도 눈에 띈다.

개신교 신자인 김혜경 시민사회비서관(여·55)에게 템플스테이 체험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비서관은 "가족들과 여행 다닐 때 사찰을 많이 다니고 명상도 가끔 하기는 하지만 템플스테이 체험은 처음이다. 특히 서로에게 삼배를 하는 프로그램이 인상적이었다. '소중한 참나 알기 시간'은 불교가 지향하는 평등세계를 잘 보여주었다. 평소 사람들이 서로 존중해주기 힘들다는

> 108배 하며 이웃의 소중함 배워
> 발우공양은 이웃을 돕는 방법
> 서로 섬기고 존중하는
> 정신문화 함양에 으뜸

생각을 해왔는데 '이런 방식으로 서로를 아껴주고 존중해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김 비서관은 "발우공양이 인상적이었다. 식습관을 돌아보게 하고 음식을 절약하게 한다. 식량문제를 겪는 기아·난민들을 위한 식량지원도 좋지만 나부터 음식을 소중히 생각하고 절약하는 실천에 도움이 될 것 같다. 특별한 방식으로 남을 도울 수 있게 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정부의 전통문화, 템플스테이 국고지원에 대해 기독교계는 반대하고 있지만 템플스테이를 직접 참가해본 기독교인의 대답은 달랐다. 김 비서관은 "기독교인으로서 템플스테이는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다. 국내로 휴가를 떠날 때 한번쯤 사찰을 방문하지 않냐. 불교문화는 역사의 일부이며 문화의 일부다. 정신적 부분이 약해져 있는 때 일수록 불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가 정신적 부분을 강화해 서로 섬기고 존중하는데 앞장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용주사 템플스테이 연수국장 대현 스님과 권중서 문화재 해설가의 사찰 안내 및 박물관 견학에 이어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과 차담이 진행됐다.

정호 스님은 템플스테이의 대략적인 소개와 스님들의 생활 등을 소개한 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한 참석자가 잡념을 어떻게 버리는지에 대해 묻자 정호 스님은 "간화선을 통한 기도를 열심히 하다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마음이 편해지면 누가 공격하더라도 동요되지 않는다. 기분 나쁜 소릴 하더라도 마음이 편하면 별거 아닌 것이 돼 그냥 지나간다. 나쁜 인연은 종식시키고 좋은 인연은 영적으로 향상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정호 스님은 최근 한국관광공사 이참 사장을 만나 주고받은 대화를 들려줬다.

"이참 사장이 한국의 고추장, 된장, 김치를 정말로 좋아한다. 한옥구조를 극찬했다. 외국인끼리 실험을 많이 해봤다고 한다. 술 마시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옥에서의 회복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한다. 우리나라 땅이 지구의 엑기스가 모여 있는 땅이라고 하더라.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박찬호, 박세리, 김연아 등 우수한 인재들이 나오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한다."

정호 스님은 이어 "우리는 한국의 우수성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전통적인 문화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문화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중요한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니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회향시간이 되자 빗줄기는 그치고 해가 보이기 시작했다. 단 하룻밤의 체험이었지만 청와대 직원들의 표정은 안정되고 평화로워 보였다.

이나은 기자







① 용주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청와대 불자연합회, 청와대 사회통합수석실 직원과 가족들이 발우공양을 체험하고 있다. ②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과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차담을 하고 있다. ③ 참가자들은 용주사 대웅전 앞에서 단체사진을 찍었다.

부산불교 세계속의 불교! 실천하는 수행공동체!

봉 행

불기 2555년

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 회장 이·취임식 및 부산 발전 기원 음악회

귀의 삼보하옵고, 청정승가의 법체청안과 시민불자 여러분의 건승을 삼보전에 합장·발원 올립니다.
금번 본회에서는 200만 부산불자를 대표하는 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 제1대 **설동근 회장의 이임**과 제2대 **이윤희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기념법회와 2부 행사로 부산발전을 기원하는 음악회도 마련하였사오니 바쁘시더라도 수희 동참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 회장 이·취임식 봉행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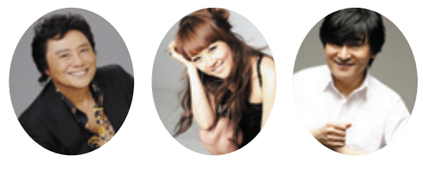
◐ 일 시 : 불기 2555(2011)년 **7**월 **25**일(월) 14:30 ~ 17:00
◐ 장 소 : KBS 부산홀(남천동)
◐ 문의처 : **051)861-8801 / 051)867-0501**

※ 화한은 정중히 사양하오며, 쌀로 대신하여 주시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좋은 곳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 식 순 〉

◑ 오프닝 공연 (14:30~15:00) : 동국국악예술단
오프닝 공연은 10분전 14:20분까지 입장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부 본 행 사 (15:00~16:00) : 이취임 기념법회
◑ 2부 축하공연 (16:00~17:00) : 부산발전기원 음악회 (출연 : 남진, 장윤정, 조항조)

• 선착순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 **주 최 :**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
▣ **후 원 :** 부산광역시, BBS부산불교방송, 불교신문 外 교계 각 언론사
▣ **주 관 :** 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 회장 이·취임 기념법회 봉행위원회

박기범 기자의 라후나존자를 찾아서

“승복 원단 하나도 부처님처럼”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생활한복 강사 박춘화 보살



“봉사를 통해 새로운 삶이 열렸어요. 봉사는 제 삶의 끈인 것 같습니다.”

박춘화 보살(사진)은 광진노인종합복지관에서 매주 ‘수의 · 생활한복 만들기’ 강사로 활동 중이다. 박 보살은 직업전문학교 및 문화센터 등에서도 생활한복과 수의 제작을 교육하고 있다. 2009년 12월 무형문화재 침선장 11호를 이수한 박 보살은 2003년부터 8년 동안 전국 기능대회 한복분야 금메달을 휩쓸기도 했다.

지금은 복지관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강사로 활동 중이지만 박 보살이 처음 한복을 짓게 된 것은 가정 형편 때문이다. 아이들 옷을 직접 만들어 입히면 돈을 좀 아낄 수 있겠다는 생각에 한복 만들기를 배운 것이다. 그렇게 배운 솜씨로 절에 갈 때 기도 하기 편한 바지를 직접 만들어 입고, 스님들 옷도 수선해줬다. 차츰 솜씨가 좋아지면서부터 스님들 가사를 만들어 드리기도 했다. 20년 이상 가사를 지어 입는 스님들도 있을 정도로 박춘화 보살은 야무진 솜씨를 자랑한다. 박 보살은 다니는 절에서 본명 보다도 ‘한복 보살’로 더 유명하다.

박춘화 보살의 이런 활동이 입소문이 나면서 한 언론사 문화센터에 강사로 초빙됐고, 그 후 곳곳에 강사로 출강 중이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에도 처음에는 급식실 자원봉사를 나왔다가 관장스님께 직접 요청해 강사로 활동 중이다.

“수업 시간에는 어르신들과 집안 이야기도 하면서 말동무가 되어 드립니다. 어르신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어르신들도 한복 만드는 것도 배우면서 마음을 나눌 수 있어 좋다고 하십니다.”

이곳 어르신들은 박춘화 보살이 활동 중인 다른 기관 수강생들보다 나이가 많아 아무래도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박 보살은 다른 곳보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에서의 수업이 행복하단다. “어르신들은 젊은 학생들처럼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요. 그러다보니 저 역시 세심하게 교육할 수 있고, 봉사를 통해 제 자신도 돌아볼 수 있어 행복합니다.”

박 보살은 봉사활동이 자신의 재능과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박 보살은 봉사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달라졌다고 믿는다. 실제로 박 보살은 처음 만들었던 바지를 입고 지역 내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솜씨가 알려졌고, 딸의 취업도 봉사활동에서 만난 이웃의 소개로 성사됐다. 봉사활동 인연으로 출강하게 된 기관도 있을 정도다.

박 보살은 한복 짓는 법을 배워 스님들에게 승복을 지어드릴 수 있고,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모두 부처님의 가피라고 생각한다. 많은 돈을 내고 기도를 올리는 것보다 한 땀 한 땀 정성들여 스님들의 승복을 짓다보면 불심도 깊어지고 복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박 보살은 승복을 지을 때면 전화조차 받지 않고, 승복의 원단조차 넘어 다니지 않는다. 승복을 스님들과 동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박 보살은 수강생들에게도 늘 이런 점들을 유의할 것을 강조한다.

“처음에는 절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만이 수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승복을 짓고 봉사활동을 하다보니 이 모든 것들이 기도이며 수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더 정성스럽게 승복을 지으며 불심을 닦아가고 싶습니다”

박기범 기자

세계로 ‘나눔’ 템플스테이 알릴 터

불교문화사업 내실화 · 대중화 · 세계화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지현)이 불교문화사업의 내실화 · 대중화 · 세계화에 박차를 가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올해로 10년 차에 접어든 템플스테이 사업을 대한민국 대표 문화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내부 조직개편을 통한 문화 사업을 새롭게 편성하겠다고 7월 11일 간담회에서 밝혔다. 또한 사찰음식과 관련해 불교문화교육사업과 문화상품 개발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효과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템플스테이 자문위원회 ·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또한 템플스테이의 운영관리규정 및 운영사찰 성과평가체계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의 지정과 평가, 합리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운영사찰의 평준화와 전문역량을 높이기 위함이다.

템플스테이 홍보 및 참가자 확대를 위해서는 외국인 가이드 교육 시행 및 외국인 가이드 지침서 등을 제작하고, 다국어 홍보물 제작 및 해외 홍보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9월 6~12일 ‘독일 아태주간 홍보행사’와 9월 20~23일 ‘프랑스 관광박람회’, 28~30일 ‘프랑스 한국불교문화 세계화 행사’ 등을 통해 유럽을 중심으로 템플스테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템플스테이 모바일 콘텐츠 개발, 템플스테이 국제사이트를 오픈해 한국불교문화를 전달한다.

사찰음식과 관련해서는 발우공양 ‘콩’, ‘공감’ 등의 사찰음식점 오픈에 이어 추가 분점개설을 검토 중이다. 각 분점은 고유 BI(Brand Identity) 개발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가 구축된다.

> 템플스테이 관리규정 및 성과 평가체계표 도입
> 사찰음식과 유럽 지역에서 적극적 홍보 나설 계획

이밖에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인프라 강화를 위해 △지역사무소 설치 △템플스테이 전문가 양성 △평가기준을 통해 사찰의 차등 지원 및 템플스테이 체험 상시운영사찰 15개 확대 △SNS 등을 통해 외국인 대상 홍보 및 마케팅 강화 △사찰음식 인력풀 구축을 위한 교육 강화 등을 진행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단장 지현 스님은 “자성과 쇄신 5대 결사 정신을 반영해 템플스테이를 교육, 문화, 복지까지 확장시킬 계획”이라며 “지난 10년 간 템플스테이 참가자는 외국인 10만 명을 포함해 70만 명이 넘어섰다. 앞으로도 참가자 중심인 공익적 역할을 하는 나눔 템플스테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7~8월 전국 118개 사찰을 통해 ‘여름특별 템플스테이’를 실시한다. 휴식, 사찰음식 체험, 산사음악회, 어린이 템플스테이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가장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휴식형 템플스테이’는 전북 금산사에서 2박 3일간 진행되는 ‘나는 쉬고 싶다’ 템플스테이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이밖에도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열리는 ‘뮤직샤워’는 음악과 함께 하는 특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강원 삼화사, 인천 전등사 등에서도 휴식형 템플스테이가 운영된다.

나만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고 싶다면, 화엄사 · 천은사 · 도림사가 함께 진행하는 ‘3사3색 템플스테이’도 이색적인 템플스테이 중 하나다. 또한 공주 영평사에서는 산사음식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열린다.

청소년들이 방학을 맞아 좀 더 건강한 생활 체험이 가능한 선암사 여름불교학교, 골굴사 청소년 화랑 템플스테이, 삼화사의 ‘외국인과 함께 하는 중학영어 캠프’, 직지사의 어린이 캠프 등이 실시된다. (02)2031-2000 www.templestay.com

이은정 기자

청년 경불련 성년 되다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창립 20주년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공동대표 혜자, 지현)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발전적인 활동을 다짐했다.

경불련은 7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기념식을 갖고 그동안 적극적으로 활동해 준 인사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창립 20주년을 축하했다. 감사패는 희망만들기 방과후 교실이 위치한 동대문구의 유덕열 구청장과 이병윤 동대문구 구의회 의장 및 봉사자들에게 수여됐다. 또한 현재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활동 중인 이진화 前 경불련 실무부위원장에게는 공로패가 전달됐다. 이진화 의원은 지난 세월이 떠오르는 듯 공로패 수상 후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 의원은 경불련 초창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산파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이진화 의원은 “참 행복하고 꿈만 같다. 10년이면 사라지는 단체들이 많은데 오랜 세월을 사부대중이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경불련에서의 활동이 지금 의정활동에서도 좋은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창립 20주년 기념식이 7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봉행됐다. (오른쪽부터)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경불련 공동대표 혜자 스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선묵 혜자 스님은 “그동안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앞으로는 불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갈 것이다. 바라밀의 실천이 되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해 달라”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회당문화축제 울릉도를 수놓는다

진각종조 회당 대종사 탄신을 기념하는 회당문화축제 마당이 7월 25~27일 울릉도 도동항에서 개최된다.

첫째 날 ‘체험 및 문화마당’에서는 독도와 나라사랑을 위한 소원지 달기, 독도의 날 제정 1000만인 서명운동, 울릉도 · 독도 사진전, 전통 부채 만들기, 풍등 서원 접수 등이 진행된다.

이어 ‘동해 지킴이 위문콘서트’는 울릉도 지역 해군, 공군, 전 · 의경 등을 초청해 대중음악공연 등이 진행되며 ‘독도아리랑 콘서트’에는 안치환 밴드를 비롯해 뉴트리팝스밴드, 가수 이종만 씨, J&B 소올, 소프라노 김양희 씨의 공연이 이어진다.

노덕현 기자

생태 · 환경 위한 불교 역할 조명

불교 생명사상을 토대로 생태 · 환경 문제를 진단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사단법인 소백산지킴이는 7월 26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불교의 생명사상과 생태 · 환경을 위한 역할 과제’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조은수 서울대 철학과 교수, 조성택 · 김영 고려대 교수, 조석희 국회환경포럼 자문위원이 발제자로 나선다. 토론자로는 소백산지킴이 상임이사 갈수 스님, 황상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김중휘 강원대 연구교수, 양기식 소백산국립공원 북부사업소 소장이 참여한다. (02)723-1559

조동섭 기자

인드라망 하반기 프로그램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는 2011년 하반기 인드라망 학림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귀농 희망자를 위한 프로그램인 제29기 불교귀농학교는 8월 25일 ~ 10월 20일 매주 화 · 목 저녁 7시부터 서울 신정동 인드라망교육도량에서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이론 강좌와 함께 9월 2차례에 걸쳐 의왕시 인드라망 텃밭과 남원 실상사에서 텃밭실습과 현장실습도 이뤄진다.

제2기 협동조합학교는 자본 중심의 경제에 대한 대안 프로그램으로 9월 23일~10월 21일 매주 수 · 금 저녁 19시 30분 서울 인드라망교육도량에서 실시하며 10월 중 원주 협동조합 현장을 탐방할 계획이다.

서울불교대학원대 김재성 교수가 진행하는 위빠사나, 자애명상 체험과 초기불교 강의도 8월 29일 ~ 10월 17일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마을 공동체 속 일자리 체험과 청년 희망찾기 프로그램인 청년마을학교는 8월 15~18일 남원 산내면 실상사 일대에서 개최한다. 현장에서는 마을 카페, 목수, 농부, 지역신문, 숲길 안내자, 실상사 작은학교 선생님, 지리산 생명연대 환경지킴이, 친환경매장 운영, 친환경 영농조합 유통관리, 인드라망 마을대학 교육 등을 체험하게 된다. (02)576-1886

이상언 기자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단기출가자 및 행자 모집

◑ 기간 : 일주일 이상 자유, 전액무료
◑ 대상 : 만 50세 미만 남자, 출가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행자 생활에 준하며 사찰의 기도, 참선, 공부, 울력 등 모든 수행에 동참
◑ 단체 시간외 1인 1실, 삭발
◑ 수련 후 바로 출가할 경우 모든 뒷바라지
◑ 대구큰절과 감포 무문관 선방에서수행

※ 행자(예비스님)모집합니다.
문의 : 053)474-8228, 010-2488-8228

무문관 재가수행자 및 스님 모집

◐ 입방 후 문 폐쇄, 하루 한끼 공양 제공
◐ 연령 제한 없음. 남,녀 선착순
◐ 기간 : 보름이상 자유
◐ 입방날짜는 개인별로 함
◐ 동참금 있음
◐ 문의 : 054)753-8228

※ 감포무문관에서 동안거 입방하실 스님 모십니다.
• 대상 : 법랍 10년 이상인 비구, 비구니
• 선착순 모집
• 문의 : 010-2488-8228

회주 우학스님의 신간
“하루 한가지 마음공부법”, “감사하고 사랑하며”

쾌적한 법당형 극락 납골 봉안당
문의 : 053)474-8228, 010-6296-0108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 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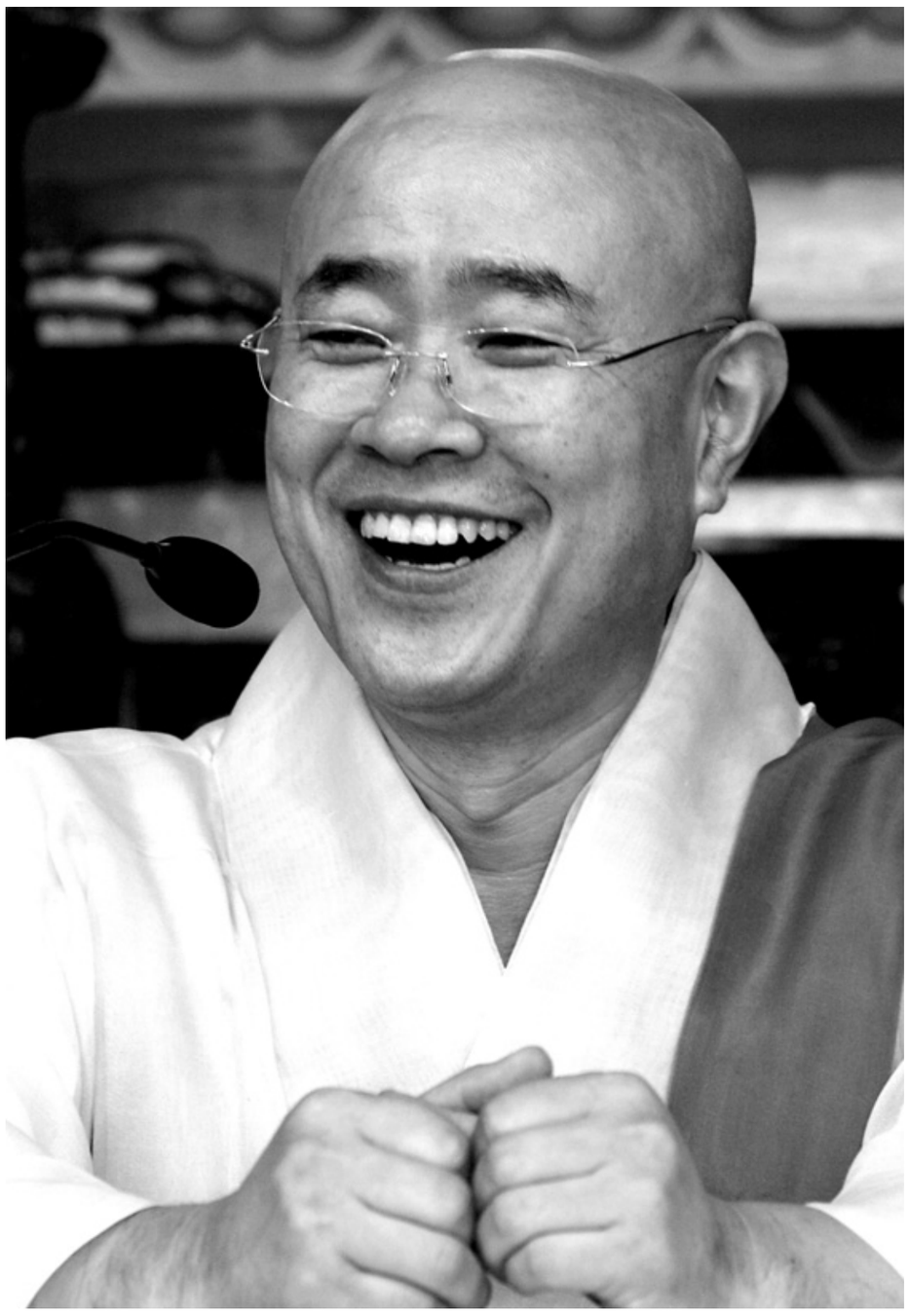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해주세요’ 말고 ‘하겠습니다’ 기도해야 이뤄진다



원오사 선지식초청법회, 쌍계사승가대학 강사 월호 스님

쌍계사 승가대학 강사 월호 스님(행불선원장)은 7월 7일 통도사 극락암 분원 원오사에서 ‘삶은 판타지다’를 주제로 법문을 진행했다. 스님은 보시공양으로 복덕을 쌓는 바른 수행을 실천해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되는 참된 불자의 길을 걷자고 설했다. 정리=박지원 기자

월호 스님은… 동국대 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쌍계사 고산 스님 문하로 출가, 쌍계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제방선원에서 참선수행, 고산 스님으로부터 강맥을 전수 받았다. 현재 쌍계사 승가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서울 행불선원 원장, 불교방송 ‘당신이 주인공입니다’를 진행하고 있다. 저서로는 〈영화로 떠나는 불교여행〉 〈휴식〉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마음의 불서〉 〈행복도 내 작품입니다〉 〈문 안의 수행 문 밖의 수행〉,〈세어본 소만 존재한다〉 〈본마음 참나〉 등이 있다.

부처님 ‘가장 높은 절대적 깨달음’ 얻은 분

“부처님께서는 공양을 받을 만한 분이시며, 바르게 모두 아시는 분이시며, 지혜와 실천을 구족하는 분이시며, 피안으로 잘 가신 분이시며, 세상을 잘 아는 분이시며, 가장 높은 분이시며,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이시며, 신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깨달으신 분이시며, 가장 존귀한 분이시다.”

〈법구경〉 삼보에 대한 명상

초기경전인 〈법구경〉 중 삼보에 대한 명상 가운데 부처님을 칭송하는 열 가지 이름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래십호란 부처님을 일컫는 10가지 이름으로 여래(如來), 응공(應供), 정변지(正遍知), 명행족(明行足), 선서(善逝), 세간해(世間解), 무상사(無上士), 조어장부(調御丈夫), 천인사(天人師), 불세존(佛世尊) 이상 10가지입니다.

‘응공’은 응수공양(應受供養)에서 온 말로 깨달음을 얻었기에 마땅히 공양을 받아야 될 분이라는 뜻입니다. ‘정변지’는 우주 만물의 모든 이치를 완전하고 바르게 깨달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명행족’은 깨달음의 지혜와 그 실천을 함께 갖추신 분, ‘선서’는 고통스런 생사윤회의 강을 건너가신 분을 뜻합니다. ‘세간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완전하게 이해하신 분이며, ‘무상사’는 그 어떤 것보다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조어장부’는 대자대비로 중생을 깨달음으로 인도하신 분, ‘천인사’는 하늘의 신과 중생의 스승을 의미하고, ‘불세존’은 불은 깨달은 사람, 세존은 중생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시는 분이라는 뜻으로 결국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반야심경〉 중 ‘아뇩다라삼막삼보리’는 부처님의 두 가지 이름인 무상사와 정변지를 뜻하는 것으로 부처님이 얻으신 최상의 절대적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삼보란 무엇일까요. ‘불법승’은 진정한 보배입니다. 붓다(Buddha, 부처님), 달마(Dharma, 가르침), 상가(Sangha, 스님)가 최상의 다이아몬드 귀걸이이며 루비 목걸이이고 진주 반지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받드는 불자라면 부처님이라는 목걸이를 하고, 가르침의 귀걸이를 걸고, 부처님의 십대제자를 손에 지니고 다니는 셈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한 번이라도 부처님이라는 말을 듣는 것 만으로도 엄청난 행운입니다. 지구상에는 65억의 인구가 사는데 그 중에는 평생을 살아도 부처님 이름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보다 더 많을지도 모르지요.

대부분의 종교는 신을 섬기지만, 불교는 신들이 섬기는 종교라는 설명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법당에서 불보살과 부처님의 제자 아라한은 상단에 모셔져 있고, 신은 중단, 영가는 하단에 모시는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생전에 마음공부를 잘해 번뇌에서 해탈한 아라한이 되면 신들보다 더 높은 상단에 오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영가단에서 신중단, 그리고 신중단에서 상단으로 오를 수 있을까요.

부처님 당시 어느 마을에 지독하게 가난해 이름마저 ‘극빈자’라 불리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의 마을에 부처님께서 머물며 설법을 하고 있었는데,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도반에게도 권선한다면 복덕이 생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극빈자도 단 한 명의 스님에게 내일 아침 공양을 올릴 것을 약속하고, 돈을 구하기 위해 하루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평소 생계에 전전긍긍하며 일할 때와는 다르게, 덕 높으신 스님께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으로 복 지을 생각에 온통 환희심으로 가득했겠지요.

다음 날 관리를 찾아가 스님의 처소를 묻자, 모든 스님에게 백성들이 이미 공양을 올렸다고 말합니다. 실망하는 극빈자에게 단 한 분이 아직 공양을 받지 않았다며, 부처님에게 안내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모든 이들 가운데 가장 가난한 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기에 극빈자는 정성껏 지은 공양물을 부처님께 바쳤습니다. 부처님은 공양을 받은 후 극빈자에게 축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대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속히 이뤄지기를, 보름달이 가득 차듯이 그대의 바람이 가득 차기를, 그대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속이 이뤄지기를, 소원을 빌면 이뤄지는 마니보주처럼, 그대의 소원이 속히 이뤄지기를, 소원성취하소서.”

훗날 극빈자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보시의 공덕으로 나라의 고위급 관직은 물론 마을에서 제일가는 부자가 될 수 있었다고 전합니다.

이 설화에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 복덕이 생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공양을 올릴 뿐 도반에게 권하지 않으면 재복은 있지만 인복은 얻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남에게는 시주하라고 권하면서 정작 자신은 시주하지 않는 사람은 인복은 있지만 재복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이도 저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인복도 재복도 따를 수 없겠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불자들은 부처님 전에 작은 공양을 올리면서 너무 많은 소원을 바라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봅시다. 이번 생에서 많은 보시를 해야 다음 생에 부자로 살 수 있고, 그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라며 소원을 구걸하는 마음을 연습하면 다음 생에 극빈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과 ‘연’이 만나면 소원 성취

〈아함경〉에서는 인간이 미망(迷妄)과 고통의 존재임을 12인연으로써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어떠한 발원을 세웠을 때 인(因)은 나의 노력, 연은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이 두 가지가 만나야 발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인이 충실해도 연(緣)이 부실하면 과가 부실하고, 연이 충실해도 인이 부실하면 과가 부실합니다. 인과 연이 모두 충실해야 과(果)가 충실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인연법입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할 때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부처님께 기도만 한다면 이뤄지지 않듯,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부처님의 가피로 건강하게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연이 조화를 이루면 뜻이 이뤄집니다.

“~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한 구걸형 기도이고, “~하겠습니다.”는 발원형 기도입니다. 그렇게 바르게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으로 나투신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습니다. 흔히 부처님은 ‘법신불’이라고 해, 마음 깊이 참나(眞我) 자리에 계셔서 색깔이나 모습, 음성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신불만 있다면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지 못해, 법당 앞에 풀의 키가 한자나 자랄 만큼 발길이 뚝 끊기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나투신 부처님이 바로 ‘보신불’입니다. 바로 아미타불, 지장보살, 관세음보살님이 그러한데요.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보신불’을 친견할 수 있습니다. 심안이 열렸거나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다면 언제 어디서나, 꿈속에서도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텅빈 마음자리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신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신이 나를 대신해서 밥을 먹어줄 수

> “부처되게 해 달라며 소원 구걸하는 연습하면 다음 생에 극빈자가 되고 만다 신과 우리는 불법(佛法) 배우는 도반, 굳이 신에게 종노릇 할 필요있나”

도, 잠을 잘 수도, 법문을 들어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모습도 나의 작품일 뿐이며, 그래서 지금의 내 모습과 미래는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고정불변의 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 여기 법당에 앉아 저와 마주하고 있는 행위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의 미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불교는 숙명론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 뿐 아니라 신들의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신과 우리는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도반이니, 굳이 신에게 종노릇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것은 인과설에 따른 당연한 이치입니다. 즉, 고정된 나는 없기에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나를 만들 것인가는 내가 만들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空) 사상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텅 비어있기에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의 메시지입니다. 이때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는 내가 선택해 스스로 채워나가는, 내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공 사상은 무아설의 핵심 이론입니다. 성불(成佛)은 행불(行佛)로부터 이뤄집니다. 바로 여기에서 자신의 주인이 되십시오. 우리의 삶은 한 순간의 마음가짐에 따라 더 멋지고 아름답게 변하기에 우리의 삶은 판타지입니다.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스님! 법당의 엠프 소리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지금 즉시 - 전화주세요...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 스테레오 앰프 300AN
2Channel Stereo Mixing Amplifier Disital Echo

• 高音質 무선마이크


고장난 마이크 완벽하게 수리해 드립니다 !!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 DX-707 스텐드 마이크

◆특징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 법당 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 일반 마이크 V-606LC

◇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고성능 탁상마이크

◆ 가격 : 135,000원(일반형)
175,000원(고급형)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www.hypnos114.com

전생·빙의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매월 첫주 월요일 개강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오후 5시 까지 (7회 과정)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 CD제공)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전생요법
도대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제반 문제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치유
빙의된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어떤 영가가 들어와있는지 당사자나 가족들이 알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 건 무었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할 수 있다.

사주명리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백호대살은 저승사자
달고다니니 횡사 악사요...

KBS 무한지대-큐
MBC TV특종 놀라운 세상
SBS 백만불 미스터리
tvN 엑소시스트 등 각종 TV방송에 다수 출연

한국최면과학원장 임 재 형 박사 직강

커버넌트대학 상담학 박사
미국 스탠톤대학교 교수
국제 임상최면 전문가
심리상담 전문가,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 전문가
한국최면지도사 협회장
미국 국제최면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원

대학교 평생교육원 최면학 강의 및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경찰관서 등 에서 최면 특강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요법의 이론과 실제, 전생 · 빙의 등

미국 스탠톤대학교 부설 최면연구소
한국최면과학원
http//:www.hypnos114.com

현재 접수중

대전(042) 222-0737
대전 중구 선화동 364-8 (명상센터 3층)
(도청과 대전세무서 중간지점)

눈감는 순간까지 불사회향 발원

부산 진여원, 2000일 관음기도회향식

"1000일 기도를 시작할 때만해도 과연 해낼 수 있을까하는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해나갈 수록 마음은 편안해졌고, 2000일 기도를 회향하는 이 순간 부처님의 가피와 도반들에게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부산 진여원(원장 남순덕, 법명 보타월)이 7월 13일 '진여원 도량 건립불사 2000일 관음기도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3000일 기도를 회향 때까지 남은 1000일 기도 원만 회향을 위한 발원기도도 함께 진행됐다.

진여원은 3000일 관음기도 회향 이후 현 건물 4층을 추가로 임대해 센터에서는 불교문화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불교교리강좌 및 신행활동 프로그램 신설, 지역아동을 위한 공부방을 열어 신도 자녀가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인재불사에도 나선다.

또 부산시 북구청과 협력해 200평 지상 4층 규모의 호국 진여원을 건립해 진여원에 모셔진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 235위의 위패를 봉안할 예정이다.


진여원은 7월 13일 진여원 도량 건립 2000일 회향법회와 함께 1000일 기도 발원기도를 진행했다.

건립불사 기도는 6년 전 60명이 함께 시작했다. 6년 동안 치열하게 기도하던 노보살 5명은 회향법회를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 재소자들의 동참도 있었다. 교도소에서 3000일 기도에 동참한 재소자 23명 중 1명은 3000일 회향법회에 출소해 회향까지 함께 할 기도를 이어가기로 했다.

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들은 자신들로 인해 생을 못 다 이룬 피해자의 극락왕생을 서원하며, 매일 아침 108배를 하고 1000일 기도부터는 〈금강경〉과 〈관세음보살보문품〉을 사경해 매주 우편으로 보내왔다. 사경된 경전들은 그들의 기도공덕이 삼라만상에 닿을 수 있도록 태워 뿌려졌다.

불자들은 도심 도량으로 인접한 주택가를 배려해 매일 새벽 6시 관음정진기도에는 목탁을 치지 않았고, 오전 10시 사시예불 후에는 법당이나 집에서 스스로 수행정진에 임했다.

이번 기도에 동참한 권경옥(법명 보경월) 씨는 "2000일 기도를 마친 지금은 어떠한 큰일이 닥쳐도 휘둘리지 않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게 됐다"며 "누구나 일상에 찌들려 살지만, 기도를 하면 세상을 둥글게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뜰 수 있으니 많은 도반들이 모여 함께 기도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보타월 원장은 "수행정진을 열심히 했으니, 앞으로 영원불변의 진리를 신도들의 가슴 속에 새길 수 있도록 불교교육에 힘쓸 것"이라며 "진여원이 참 불자를 기르는 '인법당'이 되어 사람을 제대로 키워주는 도량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여원은 1997년부터 13년째 6월 초 북구 화명동 북부경찰서 옆 현충공원에서 '호국영령위령제 및 보훈가족 위안행사'를 봉행해, 유가족과 보훈단체 회원 등을 초청해 순국선열의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의 어려움을 보듬어 안고 있다. 신도 중 전 몰군경미망인회 회장이던 한 미망인을 위해 1997년 호국영령과 전몰군경영가 합동천도재를 봉행하고 진여원 법당에 호국영령 235위의 위패를 봉안했다. (051) 338-1008

박지원 기자

우리지역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200만 부산 불자들 한마음·하나로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범어사 신도회장



"200만 부산 불자의 역량을 결집해 실천하는 수행공동체로서 혼신의 힘을 다해 부산 불교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단체로 만들겠습니다."

부산불교연합신도회(이하 연합신도회) 제2대 회장으로 이윤희 범어사 신도회장(사진)이 내정됐다. 창립멤버인 그는 앞선 설동근(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前 부산시교육감) 초대회장이 다져놓은 초석 위에 굳건한 집을 지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

이윤희 회장은 "불심 도시인 부산은 그동안 한국불교의 든든한 대들보가 됐었다고 감히 자부한다. 하지만 불자들이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기성찰의 목소리도 들려온다"며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기쁨보다는 크나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연합신도회는 기존의 여러 재가단체 간 화합에 대한 우려 속에서 2008년 11월 20일 창립했다. '부산불교발전은 한국불교의 중흥을 이끌고, 나아가 부산이 세계불교의 중심'이라는 비전을 공포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재가불자를 발굴해 부처님 정법이 사회 전반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힘썼다.

특히 부산의 대표적 승가단체인 불교연합회(회장 정여, 범어사 주지)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해 재가자로서 승가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을 담당했다.

이러한 3년간 노력으로 연합신도회를 중심으로 조계종과 천태종, 일붕선교종, 태고종, 진각종 등 지역 내 10여개 종단의 50여개 사찰, 30여개 신행단체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수행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임기 동안 단결 된 연합신도회를 구축하고 싶습니다. 기존의 신도회를 비롯한 단위사찰의 신도회 등의 대통합을 추진할 계획을 구상중입니다."

이 회장은 임기 내 재가불자의 대통합을 목표로 부산시불교연합신도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을 추진하고, 투명한 경영과 조직의 안정화,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1대 회장단이 추진한 사업을 성공모델로 삼아 ▷재가불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 ▷명상따라 걷는 부산불교 ▷아시아 빈곤불교국가 지원 등 주요 사업도 이어간다.

그밖에 연합신도회와 단위사찰 신도회 결집을 위한 템플스테이와 청소년 장학사업 등 신행프로그램을 개설해 실천하는 수행공동체로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경북 군위군의 작은 시골마을에서 나고 자라면서 불심이 깊으신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처음 만난 부처님과 법당은 낯설고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월이 흘러 연합신도회의 회장 소임을 맡은 것은 더 열심히 자비행을 실천하라는 가르침으로 알고, 이 환희심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도록 부지런히 정진하겠습니다."

이윤희 회장은 주식회사 태금정 대표이사로 범어사 신도회장, 김해상공회의소 상공의원,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장, 한국BBS부산연맹회장,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위원장, KBS부산방송총국 시청자위원회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2010산업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부산시불교연합신도회장 이취임식은 7월 25일 오후 3시 부산 KBS홀에서 개최된다.

(051) 861-8800, www.baob.kr 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 사무국

박지원 기자

외교사절단, 한국불교에서 답 구해

범어사, 중국 부산총영사·태국 방콕시장 잇달아

중화인민공화국 부산총영사와 태국 방콕시장이 잇달아 부산 범어사(주지 정여)를 방문해 불교를 통해 정치 현안에 대한 답을 구했다.

7월 9일 학효비(郝曉飛) 중화인민공화국 부산총영사가 영사관 직원 17명과 함께 범어사를 방문했다.

보운 호법국장스님의 안내로 박물관, 일주문, 불이문, 삼층석탑, 대웅전, 휴휴정사 등 도량을 참배하고 사찰음식과 전통차를 체험했다.

학효비 부산총영사는 "한중수교 19년간 부산을 비롯한 영남권 도시와 중국의 상호교류가 눈부신 발전을 거두고 있지만, 중국은 대만과 분단되었고 56개 소수민족간의 대화합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여 스님은 "중국은 2008년 개최된 북경올림픽을 전후로 급성장해 아시아를 움직이는 강국이 됐지만 티베트와 같은 소수민족을 두루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 보살정신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자비를 베풀어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11일 오전 12시 태국 수쿰판 버리핏(Sukhumbhand Paribatra) 방콕시장과 주한태국대사 등 18명의 방콕시 대표단이 범어사를 방문했다.

같은 날 오후 5시 부산시청에서 예정된 '부산·방콕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식'에 앞서 종교지도자를 예방한 것으로, 주지실 후원에서 한국 전통 약선식과 사찰음식으로 마련한 오찬을 나눴다.

수쿰판 버리핏 방콕시장은 "1000년동안 부산시민들의 정신문화를 지켜온 범어사에서 힘차고 역동적이면서 정이 깊은 시민들의 정서를 느끼고 간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정여 스님이 태국 방콕시장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전통불교조계종 제1대 종정 경호 스님 추대

전통불교조계종 제1대 종정에 부산시지정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보유자 경호 스님(사진)이 추대됐다.

사단법인 전통불교조계종은 7월 11일 부산 영축사(주지 원산)에서 종정 추대 및 총무원장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제1대 종정에 경호 스님, 제1대 총무원장에는 대한전통불교문화예술대학 이사장인 원산 스님이 취임하고, 원산 스님이 주지 소임을 맡은 부산 동구 영축사에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이 꾸려졌다.



종정 경호 스님은 "종도들과 각 주지스님들의 뜻을 받들어 모범이 되는 종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용호복지관, '아동·청소년 지킴이' 꿈사모 출범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7월 12일 '꿈을 가진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출범식을 개최했다. (왼쪽에서)두 번째 김광욱 회장 세 번째 이춘성 관장.

부산을 대표하는 불교계 사회복지기관인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이 지역 아동과 청소년 지킴이로 두 팔을 걷어 올렸다.

사회복지법인 불국토(이사장 혜총, 조계종 포교원장) 산하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7월 12일 2층 강당에서 '꿈을 가진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회장 김광욱, 이하 꿈사모) 출범식을 개최했다.

꿈사모는 용호동 지역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4명의 젊은 관장을 주축으로 야간 인적이 드물고 방범CCTV가 구축되지 않은 지역을 순찰 및 선도활동을 펼치게 된다. 특히, 순찰 중 만나는 비행청소년에게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건강하고 바른 심신수양을 지도할 예정이다.

김광욱 회장은 "아동성폭력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더 이상 조두순과 같은 범죄자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사회를 건강하게 바꿔나가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051)628-6737 박지원 기자

'영어로 배우는 선무도 화랑사관학교' 禪 무드라 명상 테라피 심신 치유프로그램

선무도 청소년 화랑수련 템플스테이

신라 화랑들의 기상과 조선시대 승병들의 혼이 깃든 함월산 선무도총본산 골굴사의 선무도 화랑사관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심신치유를 위해 제 39회(20년전통) 여름계절 학기를 개최합니다.

컴퓨터 게임이나 과중한 학습으로 신체가 허약하고 정서가 불안한 청소년들에게

☞『禪 무드라 명상 테라피』와 심신치유 프로그램
☞ 스님의 불교 강의와 인성교육
☞ 원어민 영어 강사가 함께 지도하는『영어로 배우는 선무도』

엔터테인먼트 선무도 공연단 "사천왕"
공연시간 : 오전 11시, 오후 3시



※ 언 제 : 2011년 07월 24일 ~ 2011년 08월 20일 (4주간)
※ 모 집 인 원 : 매주 일요일 10시~15시 입소. 토요일 12시 퇴소.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1주간 참가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합니다.
※ 대 상 : 초등학생 ~ 중학생 (고교생은 일반인 템플스테이)
※ 수 련 회 비 : 1주-49만원 · 2주-90만원 (교재비 포함)이며 수련비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 농협 721107-51-021211 (예금주 : 골굴사)
※ 준 비 물 : 세면도구 · 수건 · 필기도구 · 운동복 · 운동화 · 모자 · 개인 컵 등 (현금, 휴대폰, MP3 휴대 금지)
※ 접수 및 문의 : Tel 054)775-1689 / 744-1689 / Fax 054)775-1689 / 홈페이지: www.sunmudo.com
* 환 불 규 정 : 입소당일 취소는 하루수련비(7만원)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 교육프로그램 : 1.건강회복 • 심신단련 : 선요가, 선기공, 선무술, 산행
2.호연지기 : 호신술, 국궁수련, 승마교육 3.심성정화 :108배, 참선, 운력
4.정서치유 : 명상치유, 선무드라 테라피, 상담치유, 미술치유, 무용치유,음악치유(판소리,전통악기),생태체험치유
5.교양수업 :문화관광(성지순례, 박물관) 원어민 영어회화, 불교강의와 한문교육, 다도

<< 일 과 표 >>

시간	내 용	시간	내 용	시간	내 용	시간	내 용
5:00	기상	10:00	선무도 수련	13:00	독서와 사색	17:30	저녁 공양
5:30	새벽 예불 · 좌선 · 행선	11:00	108배 참회기도 · 자아를 찾는 명상	14:00	승마, 다도, 활쏘기, 선무도, 치유프로그램	18:30	저녁 예불
6:30	아침 공양 (주 1회 발우공양)					19:00	자율학습 및 참회록 쓰기
8:30	영어회화 · 불교 강의	11:30	점심 공양	16:30	울력(도량 청소 및 정리)	21:00	점호 및 취침

1500년 전통사찰 · 연인원 3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11교구 골굴사 · 선무도 화랑사관학교

전국 사찰전문 공급업체

다영보이 茶瑩普珥

1. 중국 운남성과 접경지역인 베트남 북부 청정지역의 야생차엽을 현지인들이 채취하여 현지 공장에서 제품화하고 수입하여 국내에서 소분, 포장한 제품입니다.
2. 정식 수입통관 절차 및 부산세관 식약청의 무농약 · 중금속 검사를 모두 통과 하였고 2010년 한국식품연구소에서 무농약 입증검사 실시 통과한 제품입니다.
3. 다영보이는 1996년 약 12년 이상 정성을 다해 산차로 숙성하여 마지막 단계에서 증기로 쐬어 숙차병차로 만들었으며 철저한 관리에 의해 보관하여 부드럽고 깊은 보이차만의 맛과 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산차 ~~45,000원~~ 38,000원
산차 ~~70,000원~~ 65,000원
병차 ~~165,000원~~ (500개 한정수량) 99,000원

순수 자연 야생보이차



• 판매원 : 마하몰 02)732-1520
• 제조원 : 다 영 보 이 02)959-8874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67 토마토파르코오피스텔 1507호

www.dayoungtea.co.kr / www.다영보이.kr

익산 숭림사 보광전 매몰 위기 넘겨

스님 · 공무원 · 주민 9시간 장맛비 사투

익산 숭림사(주지 지광) 보광전이 집중 호우로 발생한 산사태로 매몰될 위기에서 간신히 벗어났다.

익산 지역은 최근 500㎜ 가까운 장맛비가 내리면서 보물 제825호인 보광전 주변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CCTV를 통해 보광전을 모니터링 중이던 지광 스님은 7월 10일 오후 12시 40분 경 산사태가 발생하자 소방서와 송천마을 이장, 익산시청에 연락해 대중들과 함께 보광전 보존과 복구를 위해 노력했다. 복구 작업은 밤 9시까지 계속됐다.

이번에 산사태 위기에서 벗어난 숭림사 보광전은 뒷산과의 거리가 불과 3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60° 이상의 가파른 경사를 유지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지광 스님은 "예년에는 강수량 150㎜정도의 비에도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이번 장맛비는 집중호우에 버금갈 정도로 강수량이 많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다" 며 "우선 임시 조치를 취했지만 앞으로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에 대배해 철저한 대비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고 말했다. 지광 스님은 연일 장맛비가 계속되자 CCTV로 보광전 주변을 관찰 중이었다.

지광 스님은 또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받고 즉시 복구 작업에 나선 익산시 공무원들과 송천마을 주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며 "문화재청이 긴급예산을 편성해 복구에 나선다고 약속했지만 몇 년 전에도 뒷산에 떨어진 번개로 인해 숭림사 요사에 불이 붙는 사고를 모면한 적이 있어 이번 기회에 보광전 뒷산의 가파른 경사를 원만하게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혜의 빛으로 세상을 비춘다는 비로자나불을 모신 보광전은 17세기 이전에 지은 건물로 추정된다. 보광전은 앞면 3칸과 옆면 3칸으로 구성됐으며 지붕은 맞배지붕이며 건물 안쪽은 보 끝에 용머리를 조각했다. 기둥 윗부분 건축 부재들은 연꽃, 용의 몸, 용 앞발이 여의주를 쥐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 보광전은 조선 후기 건축물로 건축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숭림사가 장맛비로 발생한 산사태를 복구하고 있다.

전북 지역 범패·어산 맥을 잇는다

호남 범음회, 제10차 하계 수련회

전북 지역의 범패와 어산을 연구하는 스님들의 모임인 호남 범음회(회장 휴암, 익산 석불사 주지)는 7월 11~20일까지 익산 석불사에서 열 번째 수련회를 개최했다.

호남범음회 회원 스님 23명이 참가한 이번 수련회에서는 한국불교 화엄종 종정인 휴암 스님을 비롯해 교육원장 우화 스님(광주 법흥사), 운산 스님(선인암)으로부터 사물, 천수바라 등의 어산과 안차부, 겉차부, 사다라니등의 범음 전통의식 강습이 실시됐다.

익산 금마에서 출생한 우리나라 영산재의 시조인 진감국사 혜소 스님의 맥을 있는 어산, 범패의 '호남재' 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창립된 호남 범음회는 현재까지 총 108회의 연수를 마쳤으며 매월 한차례씩 회원 사찰을 방문해 정기적으로



연수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편, 호남 범음회는 20일 석불사 대웅전에서 열린 회향식에서 사물, 작법, 천수바라 등 부처님전에 공양을 올리는 전통의식을 재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섬지역 불교활성화와 남북평화통일 기원 대법회

수향사 주지 벽해 스님

지역불교활성화와 남북평화통일을 기원하기 위한 대법회가 완도에서 열린다.

완도 수향사(주지 벽해)는 7월 24일 완도 고금면 수향사 야외법당에서 '국운융창 및 남북평화통일 기원 만등대법회' 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완도지역 불자를 포함해 전국각지에서 3000여명의 신도들이 동참할 예정이다. 행사는 1부 방생의식과 2부 문화공연, 제3부 육법공양 및 찬불가 합창, 제4부 만등법회 전통작법의식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불교포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전남 해안지역 완도에서 지역불교활성화를 염원하는 의미로 개최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행사를 준비 중인 벽해 스님은 "이번 만등법회는 저마다 마음의 등을 켜고 번민하는 개인과 민족의 발전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 지사장**

우리 집 근처 템플스테이 어디?

호남 사찰 · 단체 이색 프로그램

휴가철을 맞아 전국 각 사찰마다 다양한 템플스테이들이 불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호남에서도 사찰 및 단체들이 저마다 특색 있는 템플스테이들을 준비 중이다.

광주전남전법단과 동연 광주지구는 8월 2~4일까지 어린이 불교 캠프를 연다. 어린이청소년 공동체 나무숲은 8월 5~7일까지 제7회 어린이 생태학교를 마련했다. 올 여름에는 무예 배우기, 성격검사, 생태체험 등 어린이 ·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다양해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수행지	날짜	수련명	연락처
전남 보성 대원사	8월 2~4일	어린이 불교 캠프 (광주전남전법단, 동연 광주지구)	(062)385-1311
지리산 천은사	8월 5~7일	제7회 어린이 생태학교 (어린이청소년공동체 나무숲)	(062)223-3623
전남 보성 대원사	7월 29~31일	나의 행복지수 올리기 캠프 (광주 파라미타)	(070)8733-0108
구례 화엄사	7월 26~28일	선재 화엄사를 가다	(061)782-7600
선암사	7월 29~31일	제4기 여름불교학교	(061)754-6250
담양 몽성선원 용흥사	7월 22~ 24일	어린이, 청소년 여름불교학교	(061)382-0574
무안 봉불사	7월 29~ 31일	제9차 어린이청소년명상캠프	(061)454-2303
영광 불갑사	8월 3~5일 /8월 17~19일	청소년 템플스테이	(061)352-8097
전주 참좋은 우리절	7월 29일 ~8월 1일	여름 불교학교	(063)236-6633
익산 숭림사	8월 5~7일	한문(인성교육)템플스테이	(063)862-6394
김제 금산사	7월 26~28일	어린이 여름템플스테이	(063)542-0048

우리지역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이주여성들의 든든한 맏언니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사무국장 김완숙



광주시 광산구는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해 많은 다문화가정이 존재한다.

바로 이곳에서 불교계의 큰 일꾼이 묵묵히 활동 중이다. 그녀는 바로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김완숙 사무국장(사진)이다.

김 국장이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단체에 일을 시작한 것은 남편인 이주성 교수의 일을 도우면서이다.

"저는 원래 다문화가정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문화가정을 보면서 그곳의 아이들이 보였어요. 아이들의 언어적, 심리적 상태가 먼저 눈에 들어오면서 아이들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그녀는 광주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사무국장 을 역임하며 어린이 포교에 8년의 시간을 보냈다. 불교유치원을 운영했던 그녀에게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안타까움 그대로였다.

2008년도 문화관광부에 공모사업으로 낸 '전래동요를 통해 한국어교육' 이 채택되면서 본격적인 다문화가정의 맏언니의 역할이 시작된다.

그녀는 다문화가정을 만날 때 이주여성의 남편과 가족들을 함께 만난다. 다문화여성의 말만 듣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인데, 가족들이 동참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레 가족들과 대화의 시간을 만든다.

센터에는 현재 70여명의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찾아온다. 그중 30~40명의 회원들은 늘 만나는 가족이다. 대부분의 다문화사업은 다문화 가정에 물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많다. 이주여성들도 마찬가지로 받는데 익숙하다. 센터는 늘 받는 것에 익숙한 이들의 방문처였다.

자신들에게 무엇을 줄 것이냐는 이주 여성들에게 김 국장은 물건이 아닌 마음을 주겠다고 말한다. 김완숙 국장의 이 한마디는 이주여성들의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도리어 이제는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센터에 가져오거나, 집에서 나는 과일을 가져와 나누어 먹는 것이 익숙해졌다.

"앞으로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을 위한 센터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학교와 실생활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다문화청소년들이 또래의 아이들과 서로 잘 어울릴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양행선 광주전남 지사장

백혈병 환우들의 행복한 나들이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는 오랜 병마에 지친 환우와 가족들의 나들이 행사를 7월 9일 콜럼버스시네마 상무점에서 진행했다.

행사는 평소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에 헌혈증 모집과 저금통 후원을 진행하고 있는 콜럼버스시네마 상무점과 광주광역시 후원으로 환우가족들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영화를 관람했다.

소아암백혈병 가족들의 모임인 빛고을 동우회 회장 정영출씨는 영화상영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아이가 아파, 지금껏 가족들이 영화관을 쉽게 올수 없었다. 오늘은 아들과 함께 영화도 보고 맛있는 식사도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겠다"며, 행사를 준비해준 광주생명나눔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현지 스님은 "특히 병마를 이겨내고 있는 환우가족들이 더욱 힘을 내 가족구성원들이 서로 화목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 지사장**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www.chorokwon.com 박현숙 원장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2011 길상사 여름선수련회

너는 내 세상 어디에 있느냐? 너에게 주어진 몇몇 해가 지나고
몇몇 달이 지났는데, 너는 네 세상 어디쯤에 와 있는냐?

-법정 스님의 '오두막편지' 중에서-

길상사의 준비된 여름선수련회를 통해
여러분의 자리와 내면의 소리에 귀기울려보십시오

구분	날 짜	기 간	모집대상(정원)	참가비
선수련회 1차	7월 22일(금) ~ 7월 23일(토)	1박 2일	마감	마감
선수련회 2차	7월 25일(월) ~ 7월 27일(수)	2박 3일	마감	마감
선수련회 3차	**7월 28일(목) ~ 7월 31일(일)**	**3박 4일**	**일반인(70명)**	**12만원**
선수련회 4차	8월 1일(월) ~ 8월 3일(수)	2박 3일	마감	마감
선수련회 5차	**8월 4일(목) ~ 8월 7일 (일)**	**3박 4일**	**일반인(70명)**	**12만원**

◆ 참가 및 신청방법 : *http://www.gilsangsa.or.kr*
- 홈페이지 신청하러가기 클릭 → 신청서작성 → 신청차수 결정 → 신청자명 입금
- 준비물 : 수건, 세면도구, 메모용 필기구, 우산, 개인컵, 반팔티셔츠 (흰색)여벌, 운동화
- 참가 및 문의전화 : **02)3672-0036** / 담당자 곽현준

◆ 주의사항
- 참가를 원하시는 희망 차수를 꼭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비 입금 시 입금자 명은 참가자로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입금계좌안내 : 신한은행 100-021-1136827**」
- 환불기준 각 차수별수련회 시작 2일전까지 환불가능.

◆ 신청접수 확인
- 홈페이지 우측 상단 신청조회를 통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석길암의
고려불교인물〈8〉
원융국사 결응
(圓融國師 決凝; 964~1053) 下

종신토록 부석사 머물기를 발원

고려 전기 특히 거란의 침입을 막아내고서 고려가 동아시아의 강자로 떠오르는 시기인 현종 시대 이후의 유명한 승려들은 대부분 부유한 호족 가문 출신이다. 결응 스님 역시 그러한 출신 가문의 배경을 지니고 있었다.

스님의 어머니 방 씨는 훌륭한 아들을 낳기 위해 남방환희세계의 교주인 보승여래불을 봉안하고 늘 기원했는데, 스님을 낳던 날에도 집안에서 도량법석을 펼쳐 스님들께 경을 강청하였다. 스님은 나이 12살에 용흥사에서 광굉(廣宏)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이듬해인 개보 8년 흥복사 관단에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이후 28세 때 선불장(選佛場, 승과시험장)에 나아가 선발됐고, 정종 때는 승통이 됐다. 다시 정종 10년(1044)에 왕사로 책봉됐다. 또 고향집을 절로 바꾸어서 머물렀는데, 임금이 화엄안국사(華嚴安國寺)라고 이름을 지어 내렸다. 1047년에 국사로 책봉된 스님은 거란 중희 10년(1044)부터 만년에 부석사에 주석하게 됐는데, 스님이 계신 동안 사부대중이 산림을 문으로 삼아 운집한다고 할 정도로 많은 대중들이 모였다고 한다.

스님은 종신(終身)토록 부석사에 머물 것을 발원했는데, 머무는 동안 〈화엄경〉을 간행해 부석사와 화엄안국사에 각각 봉안했다. 스님이 의상 화엄계의 직계 후손인 것은 부석사를 구산(舊山)으로 칭한 데서 알 수 있지만, 그 사상의 내용은 비문의 훼손으로 인하여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비명에서는 무량수전과 관련한 의상 스님과 제자의 문답을 특기하고 있는데, 아마도 스님의 신앙과 사상적 자세가 그것에 부합했

호족 출신인 결응 스님 국사 올라
부석사 머무는 동안 〈화엄경〉 간행
의상 화엄계의 직계 후손

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부석사 무량수전에는 오직 아미타불의 불상만 봉안하고 좌우 보처도 없고 또 불당 앞에 영탑(影塔)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날 제자 중의 한 분이 묻자 의상 스님이 다음과 같이 답했다고 한다.

"스승인 지엄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일승의 아미타불은 열반에 들지 아니하고 시방의 정토를 체(體)로 삼아 생멸상이 없기 때문이다' 고 하셨다. 입법계품에 이르기를



경북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로부터 관정과 수기를 받은 이가 법계에 충만하여 그들이 모두 보처(補處)와 보궐(補闕)이 되기 때문이다' 고 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지 않은 까닭에 궐시(闕時)가 없으므로 좌우 보처를 모시지 않았으며, 영탑을 세우지 않은 것은 화엄일승의 깊은 종지를 나타낸 것이다."

비명에는 이 구절에 이어서 지엄 스님이 화엄의 종취를 의상에게 전하고, 의상 스님 이후 원융 국사에게까지 전승됐음을 적기하고 있다. 스님의 신앙과 사상의 세계가 부석사를 본산으로 하는 의상계 화엄사상과 신앙에 고취돼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존하는 비문으로는 스님의 사상적 입각점이 의상계 화엄의 그것이라는 것만 알 수 있을 뿐이고, 스님이 이 시기 의상계 화엄을 지키는 대들보 역할을 했음을 보여줄뿐이다. 그러나 성종 대로부터 문종 대에 이르기까지 왕사나 국사로 활약한 승려들에게 대부분 나타나는 〈법화경〉적인 사고가 스님의 비명에 반영돼 있는 것은 흥미롭다. 곧 스님이 2~3살의 어린 나이라 아무것도 모를 때, 외조부의 집으로 가자고 울음을 그치지 아니하여, 그 어머니가 할 수 없이 집을 나섰는데, 바로 그 순간에 살던 집에 화재가 나서 전소되고 말았다는 일화이다. 〈법화경〉에 의탁한 전형적인 설화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결응 스님은 왕권과 호족지배층의 권력균형이 존재하던 고려 전기에, 초기부터 법화천태의 신앙과 사상을 통해 강력한 왕권을 추구하던 고려 왕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상계 화엄의 종취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던 종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스님의 비명과 행적은 현종 대 이후 고려 왕실과 화엄종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독특한 사례로 생각된다. 이러한 왕실과 화엄종 간의 묘한 관계는 당시 귀족세력을 배경으로 급격하게 성장하던 법상종의 대두와도 전혀 연관이 없는 사태는 아니었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센터 교수

경 봉 스님이야기 – 삼소굴의 향성⑮

선종사의 한 페이지 장식한 '삼소굴 소식'

선종사(禪宗史)에서 선사(禪師)들 또는 선사와 재가 수행자 사이에 깨달음에 대한 내용을 편지로 주고 받은 것은 많이 있어 왔다. 단순히 안부를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편지를 통해 법거량(法擧量)을 한 것이다. 원오극근(圓悟克勤; 1063~1135) 선사의 〈심요(心要)〉와 대혜종고(大慧宗杲; 1089~1163) 선사의 〈서장(書狀)〉 등은 서간문 형식으로 된 대표적인 법어집이다.

경봉 스님의 〈삼소굴 소식〉은 이러한 서간문 형식의 법어집으로 선종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다고 할 수 있다. 책의 첫 부분에 경허(鏡虛; 1849~1912) 선사가 장상사(張上舍) 거사와 김석두(金石頭) 거사에게 보낸 편지가 있다.

「유가 글에 이르기를 "군자는 자기 자신을 살펴봐서 만족을 느껴, 밖의 것을 기다리지 않음을 덕이라 한다"고 했으니 이 글은 평범한 이야기 같소. 그러나 불법을 배우는 이가 참고해 보건대 그 이치가 매우 긴요하고도 좋은 말입니다.

대개 생사와 열반, 범부와 성인, 선과 악 등의 일과 내지 참선, 주력, 기도, 염불 등의 수행이 밖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밖에도 시끄럽고 고요하다고 할 게 없는데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밖의 물질에 끄달림이 저 들판에 소나 염소와 같나니 하물며 생사와 재앙과 복을 따져 봄에 너무나 부자유스럽소.」

위와 같은 경허 스님의 말씀은 조사어록(祖師語錄)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내용으로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지 말라"는 고구정녕한 말씀인 것이다. 아마도 경봉 스님이 이런 편지를 간직하신 뜻도 좋은 지침으로 삼으시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조공(肇公)이 이르기를 "지극한 사람은 자기가 없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교리를 배우는 곳의 불필요한 말이나 도리어 맛이 있어서 지적했소.

그러므로 고덕이 이르되 "당체가 의지할 데가 없음을 비추어 다하면 온몸이 대도에 합한다"고 했고 또 이르되 "거울을 쳐부수면 그대와 더불어 서로 보리라"고 했으니 대저 한 점 영대(靈臺)가 탁 트이어 깨끗이 한 티끌도 없고 꿰맨 흔적도 없는 본래 경지에 이르리라.

그곳에 이르면 다시 지루하게 자기와 또 바깥 것에 장식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나 그 자유라는 두 글자는 또한 부질없는 말이외다.」

이 세상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모두 '나' 라는 생각 '나의 것' 이라는 집착,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해 내 생각대로 상대방을 맞추게 하려고 하는데서 기인한다. 언제든지 이것이 문제지만 자유로운 소통이 있을 때나, 한 생각 비우게 되면 모두 풀어지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

경허 스님이 김 거사와 장 거사에게 보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공부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고인이 이르기를 "지극히 이치를 연구함은 깨달음으로써 법칙을 삼으라"고 했으니 대저 불법을 배우는 이가 진실된 경지를 밟지 않고 문자와 분별지해(分別知解)로 따지니 이는 모두 업바람의 힘에 헤매는 것이라 마침내는 실패하고 마니 자기가 스스로 살림살이를 점검해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위 말씀은 마음공부는 진실하게 정성을 다해야 되고, 문자를 분별해 알았다고 하는 알음알이를 가져서는 안된다는 가르침인 것이다.

정도 스님(동국대 외래교수)

원영상의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 25 시종(時宗)의 조사 잇펜 상인(一遍上人) ㊦

서민과 하층민을 중시한 인물

처와 딸, 제자를 데리고 염불포교 유행(遊行)에 나선 잇펜은 나무아미타불이 쓰인 패를 사람들에게 전했다. 한 승려가 "신심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패를 받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번뇌가 일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36세 때,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극락정토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일컬어지던 와카야마현의 쿠마노(熊野) 신사에서 두문불출 정진했다.

백일 정진 중 중생의 정토왕생은 신(信)이나 불신(不信), 정(淨)이나 부정(不淨)에 관계없이 아미타불의 명호에 의해 정해진 것이므로 그 명호패를 나눠주라는 계시를 얻는다.

그는 나무아미타불 다음에 '결정왕생 육십만인(決定往生六十萬人)' 이라고 쓴 패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기 시작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십계의 사물은 모두 평등하며 명호의 체내의 덕으로 나타난 것이다. 모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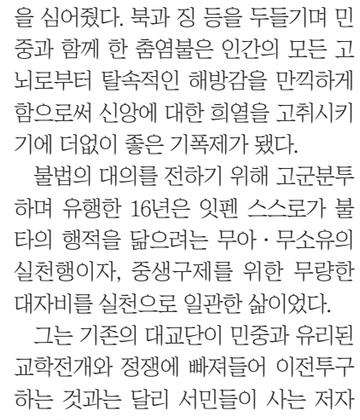
모든 것 아미타불에 맡기는
절대 타력신앙 확립하고
대중포교 위해 춤염불 개발

자력행과 집착을 버리면 절대불이의 세계를 증득할 수 있다. 이러한 행자야말로 사람 가운데 최상의 사람이며 진흙 속의 연꽃이다.'

여기에서 유래한 잇펜이 그의 방호(房號)가 됐다. 이렇게 모든 것을 아미타불에게 맡긴다는 절대 타력신앙이 확립된 이 시기를 교단에서는 개종의 해로 하고 있다.

1297년에는 나가노현을 방문해 쿠야(空也)의 전례를 따라 춤염불[踊念佛]을 개최했다. 이것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이후 잇펜이 방문한 곳에서는 반드시 춤염불이 행해지고 많은 서민들이 동참하기에 이르렀다. 대중포교를 위해 판을 연 춤염불은 예능으로 발전해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

51세로 임종하기 직전 그는 가지고 있는 서책들을 모두 불태워버렸다. 후에 제자들이 법문을 모아 〈반슈어록집(播州法語集)〉으로 정리했고, 일본 전역을 포교하기 위해 편력한 생애는 〈잇펜상인회전(一遍上人繪傳)〉과 〈유행상



〈잇펜상인회전(一遍上人繪傳)〉 제7권 춤염불의 모습, 국보

인연기회(遊行上人緣起繪)〉등에 그림과 글로 전해지고 있다.

호넨(法然)에 의해 일본에 확립된 아미타 신앙은 말세 중생을 위한 이행도(易行道)로서의 염불행이 핵심이었다. 이러한 정토신앙의 흐름 속에서 잇펜은 6자 명호 자체에 구제의 힘이 있다고 보고 오직 명호를 염하면 아미타불과 중생과 명호가 혼연일체가 된 그곳에 구원의 세계가 있다고 가르쳤다.

잇펜은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명호패를 나눠줬으며 특히 하층의 민중을 중시했다. 격의 없이 나눠준 명호패는 민중들에게 아미타불의 구원의 확신을 심어줬다. 북과 징 등을 두들기며 민중과 함께 한 춤염불은 인간의 모든 고뇌로부터 탈속적인 해방감을 만끽하게 함으로써 신앙에 대한 희열을 고취시키기에 더없이 좋은 기폭제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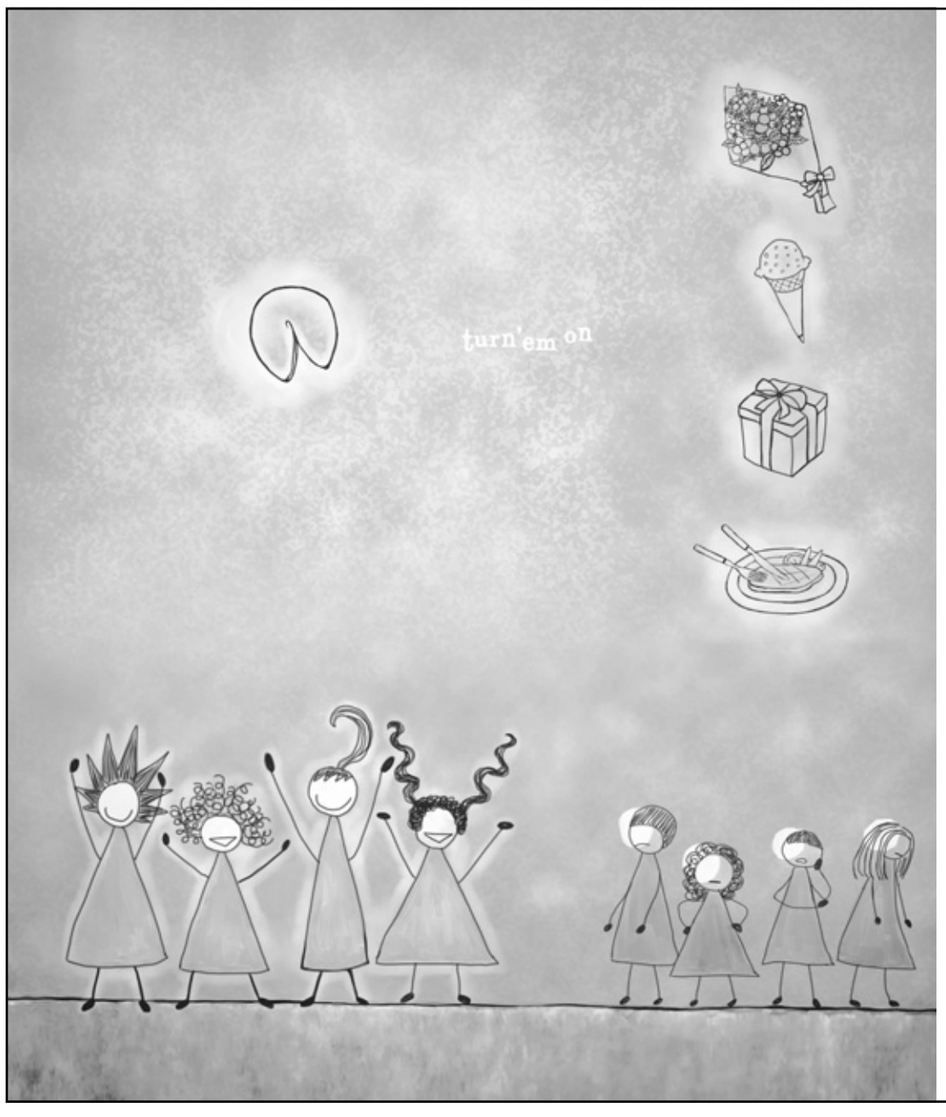
불법의 대의를 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유행한 16년은 잇펜 스스로가 불타의 행적을 닮으려는 무아 · 무소유의 실천행이자, 중생구제를 위한 무량한 대자비를 실천으로 일관한 삶이었다.

그는 기존의 대교단이 민중과 유리된 교학전개와 정쟁에 빠져들어 이전투구하는 것과는 달리 서민들이 사는 저자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다.

잇펜은 교단을 조직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의 사후에 자연스럽게 해산된 집단을 그의 제자 타아(他阿)가 재편성했다. 현재는 나무아미타불 6자의 명호를 본존으로 하고 있으며, 4대 돈카이(呑海)에 의해 1325년 개산한 쇼죠코지(淸淨光寺)를 본산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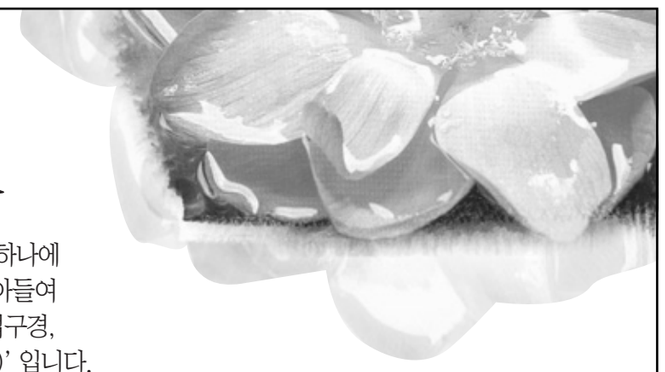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What is Buddha Cookie!!

법法과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 (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식과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 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법과 이벤트 (Event)

'법과(法果)' 속 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 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 를 활용하여 시작되는 사찰 홍보 · 이벤트는 다른 어떤 유형들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약속합니다.



법과 활용 (Use)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2,000여개의 곳이 포춘쿠키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션,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미디어로서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청으로부터 검사, 통과 된 안심 먹거리 입니다.



※ 500개 이상 부터 주문 가능하며 원하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법과 문의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EL 02)2004-821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선과 교의 가르침 활짝 피니 두륜산이 극락일세

대흥사

마음과 말씀은 둘이 아니다

새벽 5시.

부부는 해남 대흥사 일주문 옆에 도착했다.

최근에 새로 세운 듯 산뜻한 일주문 앞쪽에는 '두륜산대흥사(頭輪山大興寺)'라는 현판이 걸렸고 뒤쪽에는 '선림교해만화도량(禪林教海滿華道場)'이란 현판이 걸려 있다.

"언제 들으니까 이 절 이름이 대둔사(大芚寺)라고 했던 것 같은데?"

"원래 이름이 대둔사였다가 대흥사로 바뀌었어. 근래 다시 대둔사란 옛 이름으로 부르다가 최근엔 다시 대흥사로 부르고 있어. 산 이름이 대둔산이었다가 두륜산으로 바뀐 것에 따라 그렇게 된 것 같아."

"뒤의 현판은 무슨 뜻일까?"

선림교해만화도량. 대흥사는 선과 교학 분야에서 큰스님들을 많이 배출한 곳이다. 선림은 참선도량이란 뜻이고 교해는 가르침의 바다 즉, 교학도량이란 뜻이니까, 선교가 함께 활짝 핀 도량이란 점을 일주문에 현판을 걸어 강하게 어필하는 것이다.

"아침부터 머리가 깨지겠군. 이렇게 날것을 채워 넣으려니…."

대흥사의 가치가 만만치 않다는 사실은 부도밭 옆에서 바로 입증됐다. 부도밭 오른쪽에 길쭉한 돌기둥 하나가 서 있었고 '십삼대강사도량(十三大講師道場)'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13명의 대강사가 배출된 도량이란 표시가 있네요. 강사는 경전을 가르치는 스님이란 뜻이거든. 교수님 말이야."

"그럼 대선사가 배출된 도량이라는 표시도 있어야지."

"글쎄, 이 근처엔 없는 것 같은데 있으면 만나게 되겠지. 여보님, 부도밭에 들어가 볼까?"

장방형의 낮은 돌담 안은 정갈하게 도열한 부도와 탑비들로 가득했다. 중앙의 작은 문에는 '진화문(眞化門)'이란 현판이 달려 있다. 좌우에 안내판이 서 있는데, 오른쪽의 '대흥사 서산대사부도 보물 제1347호'라는 글자가 나팔수 씨의 눈을 확 잡아 당겼다.

"서산 대사! 그 유명한 서산 대사님의 부도가 여기 있다는 거야?"

"대흥사는 서산 대사의 유품과 정신이 간직돼 전해지는 곳이야. 대흥사 안에 서산 대사를 기리는 사당도 있고 박물관에는 여러 유품들도 있다고 하니까 오늘 다 볼 수 있을 거야."



대흥사 부도밭

대흥사는 원래부터 이렇게 큰 절이 아니었다. 조선 중기 서산 대사가 이곳에 유품을 보관하라고 유언하면서 주목받았고, 후계자들이 오랜 세월 절을 확장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절 이름이 그때부터 크게 흥하게 됐다는 의미로 대둔사에서 대흥사로 바뀐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럴 듯한 말이다.

"부도밭 정말 멋있다."

대흥사 부도밭은 사찰 답사자들이나 사진작가들에게 손꼽히는 '명당'이다. 그윽한 숲속에 위치해 있고 고만고만한 키의 부도와 탑비들이 조밀하게 들어차 있을 뿐 아니라 서산 대사와 초의 선사 같은 유명한 스님의 부도와 탑비가 있기 때문이다. 부도들의 모양새도 화려하고 웅장하기보다는 단출하고 소박하다. 귀부라고 부르는 받침돌도 자연석을 아주 투박하게 다듬거나 그대로 사용해 무소유의 승가정신을 드러내고 있다.

부부는 부도밭을 지나 절로 향했다. 곧바로 다리가 나왔다. 반야교였다. 대흥사 초입에서 대웅전에 이르는 길은 굽이굽이 계곡을 건너게 돼있다. 아홉 굽이를 돌아 아홉 개의 다리를 건너 대웅전 앞에 이른다. 반야교는 여덟 번째 다리다.

"저기 있다."

반야교를 건너 20m쯤 가다가 나팔수씨가 오른쪽 바위 위에 우뚝 서 있는 돌기둥을 발견했다. '십삼대종사도량(十三大宗師道場)'이라고 적혀 있었다. 과연 대흥사는 서산 대사 종통의 소귀처로 지목되는 곳이다. 가사·발우 모시고 번성

연 대흥사는 서산 대사 이후 13명의 대강사와 대종사를 배출한 선교불이(禪敎不二)의 명문도량임을 두 개의 돌기둥이 당당하게 외치고 있었다.

서산 대사는 임진왜란을 맞아 승병을 이끄는 선봉장이었지만 사실 당대를 대표하는 고승이었다. 특히 선과 교를 둘로 나누는 선교양종을 통합해 단일불교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은 이미 고려시대 보조지눌 국사로부터 이어져왔다. 서산 대사가 자신이 지은 〈선가귀감〉에서 "선은 부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의 말씀이다"라고 한 것은 그의 마음을 드러내는 중요한 말씀이다. 그러한 고승이 묘향산 원적암에서 입적하면서 "나의 의발(衣鉢)을 두륜산에 두라"고 유언했다.

북쪽 끝의 절에서 남쪽 끝의 절을 지목한 이유는 두륜산의 자연조건과 지리적 여건을 볼 때 충분히 '종통(宗統)의 소귀처(所歸處)'가 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라고 한다. 종통의 소귀처란 불교의 법통이 의지할 수 있는 곳, 다시 말해 불교가 면면히 이어져 갈 곳이란 뜻이다.

서산 대사의 유언에 따라 제자들은 스승의 금란사가와 발우를 대흥사에 모셨고 그 뒤로 선과 교를 가리지 않고 훌륭한 법손들이 배출됐다. 그 대표적 강사와 선사가 각각 13명이다.



대흥사 내경. 대흥사는 선과 교학 분야에서 많은 스님을 배출했다.

법의 공간에 흐르는 시간을 만지다

절 마당에 이정표가 있었다. 왼쪽은 대웅보전과 백설당, 응진전으로 가는 길이고 오른쪽은 동국선원 성보박물관 천불전 표충사로 가는 길이다. 부부는 왼쪽 길을 따라 대웅보전으로 향했다. 다시 계곡을 건넜는데 계곡의 이름이 금당천이다. 다리는 심진교(尋眞橋), 큰 다리는 아니지만 진리를 찾아가는 다리다. 다리 끝에 서 있는 누각, 침계루(枕溪樓)라는 현판글씨가 현란하다.

"계곡을 베고 잠든다는 뜻인가? 글씨가 비몽사몽간에 쓴 것 같아."

대웅보전은 방금 일어나 세수를 하고 서 있는 것 같이 화사했다. 100여 년 전 장대석으로 쌓은 석축 위에 덩그러니 지어진 대웅전을 가운데 돌계단으로 올라갔다. 정면 중앙에 두 줄로 쓴 대웅보전이란 현판 좌우로 용두가 두 마리씩 튀어 나와 있었다.

현판 글씨는 조선 후기 영조 때 양명학자이자 서예가로 이름 높았던 원교(圓嶠) 이광사(李匡師)의 솜씨다. 그의 글씨는 상당한 수준이었는데 당시에는 추사에게 밀려 그다지 빛을 못 봤다고 전한다.

대흥사는 시간을 초월한 서예전시장이다. 추사(秋史)의 무량수각(无量壽閣), 이광사(李匡師)의 침계루(枕溪樓)와 대웅보전(大雄寶殿), 이삼만(李三晩)의 현판 글씨들 '보물급' 대강사와 종사 13명씩 배출

가허루(駕虛樓), 해사(海士) 김성근(金聲根)의 두륜산대둔사(대흥사), 김돈희(金敦熙)의 용화당(龍華堂), 강암(剛菴) 송성용(宋成庸)의 일주문(一柱門)등의 현판(懸板) 또한 돋보인다. 거기에 정조의 어필인 표충사(表忠祠)와 추사의 제자 신관호(申觀浩)의 '어서각(御書閣)'까지.

천불 속의 나, 나 속의 천불 찾기

가허루(駕虛樓).

허공을 가마 삼아 탄다는 말인가? 허공이란 실체가 없는 것이니 허공을 탄다는 것은 타는 사람도 없다는 뜻일까? 가마도 허공도 사람도 없는 것, 누각의 이름이 공(空)의 실상을 말하려는 것이라면 누각은 무엇 하려고 지었단 말인가?

지혜장이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 나팔수씨는 천불전 앞마당에 당도했다. 앞의 천불전, 뒤의 가허루 그리고 오른쪽의 용화당과 왼쪽의 봉향각. 그렇게 사방이 건물로 짜인 마당에 서서 천불전을 바라보고 있었다.

"천불전을 조성한 이유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천의 부처님이 계신다는 의미에서 출발해. 어느 때 어느 곳에나 부처님이 계신다는 거야. 1000이란 숫자는 많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지. 그러니까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부처님이 두루 계시는 곳이 우리 중생계라는 믿음, 그 천불에 여보님도 나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이 천분 가운데 나와 마눌님이 있다는 거야?"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천불 속의 나와 나 속의 천불 찾기, 그것이 정진하는 삶이겠지요?"

천불전이나 삼천불전에 들어섰을 때 제일 처음 눈이 마주친 부처님이 자기의 부처님이라는 설이 있다.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는 순간 새벽하늘의 샛별과 눈을 맞춘 것처럼 그렇게 밝게 다가오는 부처님과의 눈 맞춤이라면 오묘한 인연이 아닐 수 없다.

천불전을 나와 왼쪽으로 길을 잡으니 작은 연못이 나왔다. 무염지(無染池)다. 초의 스님이 조성했다는 연못에는 노랑어리연꽃이 만발해 있었다. 연못 앞의 동다실(東茶室)은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지만 이른 아침이라 문을 열지 않았다. 무염지 뒤쪽이 서산 대사 유물전시관인데, 시멘트 건물을 허물고 새롭게 성보박물관을 건립 중이었다. 옆에는 초의 스님이 긴 지팡이를 어깨에 걸치고 앉아 있는 모습의 조형물이 있었다.



글=임연태(시인 본지논설위원) 사진=이승현(시인 사진작가)

LEADER

국제 승려 具足戒 금강계단 제2회 비구, 비구니계 수계 대법회

– 국 제 포 교 사(승려, 재가법사) 품수식 –

출가승이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중생교화 ,인간방생의 사명아래
승가의 본분을 이루고자 봉사와 헌신의 땀을 흘려 보지만 나 자신도 모르게
세속에 물들고 환경에 오염되어 흐트러진 자신의 모습에 때로는 포살과
참회의 기도로 더더욱 정진하곤 합니다만, 왠지 부족함을 늘 느끼곤 합니다.

국제불교지도자협회에서는 300여 종단을 불문 어느 종단의 스님이든
모두가 출가 법납이 10년, 20년, 30년이라도 새롭게 출가승으로 거듭나 초발심에
행자승의 마음으로 되돌아 새롭게 발심하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겠다는 큰 뜻, 큰 마음으로
미얀마 연방 공화국 종교성의 후원과 미얀마 연방 승가회
원로회의 자문과 도움을 받아 具足戒를 주실 三師 七證 大元老 큰스님들을
모시고 상좌부 불교 승려로 거듭나는 남방불교 비구, 비구니 수계를
50분의 큰스님들과 5백여 스님들의 독경에 맞추어 봉행하는 장엄하고
여법한 야단 법석, 국제 금강 계단을 마련했습니다.

연방 승가회 계첩(戒牒) 수여

■ 일 시 : 8월 18일. 수계의식 6박 7일
■ 장 소 : 미얀마 양곤 연방 승가회 원로원 (종교성내)
■ 참가신청 : 서울 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층
한국주재 미얀마 문화원 02) 733-5670. 5665
이력서 1통, 승려증 사본1통, 사진3매, 여권을 우편으로 우송.

* 법종단 차원으로 어느 종단, 어느 스님이든
모든 스님 누구나 다 동참할 수 있습니다.

주 최 :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한국주재미얀마문화원
후 원 : 미얀마연방공화국 종교성, 미얀마 연방 승가회

“잘못된 길 바로 잡는 것이 깨달음이자 불자 역할”

〈깨달음〉 남양주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



깨달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열반은 무엇인가?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불자들은 어떻게 나서야 하는가?

한국선학회(회장 송묵)는 7월 9~10일 남양주 봉선사(주지 인묵)에서 하계워크샵을 개최했다. 광동고등학교 학생 80여 명과 지도법사, 교수진 등 100여 명이 참가한 이날 워크샵에서는 봉선사 회주 월운 스님이 ‘깨달음’,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 스님이 ‘열반’에 대해 각각 법문했다. 이날 법문과 워크샵의 이모저모를 살펴봤다.

깨달음은 행동이다

월운 스님은 9일 깨달음에 대해 자리이타를 기반으로 한 정인정과의 행동이라고 법문했다. 다음은 스님의 법문 내용이다.

깨달음을 위한 삶은 없습니다. 깨닫고 나면 세상은 할 것이 없습니다. 재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부처님을 이야기 할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석가모니는 ‘석가족 출신의 성자’라는 뜻으로 석가는 산스크리트어로 샤카입니다. 이를 번역해 보면 능할 능(能)에 어질 인(仁)으로 ‘매우 어진 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유래는 어디서 나왔느냐. 5000년도 넘습니다.

오랜 옛날 중부인도의 한 왕국에는 왕자 4형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고타마 족이었습니다. 고타마는 당시 주식인 감자를 이르는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새로 온 왕비인 계모가 있었는데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왕자 4형제는 어머니와 매번 부딪힐 수 없어 새벽에 도망을 갑니다. 이들이 도망친 곳이 지금의 카필라 지역입니다. 이들 4형제는 이 땅을 개척하고 왕국을 세웠습니다.

이들의 아버지 왕은 왕국을 떠난 아들들의 소식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떠도는 대상들을 통해 아들들의 동향을 물었습니다.

대상들은 카필라 지역에서 이 왕자들의 소식을 접합니다. 이 왕국의 지도자들은 남쪽에서 올라온 고타마 족이다. 오며가며 들은 소식이 중부인도에서 온 왕손들인데 어머니와 마찰이 있어 아버지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대상들은 왕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들들이 천하를 개발해서 잘 다스리고 있다’

아버지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우리말로 현묘한지고!, 당시 샥카!라고 말했습니다. 아들들이 열심히 살아 성공을 하고 교화를 잘하니 매우 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4형제 분파의 성이 고타마 중에 샥가파가 된 것입니다.

깨달음을 얘기하는 중에 먼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자리에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나 어른이나 불자로 자부한다면 조상의 이름자를 알 듯 부처님의 명호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알아야 겠지요.

이런 것을 보면 불교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어머니가 죽고 온 계모가 자기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모와 싸워야 합니까. 아니면 순순히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현재 불교 물러빠졌다

오늘날 불교는 너무 물러빠졌습니다. 참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압니다. 더 이상 참고 견뎌봐야 계모의 살인 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서 불교의 진면목이 나옵니다. 불교는 남을 이롭게 함과 동시에 나를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왕자들이 길을 떠나 새 왕국을 개척해 현묘한 석가족의 시조가 됐듯 불교의 기본철학은 상대방을 정도로 이끌면서 피해를 주지 않는 현명한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명한 판단 아래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지적을 해야 하고 주먹을 내두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자리에 집에서 놀았으면 좋겠다는 유혹을 버리고 올바른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 왔습니다.

깨달음까지의 수행이 중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교에서는 신혜행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먼저 신(信)은 부처님 말씀에 공감하고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을 목표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속에 있습니다.

혜(慧)는 무조건 이런 믿음에 따르는 것이 아닌 지혜를 발휘해 마음 속의 진리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불교는 고쳐야 할 것을 아직까지도 답습하고 있습니다. ‘시주만 많이하면 돼’, ‘절만 많이하면 돼’ 그중 ‘몰라도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가끔 선방에서 수좌들이 하는데 아닙니다.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고 마구하면 미신입니다. 그럼 무엇을 알아야 하냐.

정인 정과를 알아야 합니다. 원인을 심는 곳에 열매를 맺는다. 원인을 심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 나쁜 씨를 심지 않으면 나쁜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문을 들으면 무엇이 남습니까. 부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핸들, 브레이크, 가속페달이 잘 듣느냐를 점검하는 것처럼 나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는 것이 깨닫기 전에 필요한 수행입니다.

행(行)은 이를 세상에 발휘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정인 · 정과 내 언동이 옳아야 합니다. 행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맞아 죽어도 아닌 것은 NO라고 해야 합니다. 똑바로 아닌 것을 방향잡는 것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행입니다.

용기 있어야 불자
아닌 것은 ‘NO’라고 해라
꾸준한 정진으로 나를 바꿔야

불법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신나고 즐겁게 놀더라도 나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포교에 역할을 해달라고 해 교도소와 군부대에 많이 다녔습니다. 특히 교도소에는 장기 복역수와 특별면담이 있습니다. 극악수 사형수와 면담을 하는데 ‘어저다 이런 처지에 놓였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답은 똑같습니다. ‘술 때문에 이렇게 됐다’, ‘친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집안 환경상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술 마실 때 친구가 협박을 했습니까, 강제로 입을 벌리고 술을 부었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받아서 마신 것입니까. 일을 저지른 것이 어떻게 친구 잘못입니까. 지금이라도 아무도 원망하지 말고 남을 탓하지 마십시오.”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나입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엮느냐가 내일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불법은 요란스럽게 많이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관리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때 궁극적으로 나와 남을 이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훈련을 잘 소화해 집에 돌아가도록 하십시오.

정리=노덕현 기자

“간화선 보급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인터뷰 | **한국선학회장 송묵 스님**



한국선학회장 송묵 스님(사진)은 이번 하계 워크샵을 계기로 간화선 보급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청소년은 미래불교를 이끌고 나갈 주인공들입니다. 이들에게 한국의 불교문화, 특히 선문화를 알리는 것이 바로 선 중흥의 첫걸음입니다.”

간화선의 위기로 평가 되는 한국불교. 각 사찰과 시민선방에서는 화두를 들고 정진하고 있는 수많은 출 · 재가 납자들을 볼 수 있다. 위기로 평가받는 데에는 그 무엇보다 청소년 불자들이 선문화를 멀리한다는데 있다.

법회와 각 불교동아리에서 경전 공부를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참선 수행, 특히 화두 참구는 학교 동아리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다.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회장을 지내기도 한 송묵 스님은 이날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하며 학생들이 보다 쉽게 선을 알수 있도록 노력했다.

“참선을 생활화하는 등 노력이 필요합니다. 종립학교에서 방학기간 수행 템플스테이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불교의 미래를 밝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스님은 “방학기간 진행되는 작은 체험이지만 자라나는 학생들이 불교를 접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불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문화관광부 허가 제2010-9호]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 입종안내 ◈

1) 입종 구비서류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 010-3565-2462, 070-4187-4747
☎ 055)364-4747 / FAX : 055)364-4849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범음범패 교육대학 9기생 모집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청봉 석정산
명예종정 명진 석법운

(종정실사서 : 석윤오, 박선혜화) (예경실장 : 석법진)

원로회회장 석홍섭
원로부회장 석무공
원로부회장 석만월
승정원장 석원정
종회의장 석법일
기획원장 석법상
호계원장 석월오
감사원장 석동원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총무부장 석능현
교무부장 석성오
재무부장 석도현
행사부장 석명오
의전부장 석근홍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호법부장 석대연

감찰원
감찰원장 석다우
감찰부장 석법진

문화원
문화원장 석지명
문화부장 석혜주

사정원
사정원장 석현종
사정부장 석지혜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운
포교부장 석혜통

교육원
교육원장 석무겸
부 원 장 석운오
부 원 장 석대명
부 원 장 석법오
1 국 장 석대덕
2 국 장 석해인

교구종무원
부산종무원장 석정은
김해종무원장 석청해
거제종무원장 석덕운
대구종무원장 석청명
창원종무원장 석범일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비구니원
원로회장 석효각
원 장 석청명
부 원 장 석광명
석정은 석능현 석도현
석혜안 석혜문 석수진
석수해 석해인 석지현
석효선 석해연

중앙위원회
중앙행정위원장 차정호
중앙운영위원장 손연자(대심행)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중앙정책위원장 박만석
중앙문화위원장 박무근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종립예술위원장 조영선(무혜심)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 유사 대원불교조계종이 “진주”에 있사오니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부처될 수 있지만 아무나 부처는 못된다”

〈열반〉 남양주 봉선사 회주 밀운 스님(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불자라면 불자같이 살아야

밀운 스님은 7월 10일 법석에서 열반에 대해 모두에게 있지만 그 행동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설했다.

다음은 밀운 스님의 법문 전문이다.

열반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열반이 무엇이냐. 부처님이 왕자의 직위를 버리고 출가한 이유가 사실은 열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생로병사를 타파하기 위해 출가하셨는데 생로병사를 여의는 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부처님은 생로병사 없이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출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당신은 왕실에서 편안히 호의호식했지만 밖에는 늙고 병들어 죽는 사람 등 가지각색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 “아! 늙어 병들어 죽는 것은 파도와 같고, 꿈과 같구나. 영원한 것은 아니구나.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열반이다” 바로 이것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열반은 한세상 살다 돌아가시면 열반이라 합니다. 보통 선현이 돌아가면 열반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말로 치면 귀신은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열반의 인도말인 니르바나는 그런 것입니다. 몸은 없어졌지만 혼은 보이지 않는데 있고 그 것만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반만 영원히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육신의 본원체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몰랐습니다. 화장을 하면 타 없어지지 영혼이 된다고는 얘기 안합니다. 부처님은 그 것까지 아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혼, 즉 자성과 마음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 당시에 부처님의 모든 경계 중 색경계는 없어지지만 그 것의 혼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중생계는 그런 것 같다고 하는데 그 외 생명체에는 열반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유정 무정 모두 열반해

지금 밖에 초목이 우거져 있는데 이 초목은 열반에 듭니까 안듭니까? 우리는 하찮아 보이면 열반에 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들도 열반에 든다고 했습니다. 모양만 다르지 그 본원체는 같다고 하셨습니다.

〈반야심경〉에는 색과 공이 다르지 않고 공과 색이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유정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장자를 보십시오. 죽은 나무입니다. 누가 봐도 생명이 없어요. 부처님께서는 같다고 하셨습니다. 허공에는 형상이 없습니다 만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 우리 모두의 성품은 모두 부처
> 행동이 짐승과 부처 다르게 해
> 열반 위해서는 부처같이 살아야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중생에게 가르치려고 45년간 설법한 것입니다. 열반 하나 가르쳐 주려고 45년간 설법하신 것입니다. 열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열반이지 근원이 없습니다.

이 우주 내에 세상 내에 모든 이름은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본래 이름이 있습니까. 본래 없습니다.

열반도 허공같이 없는데 한세상 살다 돌아가시는 것을 불러 살아생전은 마음이라 하고 돌아가신 후에 열반이라 하는 것입니다. 열반을 우리말로는 혼이라고 하고 귀신이라고 하고, 중국말로는 환귀본처한다. 제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는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은 것입니다.

그럼 열반은 얼마나 우주 내에 있느냐. 끝이 없습니다. 이 우주가 생길 적에 내가 생겼고 나라는 것이 없어질 때 우주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과학적으로 입증 됐습니다. 오온,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는 흩어졌다 뭉쳐서 이 세계를 구성합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색이 색이 아니고 공이 공이 아닌 것입니다. 부처님은 오래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천은 어디 있느냐. 그것만 알면 세상만사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싶어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열반 위해 부처같이 살아야

여러분도 모습은 변합니다. 100년 안에 썩고 타서 없어집니다. 하지만 그 근원은 1분이라도 썩지도 않고 타서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부처님은 시방세계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우주 생길 때 같이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수천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을 왜 부처님이라 할까요. 그 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너도 부처 나도 부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깨닫고 열반이 먼지 알아야 너도 부처 나도 부처입니다. 너도 부처 나도 부처는 그 전 성품이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술을 거나하게 먹고 비틀거리며 가다가 전봇대에 오줌을 싸고 자면 개라고 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행동과 때에 따라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부처님답게 살아야 부처님입니다. 본성은 같지만 행동은 다릅니다. 스님은 스님답게 행동해야 스님입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행동해야 사람입니다.

이 우주 내에 8만 4000개의 원소가 있는데 이것들이 뭉쳐졌다 헤쳐졌다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만 모든 것이 수없는 세월 속에 뭉쳤다 헤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적이며 아등바등 살 필요도 없습니다. 느긋이 살면 되는 것입니다.

정리=노덕현 기자

한국선학회의 이색 하계 워크샵

한국선학회의 이번 워크샵은 여느 학회 · 학술단체의 워크샵과 달리 청소년들이 참가한 선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여한 학생들은 8정도에 맞춘 8개 팀으로 나눠져 참선 수행과 숲길 명상, 108배, 발우 공양 등 템플스테이 일정과 함께 간화선 화두 참구 등을 습의했다. 특히 팀별 레크리에이션 형식으로 진행된 교육 일정은 딱딱한 형식을 탈피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프로그램에서는 절하는 법을 시작으로 불교기본예절을 비롯해 교종 본찰로서 교육사업에 가장 먼저 진출한 봉선사의 역사, 광동학교와 봉선사의 인연, 불교인재불사의 중요성 등 설명이 이어졌다.

주진영 학생은 “방학을 맞아 봉선사에서 친구들과 함께 팀을 이뤄 여러 가지 체험과 놀이를 즐겨서 좋았다”고 말했다.

광동고 위효승 지도교사는 “학교 측에서 자발적으로 선 수행에 참가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모집해 왔다”며 “학업 병행으로 받는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풀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경전사경



1호 반야심경(한문) 2호 금강경(한문) 3호 반야심경(한글) 4호 금강경(한글)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 가 5,000원(1권)

- 내 지 : 70장 자연색메트지
- 제 본 : 한장본 실제본
- 표 지 : 레자크지 옵셋 4°
- 크 기 : 220㎜×310㎜



11호~17호 법화경(한문)1~7
할인가 4,200원(50권 이상)
정 가 6,000원(1권)

19호~25호 법화경(한글)1~7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 가 5,000원(1권)



신묘장구대다리 / 츰부다라니
할인가 150원(500장 이상)
정 가 200원

- 구 성 : 한지낱장
- 크 기 : 636㎜×313㎜

※여러종류의 사경책 · 사경지가 있으니 전화문의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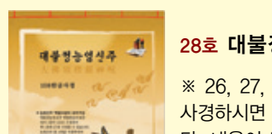
한지백팔사경 5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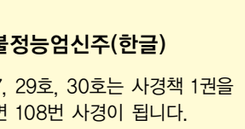
26호 신묘장구대다라니(한글)



27호 반야심경(한문)



29호 츰부다라니(한글)



30호 반야심경(한글)



28호 대불정능엄신주(한글)

※ 26, 27, 29호, 30호는 사경책 1권을 사경하시면 108번 사경이 됩니다.
단, 내용이 많은 28호 능엄신주사경책은 4장 1조로 구성되어 책 1권에 27회 사경할 수 있으므로 총 4권을 사경하셔야 108번 사경이 됩니다.

할인가 14,000원(10권 이상) 정 가 20,000원(1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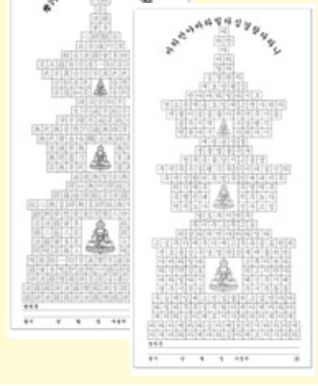
- 내 지 : 한지 108장
- 제 본 : 한장본 실제본
- 표 지 : 레자크지 옵셋 4°
- 크 기 : 435㎜×300㎜

사경지

반야심경 탑사경
할인가 150원(500장 이상)
정 가 200원

- 구 성 : 한지낱장
- 크 기 : 636㎜×313㎜
- 종 류 : 한문,한글





동진기획 상호는 출판사등록 제11-67호입니다. 붓다쇼핑 사이트에서 회사소개를 클릭하시면 출판사등록증, 인쇄소등록증, 통신판매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종이영가옷 (남자 / 여자 / 동남 / 동녀 / 수자)



할인가 1,200 (100벌 이상)

A형-남 정가 1,500원 A형-여



할인가 1,000 (100벌 이상)

B형-남 정가 1,300원 B형-여



할인가 950 (100벌 이상)

C형-남 정가 1,200원



할인가 900 (100벌 이상)

D형-여 정가 1,100원



할인가 800 (100벌 이상)

동남 정가 1,000원 동녀



할인가 700 (100벌 이상)

수자영가옷 정가 900원



할인가 50,000 (50개 이상)

예수재함A (50개 1박스)



할인가 800 (200개 이상)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금강경탑다라니 정가 250원
할인가 180원(600개 이상)
• 크기 : 53×180cm



한지접은 영가옷/위패
각100개 30,000원
• 남자옷 / 여자옷 / 위패



종이신발(남/여) 종이짚신 1켤레
할인가 1,300원 (100켤레 이상)
정 가 1,600원



금강반야바라밀경(우리말)
할인가 1,800원 (100권 이상)
정 가 3,000원 (102페이지)



금강경 독송용
할인가 2,400원 (50권 이상)
정 가 4,000원 (144페이지)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515-88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농협:121068-56-042256 ◆우체국:612416-02-031008 [예금주:강태규]

나는 연(蓮)을 사랑하나니… 연밭에 가리라

2011년 전국 연꽃축제 정보

연은 진흙 속에서 자라면서도 청결하고 깨끗한 꽃을 피워 예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 왔다.

송나라 유학자 주돈은 연꽃을 보면서 "나는 연을 사랑하나니 연꽃은 진흙속에서 났지만 더러움에 물들이지 않고 맑은 물결에 씻기어도 요염하지 않으며 속이 비고 밖이 곧으며 덩굴지지 않고 가지도 없다. 향기는 멀리 갈수록 맑으며 우뚝 서있는 모습은 멀리서 보아야 참 맛을 느끼게 하니 연은 꽃 가운데 군자이다"고 말했다. 또한 연은 수질 정화 효과가 있는데다 연밥 · 연잎차 · 연국수 등 가공품으로도 생산이 가능해 새로운 소득 작물로 각광받고 있다. 장맛비와 무더위가 교차하는 요즘, 은은한 연꽃향기로 더위를 잊어보자.

정리=이나은 기자



2008년 부여 서동 · 연꽃 축제에서 관람객들이 연꽃을 구경하고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2011 무안백련 문화마당

△ 기간: 2011년 7월 15일~8월 13일
△ 장소: 전남 무안읍 회산백련지 및 일로읍
△ 주요행사
- 2011 일로품바 페스티벌 : 7월 15~17일
- 무안 백련 토요 문화마당 : 7월 23 · 30일, 8월 6 · 13일
- 무안 백련 홍보 판매관 운영
△ 문의: (061)450-5473

품바의 발상지이자 초의 선사의 탄생지인 전남 무안군에서 '2011 무안 백련 문화마당'이 열린다.

전남 무안군은 백련 개화기가 동안 백련의 아름다움과 걸쭉한 남도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일로품바 페스티벌' '무안 백련 토요 문화마당' 등을 연다.

또 하얀 연꽃이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한 달 동안 가족 · 연인과 함께 백련지의 물길을 헤치며 백련을 감상하는 신비의 연꽃길 보트탐사, 세계의 다양한 연들을 만나는 세계의 연 전시회, 다양한 수생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수생식물 생태체험장, 무안분청 빛기, 연차시음, 연염색 등 이색 체험이 마련된다.

'무안 백련 토요 문화마당'은 매주 토요일 오후와 밤에 10만여 평 동양최대의 백련자생지에서 백련의 아름다움과 영산강변의 여름향기를 느낄 수 있는 품바명인 초청공연, 한 여름밤의 음악회, 전국 연요리 경연대회 등 다양한 문화공연이 펼쳐진다.

봉선사 연꽃 축제

△ 기간: 2011년 7월 22~23일
△ 장소: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봉선사
△ 주요행사
- 공연행사: 시민노래자랑(22일 오후 4시), 개막식(22일 오후 7시), 산사음악회(23일 오후 7시)
- 체험행사: 전통놀이마당, 사진전, 무료 차 시음회, 먹거리장터, 단청채색 체험, 허브 체험
△ 문의: (031)527-1951

전통음악, 사찰문화, 연대예술을 만끽할 수 있는 연꽃 축제가 열린다.

봉선사는 7월 22~23일 봉선사 경내와 연밭 바로 옆인 승과평터에서 '2011 봉선사 연꽃축제'를 연다.

22일에는 시민노래자랑 '나도 가수다'를 개최해 참가자들에게 시상을 한다. 이후 개막식과 국악한마당을 열어 범패시연, 시나위, 장고춤 등 전통음악 공연을 펼칠 계획이다.

23일 오후 7시 40분에는 산사음악회 '절로 가는 마음 이심전심콘서트'를 열어 초대가수들의 콘서트를 진행한다. 김창완밴드, 장기하와 얼굴들 외 다수의 유명가수들이 출연할 예정이다.

사찰문화가 어우러진 부대행사들도 마련됐다. 그네, 널뛰기 등 전통놀이 마당을 비롯해 연꽃 사진전, 무료 연잎차 시음회, 컵등만들기 체험, 만다라그리기 체험 등이 준비됐다.

부여 서동 · 연꽃 축제

△ 기간: 2011년 7월 21~24일
△ 장소: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서동공원 일원
△ 주요행사
- 축제 · 공연행사: 제3회 서동공원 야외 그림 축제(22일), 연꽃 사생대회(23일), 천안 국악관현악단 초청공연(22일), 퓨전국악공연(22일), 가무악극 '서동의 노래'(23일), 연꽃 전국 사진촬영대회(24일), 연꽃 시 낭송회
- 체험행사: 연꽃페이스페인팅, 종이연꽃그리기, 부채연꽃그리기, 연꽃스텐실, 연잎차 마시기, 목간연꽃 그리기, 내가 서동왕자 선화공주, 백제기악 미마지 탈만들기, 연꽃탁본체험, 백제민속놀이, 연꽃토기 만들기, 연꽃사진전
△ 문의: (041)830-2921~2

삼국유사의 서동탄생설화가 있는 곳인 충남 부여 궁남지에서 대표축제 '부여서동 · 연꽃축제'가 열린다. 이곳은 매년 6월부터 9월말까지 백련, 홍련, 황금련, 수련, 가시연, 물양귀비, 열대수련 등 다양한 연꽃이 39만 6700여㎡ 되는 저수지에 펴 장관을 이룬다.

국내 관광객은 물론 일본, 중국 등 외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곳에서 습지와 야생화 동산에 있는 원추리, 부용화, 구절초, 금계국, 초롱화 등 20여종의 야생화와 물채송화, 택사 등 50여종의 수생식물을 관람할 수 있다.

'사랑과 낭만'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축제는 낮에는 다양한 연꽃 행사와 저녁에는 문화 · 예술공연으로 준비됐다.

축제장 한편에는 연꽃의 아름다운 사진을 전시해 관람객이 직접 연꽃을 그리는 야외그림 축제, 축하공연, 서동과 선화공주의 포룡정 나들이 등 이벤트가 준비됐다.

연꽃 사이로 8㎞의 산책로를 조성해 다양한 연꽃을 가까이서 볼 수 있게 했으며 다양한 수생식물과 물새 · 곤충 등 수서생물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공연으로는 '서동의 노래'가 마련됐다. '서동요'를 창극화한 가무악극은 서로의 국적과 신분이 달라 맺어질 수 없음에도 사랑할 수 밖에 없던 남녀의 애틋한 사랑이야기를 보여준다.

호수공원 연꽃 축제

△ 기간: 2011년 7월 22~24일
△ 장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자연학습장 연꽃단지)
△ 주요행사
- 체험행사: 연잎차시음회, 한국 전통머리 체험 및 댕기머리 시연회, 압화 작품만들기, 연 공예품 및 연꽃 소품 만들기, 토피어리 만들기, 한지공예 체험, 닥종이 작품 만들기, 캐리커쳐 체험, 화훼판매장
- 공연행사: 연꽃예술제, 시민과 함께 하는 공연

'제3회 호수공원 연꽃축제'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 자연학습장 연꽃단지에서 열린다.

자연학습장 2만㎡에는 백련과 홍련, 수련 등 8개 품종의 연꽃 1만8000여 송이가 활짝 피어 단아한 자태를 뽐낸다.

행사장 주변에는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내는 분수와 연꽃, 학 모양의 토피어리 등 조형물이 설치되고 연꽃 공예품, 연꽃 압화, 닥종이 인형, 목공예품 전시 등이 이뤄져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태안 연꽃 축제

△ 기간: 2011년 7월 22일~8월 21일
△ 장소: 충남 태안군 남면 신장 1리 청산수목원
△ 주요행사
- 전시행사: 연꽃문화관, 연꽃사진전시, 미술전시, 태안홍보관
- 체험행사: 농원산책, 소원지걸기, 비누만들기, 연잎차시음, 사진촬영
- 편의시설: 전망대 및 쉼터, 파고라, 농막, 몽골텐트, 연음식점
- 조형물: 고흐브리지, 일주문, 피노키오, 돌탑, 설치미술
- 판매행사: 연부침, 연콩국수, 연아이스크림, 연잎차 등
△ 문의: (041)675-0656

흰색 버드나무로 둘러싸인 9만9200㎡(약 3만여 평)의 청산수목원에는 백련과 홍련, 노랑어리연, 가시연 등 200여종의 수련이 갖가지 모양과 색깔을 뽐내고 있다.

수목원내 주요 수생식물 서식지인 예연원에는 수질정화 효과가 뛰어난 부처꽃과 부레옥잠, 물양귀비 등 100여종의 식물이 자라고 섬말나리, 홍가시, 노각나무 등 300여종의 야생화와 나무들이 주변을 장식하고 있다.

네덜란드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즐겨 그린 '랑그루아 다리'를 본떠 만든 '고흐 브리지'는 사진촬영 장소로 관광객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이 다리 건너편에는 전통문양인 '만(卍)'자 모양 꽃길이 조성돼 주변 연못에 핀 갖가지 연꽃들과 조화를 이룬다.

음식 코너에서는 연꽃과 연잎 등을 이용한 4종의 차와 연 아이스크림, 연잎칼국수, 연콩국수, 연부침, 연밥 등 은은하면서도 담백한 연 특유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다.

하소백련축제

△ 기간: 2011년 7월 9일~8월 15일
△ 장소: 전북 김제시 하소백련지 청운사 일원
△ 주요행사
- 전시행사: 하소백련 시화전, 이강식 고(古) 기와전, 백제예전 문창과 시화전 등
- 체험행사(매주 주말운영): 와송 기와탁본 뜨기, 와송 돌탑쌓기, 소원 기와 체험, 백련염색체험, 불교미술체험, 무용스텝체험(한국 · 서양무용)
- 특별공연(매주 토 · 일요일): 튀밥튀는날, 하소백련차회 차 시연행사, 시낭송(익산 시낭송회)
△ 문의: (063)543-1248

고즈넉한 사찰의 풍경과 어우러져 신비감을 자아내는 청운사 하소백련지에서 성대한 연꽃잔치 '제10회 하소백련축제 - 연인동화'가 열린다.

9만9000여㎡(약 3만평)의 백련재배지는 새우가 알을 품고 있는 모양의 한켠에 백련지들이 위치하고 있다해서 '하소백련지'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

특히 이곳 백련은 다른 백련과는 달리 순수하게 청백색만을 나타내 전국 최고의 백련재배단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7월 9일 개막한 '하소백련축제'에는 연인동화를 주제로 각종 체험행사와 전시행사, 연꽃과 관련된 특산물 및 음식판매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열린다.

청운사 주지 도원 스님은 "백련은 독성이 없고 다른 연에 비할 수 없는 향과 맛을 자랑하고 있다"며 "각종 하소백련 차와 하소백련 된장 등 특산품으로 유명하고 백련 칼국수, 백련부침, 백련자반, 백련죽, 백련두부, 백련동동주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백련 음식도 축제기간에 마련했다"고 말했다.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핫 온열경영

무릎찜질,허리찜질,족욕,좌욕,반신욕,사우나, 한번에...OK!

NAVER 검색창에 휘나핫 온열요법 을 검색하세요

휘나핫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히앉아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 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땀과 함께배출되기때문에몸속 (체온)상승되며 신체의상태가좋아진다.
체온이 1도 상승되면 각자체질에 따라 면역력이8-10강해지는 휘나핫 온열경영은 3-4년전 하루 200-250 명 무료 체험을통하여 많은 체험사례가 있으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2011년 지식서비스 최우수기업 선정 사진



휘나핫은 30여종 광물질 (특허획득제 10-096707 호 발명의명칭:세라믹전기발열체및 그 제조방법)특수제작한슈퍼블랙드스크 B.C.P 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면상발열체 와는 비교가 않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핫 반신욕기는특별할인된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보급될것입니다. (2020년까지)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제조원 : (주)휘림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멸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당뇨,신장질환,동맥경화,고혈압,심장병,부인병,비만치료!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김상욱 지음 | 값 5,000원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 070-7804-5358
계좌 : 농협 170118-56-120962 예금주 : 강봉대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숙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옻나무 진액
참옻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옻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옻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옻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초 주산지를 찾아 헤매던 사람이 지하 250 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옻을 만들었습니다.

▶옻에 대한 숱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옻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직한 참옻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옻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70〉

더 평범한 사람이 돼라

학승이 물었다.
"화상의 가풍은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노승은 출가한 이래로 활계(活計)를 짓는 일 따위는 안 했어."

問 如何是和尙家風
師云 老僧自小出家 抖擻破活計

활계(活計)는 살아가기 위한 방편을 말한다. 비구는 원래 걸사(乞士)라는 말이다. 출가자는 먹는 것은 걸식해서 먹고, 잠은 나무 아래에서 가사를 펴고 자면 된다. 처·자식이 없으니 오로지 자신의 미진한 수행만 걱정하면 된다. 구태여 일반인처럼 활계를 지을 필요가 없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북방에서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활계를 전혀 짓지 않을 수 없다. 최소한 잘 집이 있어야 하고, 먹는 것도 눈·비 올 때나 태풍 등을 고려해서 약간의 비축은 해놓아야 한다. 북방 불교는 남방 불교와 다르다. 특히 우리나라는 스님이라고 산중 사찰에 아무나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있지 않다. 사찰은 사중살림을 예산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 사찰이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것이다. 선방도 소위 선방부라고 해서 치열한 입방 경쟁을 거쳐야 한다.

그렇다보니, 이런저런 이유로 대중 사찰에 기거하지 못하는 낙오자들은 정처 없이 방황하게 마련이다. 혼자 몸뚱이인데도 편안하게 거처할 곳이 없는 것이다. 결국 출가해서도 늘 활계를 지으면서 살아가야 한다. 한국 불교의 모든 문제점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먼저 제도를 마련해놓고 뒤에 입문케 하는 방식이 아니고, 누구든지 출가를 허락했던 전통적 방식을 고수하는 한국불교는, 그래서 출가해도 세속에 있는 것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긴 시간 활계를 짓는다고 해서 딱히 마땅한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왕지사 출가했으면 이 한 몸 자연의 섭리와 진리의 흐름에 내 맡겨야 한다. 활계는 필요 없다. 병도 죽음도 삶도 모두 부처님의 정신에 맡기고, 생·노·병·사 그 자체에 순응하면 된다. 수행자는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출가한 것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보다 더 평범한 사람이 되려고 출가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학승이 물었다.
"노스님께서 4구를 떠나서 제발 한 말씀 일러주십시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노승이 항상 그 속에 있는 것을 어쩌겠느냐."

問 請和尙離四句道
師云 老僧常在裡許

4구는 ①유(有) ②무(無) ③역유역무(亦有亦無) ④비유비무(非有非無)의 4가지 구절을 말하기도 한다. 또는 옛날에 진리가 담겨있는 글을 네 마디로 요약해서 노래했던 게(偈)를 말하기도 한다. 여기서 4구는 심층적인 요점을 담은 말로 해석하면 될 것이다.

질문자는 부처님이나 조사들이 즐겨 말했던 4구를 떠난 한 마디를 듣고 싶은 것이다. 즉, 어떻게든 유와 무를 떠나고, 일체 언설이나 사량(思量)을 떠나서 한 마디 해달라고 한 것이다. 이것 매우 어려운 요청이다. 도대체 4구를 떠나서 무엇이 달리 있다고 선 듯 한마디 하겠는가.

보통사람 들에게는 딱 기가 막힐 질문이지만, 조주 선사에게는 그런 요청이 별로 어렵지 않게 여겨질 뿐이다. 그래서 "노승이 항상 그 속에 있는 것을 어쩌겠느냐" 하고 한 마디 툭 던졌다. 잘 들여다보면 이것이야 말로 바로 4구를 떠난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선문답은 만공 선사가 매미소리를 잡아오지 못하는 자에게 벌금 10전을 물리겠다고 하자, 보월 스님이 주머니에서 10전을 내주고 칭찬을 받았던 일화와 유사하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반야바라밀입니까?"
저주 스님이 말했다.
"마하반야바라밀이야."

問 如何是般若波羅蜜
師云 摩訶般若波羅蜜

반야는 '지혜'이고, 바라밀은 '노력'이다. 반야바라밀은 '지혜를 얻기 위한 수행'이라는 뜻이다. 마하는 크다(大)라는 뜻이다. 조주 스님은 여기서 반야바라밀이 바로 마하반야바라밀이라고 말했다. 지혜를 닦는 수행이 인생에서 가장 큰일이라는 뜻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선어록 해제 51
한국선과 선어록 21

선교대변문

선·교를 배우는 자라면 직접 터득해야

선교의 일치 내지 차별의 문제는 한국선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수성 가운데 하나이다. 선교의 일치는 일찍이 규봉종밀이 〈도서〉에서 선과 교가 매치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10가지 항목으로 주장한 이래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한국선의 역사를 통해 면면히 계승돼 왔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려다보면 딱히 그렇지만은 않다. 신라 말기 교학적인 풍토에다 새롭게 수입된 선법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는 무엇보다도 교학과는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것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그것은 교학적인 분위기가 다져져 있던 신라의 불교에 선법이 수용되고 뿌리를 내리며 전개되기 위해서는 교학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요구됐다.

이에 선법 수입자들은 의도적으로 선과 교의 차별을 주장했다. 가령 무염 국사의 〈무설토론〉에서는 유설(有舌)과 무설(無舌)을 설정해 무설의 뛰어남을 말했고, 범일 국사의 〈진귀조사설〉에서는 조사선과 여래선을 설정하고 여래선을 교학에 빗대어 은근히 조사선의 우위를 강조했다.

이 같은 초기 한국선법의 전통은 고려시대에 무신정권의 지배를 거치면서 고려 후기에 가면 변조대사 신돈과 태고보우 국사로 대변되듯이 화엄을 위주로 하는 교학과 선이 주도권을 다투는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스스로 자기 몸 옭아맴은 삼승인의 병통이다

이 같은 모습은 조선시대 중기에 청허휴정의 〈선교석〉과 〈선교결〉은 선주교종(禪主敎從)의 입장에서 다시 찾아볼 수가 있다. 나아가서 〈선가귀감〉도 예외는 아니다.

조선시대 후기에 이와 같은 선교차별의 모습을 고금의 제가에서 전해오는 별록을 끌어모아서 선·교를 배우는 자들의 미혹을 이해시켜주려 한 것이 곧 〈선교대변문〉이다. 무경자수는 우선 〈선교대변문〉에서 오늘날 선과 교를 배우는 자들은 선과 교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으로 선과 교를 간주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실교에 대해서는 소위 곧은 소나무와 굽은 가시나무와 긴 다리의 학과 짧은 다리의 물오리가 실상 아님이 없다고 하여, 소위 삼계는 유심이고 만법은 유식이라는 식이다. 그리고 선에 대해서는 소위 초목에 부는 바람과 물가에 비친 달이 모두 진심을 드러내고, 노란 꽃 푸른 대나무가 분명하게 반야를 설명한다"고 말한다. 나아가서 "어떤 경우에는 원돈 가운데서 해인의 지혜와 바탕은 인을 벗어나 있고 과를 벗어나 있음을 가지고 선의 심인으로 간주하고, 어떤 경우에는 돈교 가운데서 일체법이 연(緣)을 벗어나 있고 상(相)을 벗어나 있으며 능(能)을 벗어나 있고 소(所)를 벗어나 있으며 낱낱이 무잡하고 오직 여여하고 청정한 해탈만을 가지고 선의 본래해탈로 간주한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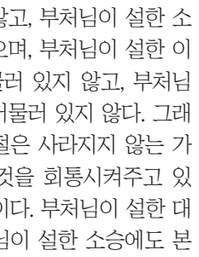
그러면서 이와 같이 잘못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좌선도 해보지 않고 선교의 도리도 모르면서 선교를 말하는 간주하는 것이라 질책한다. 이에 무경자수는 선교의 차별에 대해 〈선가금설록〉을 근거로 선교에서 "그 언구는 비록 비슷할지라도 그 지취(志趣)는 하늘과 땅만큼 아득히 차이가 있으며, 선록을 살펴보면 원돈의 해인과 선의 심인은 비록 비슷할지라도 비슷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원돈의 입장인 해인의 경우 처음에는 인과의 도리가 있다고 설하지만 나중에는 인과가 없다는 경지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의 입장인 심인의 경우 그와는 달리 인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과가 없다는 흔적마저 남기지 않기 때문이다"고 진단한다. 또 〈진각대사망정록〉을 근거로 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식정을 잊고 도리에 계합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소위 보살의 경우이다. 부처님이 설한 대승은 대승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처님이 설한 소승도 소승에 머물러 있지 않으며, 부처님이 설한 이(理)·사(事)도 이·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처님이 설한 색·공도 색·공에 머물러 있지 않다. 그래서 낱낱의 글자와 낱낱의 구절은 사라지지 않는 가명(假名)으로서 원융하게 그것을 회통시켜주고 있다. 둘째는 소위 조사의 경우이다. 부처님이 설한 대승에 본래 대승이 없고 부처님이 설한 소승에도 본래 소승이 없으며, 부처님이 설한 이·사에도 본래 이·사가 없고, 부처님이 설한 색·공에도 본래 색·공이 없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무경자수는 또한 "대승원교·대승돈교·대승시교의 삼교에서 말한 바도 역시 선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말한다. 기타 〈불조진심선격초〉와 〈순정록〉의 말을 통해 교가의 걸림없는 법은 바야흐로 일미로 돌아가지만 그 일미의 흔적마저 불식시켜주는 것이 곧 선가에서 일심을 관찰토록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쓸데없이 말하고 듣는 지혜를 가지고 함부로 남에게 자기자랑을 하지만 발로는 실제(實際)를 밟지 못해 이해와 행위가 어긋나서 물을 건너고 산을 찾느라고 죽과 밥만 축내며 교망(敎網)에 막혀있어 일생을 속이면서 지내는 것은 교자(敎者)의 병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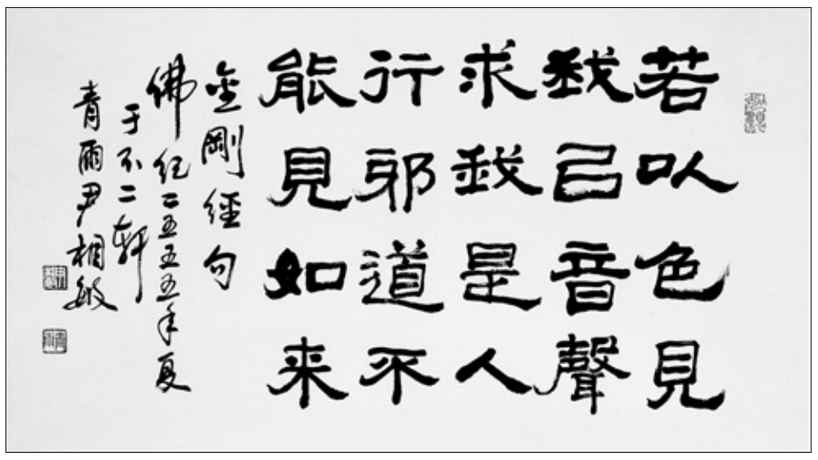
노끈은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뱀인 줄 알아 의심하고, 방은 본래 텅비어 있는데 귀신이 있는 줄 알고 두려워하며, 마음에는 진·망의 분별견해가 남아 있고, 성품에는 범·성의 분별이 남아 있으며, 누에처럼 실을 뽑아서 스스로 자기의 몸을 옭아매는 것은 삼승인의 병통이다. 그런 즉 선·교의 병통만 해도 역시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무릇 선·교를 배우는 자라면 자세하게 알아서 직접 터득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



김호귀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윤상민의 서화산책⑲ 금강경

밖에서 구하지 말라



若以色見我 以音聲求我 是人行邪道 不能見如來(약이색견아 이음성구아 시인행사도 불능견여래)
만약 육신으로써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써 나를 구하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라 능히 여래를 볼 수 없으리라. 〈금강경〉

若: 같을 약
聲: 소리 성
求: 구할 구
邪: 간사할 사
能: 능할 능

청우불금능행구아약
우불기강견사아이이
윤이이경여도시음색
상헌오구래불인성견
민 오 오 년 하



서예가 · 동아미술상 수상

불자들 간의 선물도 『콘사이스판 불교사전』으로 합시다.
불교의 모든 지식이 이 한 권에 다 들어 있다.

불자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콘사이스판 불교사전』
Concise Buddhism Dictionary

사찰의 각종 행사 때, 불교대학 졸업식 때,
선물은 『콘사이스판 불교사전』으로 합시다.



김승동 편저(부산대학교 명예교수)
117×178mm / 고급 사전 용지 사용 / 1,216쪽
4,950여 개 항목 수록 / 고급 양장 / 특수 제본 / 값 38,000원

구입 문의 민족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org E-mail. minjoksa@chol.com
● 법보시 주문받습니다.

알고 싶은 것, 궁금한 것은
즉시 해결해야만 지식으로 승화된다.

『콘사이스판 불교사전』의 특징

1. 총 1,216쪽, 4,950여 항목을 수록했다.
불자들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단어 4,950여 개 항목을 엄선했다.

2. 각 단어에 대한 설명이 상세 · 명확 · 풍부하다.

3. 영어 세대를 위해 각 단어의 개념을 영어로 요약 표기했다.

4. 콘사이스판으로 누구나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다.
고급 사전 용지를 사용해 두께가 3.2cm로 가볍다.

5. 크기는 작지만 내용은 백과사전 못지않게 풍부하다.
한 단어만 찾아도 관련 지식이 쏟아진다. 부처님 생애는 물론, 인도 · 중국 · 한국 · 티베트 · 일본불교의 역사와 초기 · 원시 · 부파 · 대승불교 그리고 밀교의 교리와 역사 · 사상 · 철학 · 문화가 다 서술되어 있다. 특히 반야, 공사상, 중관사상, 유식사상, 대승불교, 선사상, 무아, 열반 등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그 개념의 성립과 기원, 변천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서술되어 있다.

동서남북의 기준은 자기 자신…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익산 사자암 **향봉 스님**



향봉(香峰) 스님은 … 동진출가해 1962년 사미계, 1967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불교신문사 편집국장 • 주필 • 주간 • 부사장을 역임했다. 조계종 총무원 조사국장 감찰국장 포교부장 총무부장과 중앙종회 사무처장, 종회의원을 역임했다. 조계종 경승단 초대단장과 청평사 • 보광사 • 내장사 주지를 지낸 스님은 인도 네팔 티베트 중국에서 15년을 머물기도 했다. 1973년 9월 〈현대시학〉을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다. 저서로는 〈사랑하며 용서하며〉, 〈겨울장마〉, 〈움직이는 것은 아름답다〉, 〈사람의길〉 등 20여 권이 있다.

"죽비로 길들여진 수행 풍토서는 선지식이 나오기 어렵다." "한국불교는 문중 파벌에 갇혀 지나치게 폐쇄적이다." "시자가 대필하는 앵무새 같은 법어라면 하지 말아야 한다."

2009년 가을, 지리산 자락에서는 조계종을 발칵 뒤집을 '쓴소리'가 쏟아져 나온 일이 있다. 남원 실상사에서 열렸던 야단법석에서였다. 당시 '야단법석'이라는 범상치 않은 이름의 행사를 열어 불교계에 일대 센세이션을 몰고 왔던 향봉 스님(익산 사자암 주지)은 그 후로도 한차례 더 야단법석을 개최해 한국불교의 변화를 주도한 바 있다. 8월 4~7일 장성 백양사에서 있을 세 번째 야단법석을 준비 중인 향봉 스님을 만났다.

향봉 스님이 주지로 있는 미륵산 사자암은 백제시대 사자사가 있던 곳으로 전해지는 절터이다. 미륵사지 뒤편에 위치한 이곳에서는 1993년 '사자사(師子寺)' 명문이 있는 기와가 출토됐다. 〈삼국유사〉에는 "백제 무왕과 왕비(선화)가 사자사로 행차하던 중 용화산 아래 연못에서 미륵삼존불이 출현해 그 인연으로 미륵사를 세웠다"고 전한다.

스님은 최근 야단법석 세 번째 마당을 열기에 앞서 자신이 체득한 불교사상을 풀어낸 〈일체유심조〉와 독특한 선기로 선문답을 풀어 쓴 〈선문답〉, 시집 〈행복을 위한 자유를 위한〉을 펴내기도 했다. 사자암 마당에서 책 소식과 함께 안부를 건넨 나그네에게 향봉 스님은 "앞으로 20권은 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나이 마흔에 철들어

향봉 스님의 어린 시절은 가난했다. 스님은 초등학교 5~6학년 때 가난을 이유로 동진출가했다. 10대부터 해인사에서 지냈던 스님은 불교신문사와 종단의 중심에서 10여 년간 소임을 봤다. 이 때를 향봉 스님은 "잘못된 인연으로 학문과 수행할 기회를 놓친 시기"라고 표현했다.

잘못된 인연(?)으로 방황하던 스님이 제대로 공부를 하게된 계기가 있었다. 나이 마흔이 지나 내장사 주지를 지낼 때였다. 속가 부친이 돌아가셨다. 장례를 위해 속가를 찾았더니 어머니가 봉투를 건네며 "아버지의 49재를 내장사에서 지내 달라"고 말했다. 누나들도 말을 보탰다. "아버지가 극락왕생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향봉 스님은 포교부장 소임도 지냈지만 말문이 막혔다. "영혼이 존재하는지, 49재 공양을 한다고 해서 살아생전의 업장이 소멸될 수 있는 것인지. 내생이 존재하는지 등 많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스님을 괴롭혔다.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의문들이 향봉 스님을 철들게 했다. 스님은 무작정 바랑을 메고 인도로 떠났다. 향봉 스님은 영어를 못해 의사소통도 안되는 곳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두어 달이 채 못돼 가져갔던 1000달러를 모두 써버렸다. 돈이 없어 방을 구할 수도 없었다. 향봉 스님은 이 공원, 저 공원을 돌며 노숙을 했다. 말라리아 등 풍토병에 걸려 죽을 고비도 넘겼다.

이를 보다 못해 속가 형인 정다운 스님이 유학생 숙소를 잡아 주고, 약도 보내왔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평소처럼 무(無)자 화두를 들고 있던 때였다. 약과 함께 담긴 작은 포켓 달력을 보고 있었다. 우연히 달력을 넘기는데 환하게 불이 켜졌다. 조명이 켜진 것이 아니라 어떤 빛이었다. 스님은 그 '빛'을 본 종교적 체험으로 깨달음을 얻었다. 향봉 스님은 이게 뭔가 싶어 어리둥절하다가, 정다운 스님이 예전에 보내주었던 〈천수경〉 강의집을 펴 봤다.

'입(口)' 아닌 것 없다

〈천수경〉은 그 시작에서 구업을 강조한다. 신 · 구 · 의(身口意) 삼업 중에서도 악구(惡口, 악담), 양설(兩舌, 이간질시키는 말), 기어(綺語, 꾸미는 말), 망어(妄語, 거짓말) 등 구업으로 짓는 업은 네 가지로 가장 많다.

향봉 스님은 "코는 국 냄새 맡는 입이고, 눈은 보는 입이고, 귀는 듣는 입이다. 우리 몸에는 다스려야 할 입이 아홉 개나 된다"며 "정구업(淨口業)의 바른 해석은 몸과 마음을 맑게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금강경〉 사구게 가운데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에 대해서도 해석을 달리 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마땅히 머무는바 없이 그 생각을 내라'라고 해석한다.

> 코는 냄새 맡는 입
> 눈은 보는 입, 귀는 듣는 입
> '정구업'은 몸과 마음 맑게 하라는 뜻

향봉 스님은 "이것은 '한 생각이 일어났거든 마땅히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로 바꿔보자"고 말했다. 생노병사는 모두 집착에서 온다. 스님은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는 하루에 천만가지 생각을 한다. 때문에 너무 피곤하다. 생각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갖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중생이 앓고 있는 모든 원인이 집착 때문이라는 스님의 설명은 〈금강경〉에 설해진 수자상(壽者相)의 수(壽)를 '목숨 수'가 아닌 '누릴 수'로 봐야한다는 말로 이어졌다. 수자상은 삶에 대한 애착 · 집착이 아니라, 중생이 앓고 있는 고통의 모든 원인이 집착에 있다는 말이다.

향봉 스님은 "나만 '목숨 수'가 '누릴 수'의 의미도 갖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 고어에서 보면 둘의 쓰임이 같다"고 말했다.

유교식 중도 이해는 잘못

팔만대장경의 핵심은 중도(中道)와 연기법칙이다.

향봉 스님은 "많은 스님들이 중도(中道)를 잘 모르고 헤매고 있다. 중도는 좌우에 치우지지 않는 균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중도를 유교의 중용과 같은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중용(中庸)〉은 인(仁) 의(義) 예(禮) 지(知) 신(信)을 생활의 기본 덕목으로 삼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온당하게, 또는 지나치거나 모자람 없이 알맞게 덕과 도의 균형과 조화를 강조하는 가르침이다. 예와 지 등 무엇 하나 지나치면 화를 부르기 때문이다.

향봉 스님은 "불교의 중도사상은 중용과 근본을 달리한다"며 "중용이 양변불락(兩邊不落)사상이라면 중도는 양변무애(兩邊無碍)이자 무변중심(無邊中心)사상이다"라고 말했다. 불교의 중도에는 좌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변두리도 없다는 설명이다.

스님이 나그네에게 물었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동쪽입니까?"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서쪽입니까?"

나그네가 답했다.

"내가 서 있는 곳부터 해 뜨는 방향이 동쪽입니다. (내가 서있는 자리에서) 해가 지는 방향이 서쪽입니다."

향봉 스님은 다상을 탁! 하고 치며 "맞다"고 말했다.

"동서남북의 구분은 자기로부터 시작됩니다. 항상 중앙에는 '내'가 있습니다. 모서리에 앉아도 '내'가 앉으면 그곳이 중앙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 서 있더라도 내가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며 세상의 주인인 것입니다."

스님은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주인이니 내가 곧 부처인 것이요, 내가 서있는 자리가 곧 정토이다"라고 말했다.

향봉 스님의 말에 따르면, 임제 선사의 '수처작주(隨處作主) 입처개진(立處皆眞)'은 불교의 중도를 설명한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의 탄생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비롯해 즉심시불(卽心是佛) 심외무불(心外無佛) 등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가르침과 법등명(法燈明) 자등명(自燈明)의 최후의 유훈이 이를 뒷받침한다. 불조의 혜명을 꿰뚫은 이같은 가르침을 〈법화경〉은 '번뇌가 보리요 중생의 곧 부처'라고 했다.

향봉 스님은 "오늘이, 금생이 제일 중요하다. 불교는 오늘의 종교"라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나다. 내가 죽으면 끝이다. 우울하다거나, 돈 없다고 불평하면 안된다. 살아있다는 자체가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성경〉에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구하지 말라, 구할 수록 마음이 어지럽다'고 했습니다. '두드리지 말라. 언제나 문을 열려있다'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마음이 윤회한다

향봉 스님은 "고정관념을 깨로 관점을 바꾸고 마음이 열려야 세상이 열린다"고 말했다. 목탁소리에 의해 운명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뀌고 삶이 바뀐다는 말이다. 스님은 "참회한다고 업장이 녹지 않는다.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봉 스님은 "한국불교는 브라만(우주)을 통한 창조설은 믿지 않으면서 아트만(거짓된 나)은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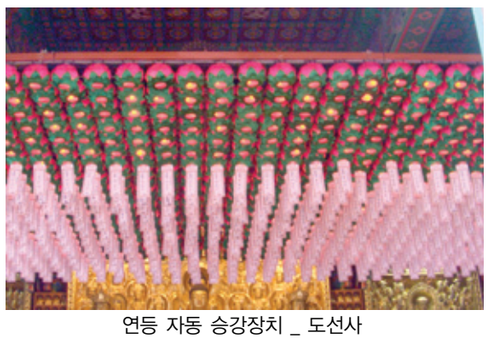
찬덕불교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 합니다.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윤장대 인등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고급형 위패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아름다운등


팔각접등영가등


만월영가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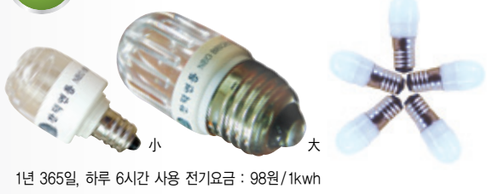

공 단 등


오색공단등


만 월 등


종 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小 大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생각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뀐다



육도윤회는 죽어서가 아니라
내마음이 어떤가에 따라
지금 생에서 겪는 것

고 지적했다. 불교는 '나'를 이루는 안이비설신의 등은 모두 연기(緣起)에 의한 것으로 '나'는 없다고 설한다. 향봉 스님의 주장은 부처님이 '무아(無我)'라고 설했음에도 유독 한국불교는 '나'의 허상을 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님은 "한국불교가 아트만을 부정하지 못하는 것은 사찰경제와 연관됐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나'가 있다고 해야 49재의 공양을 받을 주체도 있고 참회기도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옥야여경(玉耶女經)〉에는 어머니 같은 아내, 누이 같은 아내, 친구 같은 아내, 며느리 같은 아내, 종 같은 아내, 원수 같은 아내, 도둑 같은 아내 등 일곱 가지 아내가 나온다.

향봉 스님은 "많은 사람들이 전생의 업장 운운하며 선업을 닦아야 좋은 아내를 만난다고 말한다"면서 "사실은 한 여자에 일곱 가지 모습이 있는 것이다. 사람을 하나를 두고 내 마음의 윤회에 의해 일곱 가지 모습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육도윤회도 죽어서 나고 죽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열리고 닫히느냐에 따라 금생에서 겪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한두 시간 목탁소리에 의지해 일생의 업장을 녹이려는 행위는 이치에 안맞는다는 주장이다.

얼마 전, 사자암에서는 논란이 있었다. 조계종에서 멸빈된 정다운 스님이 사자암 법당을 빌어 재(齋)를 봉행했기 때문이었다. 향봉 스님의 주장대로라면 부질없고, 하지말아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이유는 뭘까. 스님은 "출가자에게도 부모·형제가 있다. 종단서 감찰국장을 하면서 형인 정다운 스님의 징계를 먼저 요청했던 나이지만, 할아버지가 된 형이 법당을 빌려달라는 청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자리씩 하면서 '방하착' 하라 해서야

한국 선원 대부분은 짜여진 정진시간표에 의해 죽비소리로 앉고 서기를 반복한다.

향봉 스님은 "한국 선원은 좌선의 뿌리가 너무 깊게 박혀 있다. 50분 좌선하고 10분 쉬는 형식주의에 빠져서는 마음 열린 도인이 출현하기란 요원하다"고 탄식했다.

무문관도 잘못된 수행 풍토라 지적했다. 독방은 만들어 두되 문을 열어둬야 한다는 것. 대자유를 얻겠다는 출가자를 사육하듯 가둬두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과 상통하는 말이었다.

스님은 "출가 51년 동안 어느 조실·방장스님이 후학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은퇴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고도 말했다. 이판이나 사판이나 모두 자리에 연연하며 집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향봉 스님은 한국불교에서 법거량이 사라졌음을 한탄했다. 2년 전 지리산에서도 외쳤지만 소용없었다. "(법을 논하는 자리라면) 누구든 찾아오라", "어디든 부르면 가겠다"고 외쳤지만 정작 법거량을 하자는 이는 없었다. 그래서 스님은 〈선문답〉을 펴냈다고 했다. 책으로라도 남겨두면 언젠가 눈 밝은 이가 찾아와 법거량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성역 없는 쓴소리는 계속된다

향봉 스님은 조계종이 추진 중인 자성과 쇄신의 5대결사에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스님은 총무원장스님이 결사와 민족문화수호운동 추진 6개월 여만에 청와대를 찾아간 것을 "백기를 들었다"라고 표현했다. "절망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향봉 스님은 "(이런 상황에서) 조계종이 5대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바람이 모두 빠진 풍선을 두고 대중에게 바람을 불어넣으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사바세계에서 누군가에게 쓴소리를 한다는 것은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길 포기하는 것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봉 스님은 쓴소리를 멈추지 않는다. 그 이유에 대해 스님은 "온몸이 상처투성이인데 상처를 덮어만 두면 더 큰병이 온다"고 설명했다. 스님의 쓴소리는 동진출가해 오늘의 자신을 있게 한 한국불교에의 살신성인(殺身成仁)이었다.

향봉 스님은 "방장·선원장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도 내가 최초"라고 말했다. 이어 "2009년 야단법석에서 이슈가 됐던 고액의 해제비 부분만 해도 일정액이 넘는 것은 승려노후복지기금으로 사용하기로 선원수좌회가 결정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조계종 선원수좌회가 편찬한 〈선원청규〉에 '방장 등은 승납과 안거수를 따지지 말자'고 명문화한 것만으로도 큰 성과를 이룬 것"이라고 자평했다.

향봉 스님의 쓴소리는 성역이 없었다. 미륵산 중턱 사자암에 앉아 너른 익산평야를 한눈에 내려보듯 스님의 견해는 한국불교의 막힌 곳곳을 꿰뚫고 있었다. 한국불교에의 충절이 담긴 스님의 법문은 8월 4~7일 백양사 야단법석에서 만날 수 있다. 백양사 (061)392-0100

조동섭 기자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의발



동국대 선학과 교수

절기 때문일까. 아니다. 절기 때문이라고만 할 수 없는 일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시선을 머물만한 곳을 찾기가 만만치 않다. 한때는 미니스커트의 길이를 무릎 위 몇 센티미터까지 허용한다고 규정하기도 했지만 그 규정은 유야무야 사라지고 말았다.

젊은이들 사이에 흔히 쓰는 말로 '하체가 부실하다'라는 말을 쓴다고 한다. 생소한 말이라서 무슨 말 뜻이냐고 물은 적이 있다. 바지의 길이가 초미니로 짧아진 것을 표현하는 말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이러한 현실을 기성세대가 꼭 탓할 일 만은 아닌 듯하다. 어쨌든 세상은 젊은이들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기 마련이다. 의상문화의 트렌드쯤으로 표현한다면 적적할 듯하다.

부처님의 상수 제자인 마하가섭(摩訶迦葉)은 두타행(頭陀行)에 전념 하였다. 바라문 출신인 그는 아난(阿難)과 나눈 대화가 있다.

〈상응부경전〉 권2에 마하가섭이 아난을 '젊은이'라고 부른 것에 대하여 "마하가섭이여! 나의 두발(頭髮)도 회색이 되었으니 다시는 나를 젊은이라고 부르지 마세요"라고 아난이 말했다. 한 비구니는 '가섭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교도였는데 정통의 제자 아난을 젊은이 라고 부르는 것은 지나치지 않는가'라고 비난하기도 하였다. 이 말을 들은 가섭은 '부처님이 본인이 입었던 옷을 나에게 주었으므로 부처님의 옷을 받은 나야말로 스승의 가르침을 계승한 정통(正統)이다'라고 말했다.

옷을 범어로 cīvara라고 한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옷이라고 하나 불교와 자이나교의 수행자들이 입는 분소의(糞掃衣)를 이르는 말이다. 위 경전의 내용에서 이심전심의 유형(有形)의 징표가 되었던 것이다. 스승으로부터 옷을 받는 것이 곧 법을 계승하는 것이 되었다.

이와 같은 전거에 의하여 선종에서는 가섭이 부처님으로부터 옷을 받았다는 것을 소중히 여겨 부처님의 정법은 마하가섭에게 전해졌다고 여기게 되었다.

선종에서는 일반적으로 세 벌의 옷을 말한다. 울다라승·승가리·안타회이다. 울다라승은 정장용이고, 승가리는 외출용이며 안타회는 작업용의 옷이다.

선종에서 최초에는 옷 만이었으나 후대에 가면서 발우를 더하여 징표로 삼았다. 발우는 범어로 pātra 라고 한다. 동사로는 '마시다'·'들이키다'·'삼키다'의 뜻이고 명사는 '마시는 그릇'이라는 말이다. 동의어로 Bāra가 있다. '아가리'·'종지'란 말이다.

발우는 원래 철로 만든 발우[鐵鉢]와 기와로 만든 발우[瓦鉢]가 주종을 이루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나무로 만든 발우[木鉢]를 쓰고 있다.

발우야 말로 수행자가 탁발할 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 일 뿐 아니라 일용품인 것이다. 중국에서 의발이란 불법(佛法)이요 불도(佛道)의 의미로 이해되었다. 스승이 제자에게 의발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불법을 전한다는 의미가 되었다. 이심전심의 징표는 의발로 표시되었다.

언제부터인가 그 의발의 전승은 본래 의미가 상당히 탈색되기 시작하였다. 서릿발 같은 전법의 세계가 물질이란 이끼가 덕지 덕지 끼이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지근거리에서 조석으로 보고 따르는 제자가 있으면 의발을 전하는 사례를 주변에서 쉬 볼 수 있다.

분소의와 발우를 말하는
의발은 불법·불도 의미
이심전심의 정표로 쓰여

그러한 의발의 전승이 불조의 혜명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에는 미미할 뿐이다. 부처님의 본래 마음에 부합하는 일이 아닐 터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열반시에 자리를 지켜보지 못했던 마하가섭에게 법을 부촉하였다. 당시 그는 스승 곁에 있지 않고 의·식·주에 관한 탐욕을 없애는 두타행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체가 부실한 젊은이여! 그대가 입은 짧아진 옷 길이 못지않게 주시할게 있다. 어느 늪에 빠져 잔주가 심한 자신의 영혼을 구출하는 일이다.



LEADER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입시다!

사찰등록 !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직할 종단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종정대행 : 목탁 혜은 부원장 : 금당 법성
포교원장 : 불도 천장 교육원장 : 현담 송광 감찰원장 : 일해 공심 비구니 회장 : 대행 보현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



이현정 소장의 이제는 다문화 시대 5

스펙 쌓기 위한 생각으로 봉사활동은 금물

이현정
한국다문화센터 소장

다문화자녀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하면서 현장에서 많은 다문화자녀들을 만났다. 대학생들은 자원봉사에 대한 갈증을 채우고자 시민단체에 노크를 계속 해오고 있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쉽게 말해 멘토(후원자)와 멘티(구성원)가 1대1로 짝을 이뤄 교감을 나누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목적성을 띈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정자녀(멘티)에게 대학생 1명이 멘토가 되어 서로 의견을 공유하는 등 사회복지 차원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이 활용된다. 멘토링 프로그램이 가장 활발한 곳은 아무래도 '청소년' 관련분야다.

비행청소년,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가 인연을 맺고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신뢰와 애정을 키워가는 것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되찾고 꿈을 품게 되며 희망을 갖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멘티는 정서적 이해와 지지를 하면서 스스로 적절한 역할 모델이 돼야 함은 물론이다. 그래서 자원봉사는 다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다문화자녀의 문제점, 자원봉사자로서의 자세, 자원봉사에서의 스킬 등 여러 가지 알아야 할 점 등이 수반된다.

지혜, 경험, 애정의 말 한마디, 조언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에게 학습지원, 진로고민 등 개인의 고민을 상담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의지에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이 주요 활동이기 때문이다.

멘토로 나서는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무조건 봉사한다는 열의만 갖고 달려들어서는 곤란하다. 성적과 점수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들에게 사회는 너무나 경쟁이 심하고 무엇보다도 앞선 무언가가 필요하기에 이러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도 이해는 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에서 자원봉사의 개념과 특히 봉사를 하고 싶은 대상에 대한 정보나 연구 등에 대한 교육은 제로다.

필자가 운영하는 센터에서 2009년 대학생과 다문화자녀 멘토링을 위한 자원봉사자모집에서 기존의 100명대 100명 수준을 넘어선 대학생 500여명이 몰려들었다. 그러나 이들은 왜 봉사를 하려는지, 봉사대상이 다문화자녀라는 점과 다문화자녀에 대한 정보와 다문화이해에 대한 교육을 하고 나자 반 이상이 떨어져나갔다. 이들의 중도하차 이유의 대부분은 육체적으로나 거리상 멀어서 '너무 힘들다'였으며 자원봉사 개념과 맞지 않게 '교통비와 수고비 등이 적어서'도 꽤 상당수였다. 취학연령대에 학교이탈과 학업포기, 교육포기는 결국 가난의 되물림을 맞춰놓는 일이고 종국에 가서는 한국에 대한 반감을 키우고 폭력집단, 이주민 폭동 등 많은 경우의 수가 다문화자녀에게 잠재되어 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의 분노와 적개심을 어루만져 줄 진정한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학습지원, 진로상담, 애정의 말 한마디는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사진은 2010년 한국종교연합에서 주최한 다문화 가정자녀를 위한 종교문화역사기행 행사에서 찍은 것.

정치전 건강칼럼⑨

여름철 보양음식

날씨가 더우면 에너지 소모가 늘어나 더욱 많은 영양 공급이 요구된다. 당연히 한 끼도 거르지 말고 소화가 잘되는 음식을 듬직하게 먹어야 한다. 동물성 음식으로 기력을 보강하고 제철 과일로 열기를 식히며 갈증을 멎게 하는 것이 좋으며, 체질에 맞게 먹어야 한다.

수박은 더위와 갈증을 풀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 과당, 포도당을 가지고 있어 피로회복에 좋다. 그러나 서늘한 성질이므로 비위장이 냉하고 설사를 자주하거나 몸이 차가운 사람, 습기가 많은 사람은 적게 먹어야 한다.

참외는 열기로 인해 가슴이 답답하고 갈증이 심해 입맛이 떨어진 경우에 좋다. 대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효능도 있다. 하지만 참외 또한 비위장이 냉하고 배가 부르면서 대변이 묽은 사람은 적게 먹어야 한다.

포도는 기혈(氣血)을 보하고 근골과 심장을 강하게 하며 빈혈, 피로, 피부미용에 좋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이 잘 오지 않으며 식은땀을 흘리고 신경이 예민한 사람에게 적합하다. 열병을 앓고 '허열(虛熱)'이 남아 있는 환자나 공부에 지친 수험생에 좋다. 하지만 많이 먹으면 설사하기 쉽고 배에 가스를 차게 해 비위장이 허약한 경우는 적게 먹어야 한다.

복숭아는 간장과 심장을 보양하고 폐의 기능을 보강해 준다. 혈을 잘 순환시키며 여성 생리를 잘 통하게 하고 장을 윤택하게 해 대변을 잘 나오게 한다. 미용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따뜻한 성질이기에 열을 일으켜 부스럼이나 종기, 화농성 염증을 생기게 하므로 열이 많은 사람은 적게 먹어야 한다.

닭고기는 정(精)과 수(髓)를 보충하므로 질병을 앓은 뒤, 몸이 쇠약하고 소변이 잦은 경우, 입맛이 없거나 설사하는데 좋다. 땀을 유난히 많이 흘리는 경우 기를 보하는 황기를 넣고, 보혈 효과를 얻으려면 당귀, 천궁, 녹각 등을 넣으면 된다. 정력을 보강하려면 인삼의 양을 늘리고 마, 연밥 등을 추가하면 된다. 열기가 상부로 오르거나 피부에 부스럼이 잘 생기는 경우에는 마땅치 않다.



돼지고기는 서늘한 성질로서 음기를 보충하는 효능이 크다. 위와 장에 윤기를 주고 피부를 윤택하게 하며 변비와 마른기침에도 좋다. 노동이나 운동으로 땀을 많이 흘려 음기가 손상된 경우 기운이 나게 한다. 특히 속에 열이 많으면서 마른 체질에 딱 어울린다. 반면 속이 냉한 체질에는 소화 장애와 설사를 일으키기 쉬우므로 마늘과 같이 조금씩 먹어야 한다.

민어(民魚)는 조선시대 최고의 복달임 음식으로 불렸다. 무더위에 잃기 쉬운 입맛을 돋궈주고 기운을 보충해줘 더위를 이기게 한다.

땀이 많이 나고 쉽게 피곤하며 비위장이 허약해 소화력이 약한 경우에 효과적이다. 질병을 앓은 뒤나 산후에 몸이 쇠약한 경우 인삼, 파, 생강을 함께 넣고 푹 삶아 먹거나 입맛이 없고 소화불량일 때는 산사(山査, 산사과나무 열매)를 함께 넣고 푹 삶아 먹으면 좋다.

미꾸라지는 따뜻한 성질로 신장의 양기를 더해준다. 정력 감퇴에 좋으며 소화를 돕고 설사를 멎게 한다. 또한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간장 질환이나 숙취에 좋으며 골다공증에도 효과가 있다. 비위장이 허약해 몸이 마르거나 추위를 잘 타는 사람은 황기와 인삼을 함께 넣어 끓여 먹으면 좋다.



동국대 분당한방병원

일묵 스님의 위빠사나 수행이야기14 – 지혜수행

지혜를 계발하라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처음에는 그 사람의 이름, 나이, 학력, 직업 정도의 피상적인 모습만을 알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상대를 이해해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

하지만 진실하게 서로 만나다 보면 상대에 대한 오해도 풀어지고 상대의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 아픔, 훌륭한 사상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 면속 깊은 곳까지 알게 된다.

이처럼 마음이 대상과 접촉할 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대상에 현혹돼 대상을 바로 알지 못하고 대상에 대해 전도된 이해를 하게 된다.

하지만 알아차림(sati)을 통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상과 접촉하면 대상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여러 가지 측면으로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상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깊이 꿰뚫어 아는 것을 지혜(pñña)라고 한다.

이런 지혜를 통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대상의 본성을 꿰뚫어 알아야
전도몽상 버리고 열반 성취해
위빠사나인 지혜수행이 지혜
오온 집착 포기해야 행복해

꿰뚫어 알아야 만이 세상에 대한 전도몽상을 버리고 열반을 성취할 수 있다.

그래서 불교수행의 핵심은 지혜를 계발하는 수행, 즉 위빠사나 수행(vipassana bhāvana)이다. 이를 중국에서는 관(觀)수행 또는 지혜(智慧)수행으로 번역했는데 주로 지혜수행이라는 용어로 많이 쓰인다. 앞으로는 주로 지혜수행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지혜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간단히 설명하면 물질 현상의 본질에 대하여 깊이 꿰뚫어 아는 색온, 즉 물질(rūpa)에 대한 지혜와 수온, 상온, 행온, 식온 즉 정신(nāma)에 대한 지혜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오온, 즉 물질과 정신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질에 대한 지혜와 정신에 대한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범부들이 세상, 즉 오온에 집착을 하는 것은 오온이 괴로움이 아니라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전도몽상 때문이다. 수행자가 지혜수행을 통해 물질과 정신, 즉 오온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게 되면 색온, 즉 물질의 특징, 역할 등과 수온, 상온, 행온, 식온의 정신의 특징과 역할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오온의 본질이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고[無常],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사라짐에 압박받는 괴로움이며[苦], 변하고 괴로운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며, 나가 아니며, 나의 자아가 아니다[無我]'라고 보는 무상, 고, 무아의 지혜가 생긴다.

이를 통해서 조건에 의해 형성된 오온들은 행복하거나 즐길만한 것이 아니고 괴로움이며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통찰하는 혐오의 지혜가 생긴다.

오온에 대한 혐오의 지혜가 일어나면 수행자의 마음은 오온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게 된다. 이는 마치 어두운 밤에 노란색의 무엇을 보고 귀한 황금이라고 생각해서 집착했는데 날이 밝아서 보니 그것이 황금이 아니라 똥 덩어리임을 알게 되어 그것을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즉시 포기하게 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조건에 의해 형성된 오온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게 되면 전적으로 고요하고 완전한 행복인 열반으로 마음이 향하게 되는데 이를 깨달음 또는 해탈이라고 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란 성인의 흐름에 처음으로 들어간 수다원(입류자), 욕계에는 한 번만 윤회하는 사다함(일래자), 다시는 욕계에는 윤회하지 않는 아나함(불환자), 다시는 윤회하지 않지 않고 공양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아라한의 네 가지 성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 단계인 아라한이 되면 모든 번뇌를 소멸하고 모든 고통을 소멸하여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게 된다.

반야경의 정수라고 하는 〈반야심경〉에서도 "조견오온개공 도일체고액(照見五蘊皆空 度一切苦厄)", 즉 오온이 공함을 명확하게 꿰뚫어 봄으로써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고 했다. 이 구절은 앞서 설명한 지혜수행의 본질은 한 마디로 잘 드러내주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지혜수행이란 세상, 즉 오온이 무상, 고, 무아임을 꿰뚫어 아는 지혜를 계발하여 윤회의 근본 원인인 오온에 대한 갈애를 버림으로써 완전한 행복인 열반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묵 스님(제따와나 방배선원장)

명쾌한 깨달음

| 이대로 그대로 |





존재의 실상을 깨달아야 한다!

깨달음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가?
깨달음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오는가?

연기법 수행과 선법 수행을 통해
존재의 실상을 깨달아 가는
깨달음 공부의 입문서이자 결정판!

아주 간결하고 쉬운 언어로
명쾌하게 써내려간 깨달음 공부의 안내서!

누구나가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가도록 이끄는 책!

백창우 저 | 국판변형양장 | 316쪽 | 값 15,000원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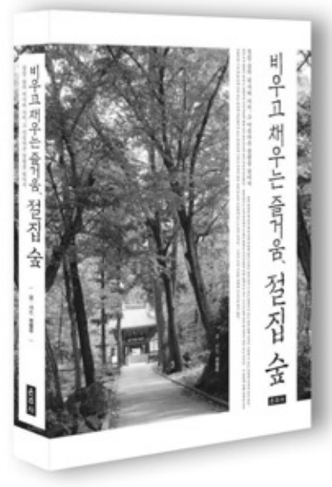
우리 땅 곳곳에 자리한 절집 숲 24곳에 대한 답사기!

비우고 채우는 즐거움, 절집 숲

산림학자이자 숲 해설가인 전영우 교수와 함께하는 절집 숲 이야기!

절집 숲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 생태적 문화유산이자
선조들이 우리 후손에게 물려준 매력적인 선물이다.

경쟁과 속도에 지친 현대인에게 마음의 풍요와 안식을 제공하는 절집 숲,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향유할 수 있는 우리의 전통문화경관이자
아름다운 자연유산, 220여 컷의 풍광 사진과 인문학적 깊이가 있는 글은
독자로 하여금 절집 숲의 정취에 흠뻑 빠져들게 할 것이다.



전영우 저 | 사륙배판 변형 | 컬러 | 396쪽 | 값 23,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주문 (02) 3672-7181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빛과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꽃이 있듯이 실천이 따르는 사람의 말은 그 메아리가 조용히 그리고 멀리 울려퍼진다. - 법구경 -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마다 한 알씩 꿰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 멸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 염주세트키트 : 108염주 (10mm) 마감용 염주 1개(10mm) 모주 1개(12mm), 줄(살색), 코핀1개, 팬던트, 이쑤시개


2 염주 하나하나를 줄에 끼웁니다. 가끔 구멍이 막혀있는 염주는 준비물 중 이쑤시개로 해결합니다


3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주(구멍이3개) 양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줍니다.


4 수직으로 나와있는 모주의 구멍에 코핀을 이용하여 두 개의 줄을 빼냅니다.


5 끝부분까지 빼냈으면 3회 정도 힘껏 매듭을 합니다. 매듭부분이 모주 구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6 모주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감용 염주로 통과시킵니다.


7 마감용 염주를 통과 시킨 두 줄에 팬던트를 끼워서 다시 마감용 염주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8 이때 팬던트와 마감용 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겨두고 모주와 마감용 염주사이는 5mm정도 남겨둡니다.


9 두 줄로 2회 앞뒤로 가볍게 매듭을 만듭니다.


10 다시 매듭을 3번 힘껏 조이면 됩니다.


11 가위로 2mm정도 남겨두고 자른 후 라이터로 살짝 지져서 손으로 가볍게 눌러줍니다.


12 108염주 완성

실용신안특허출원
20-2011-0003592
20-2011-0004171
20-2011-0005656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 02)2004-8214 DAUM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이상하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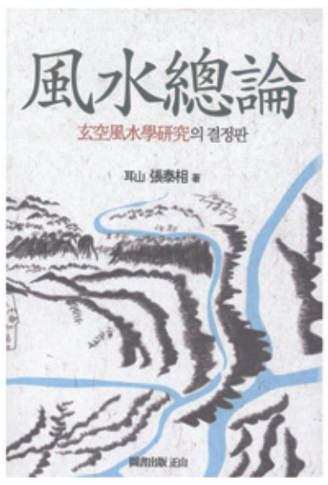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첫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첫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 세로3.5㎝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북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장,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비결

풍수총론(風水總論)

오묘불가사의한 현공풍수의 비밀을 완전히 해석한책



- 현공풍수 지리학
- 양균송 삼합수법
- 황제택경 개론

산에 올라 혈자리를 찾아 이리저리 헤메는 지사는 참다운 지사가 아니다.形氣를 보고 바로 쫓아 올라가 理氣로 증명하는 한국 풍수학계의 최고봉 장태상 교수의 역작!!

불교TV에서 풍수 강의 중
동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저자 : 耳山 張泰相 책값:37,000원

구입문의 : 도서출판 정산(正山) / (주)한메소프트 02)879-2007 입금계좌 :신한은행 100-023-357023 (주)한메소프트
온라인 구매 : www.jsbook.co.kr 에서 검색 후 구매 가능

열기 차단 아이스 쿨 스카프

더위탈출! cool-scarf

"물에 3~10분 담가 목, 머리, 팔목을 하루 종일 시원하게"

여름철 사찰법회, 수련회, 여름불교학교 등 야외 활동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아이스스카프란?

스카프 내부에 아이스 냉매재가 들어있어 물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띠모양을 한 스카프는 목외에도 헤어밴드나 아대처럼 다른 부위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용방법

1. 쿨스카프를 물에 넣어 알맹이가 들어있는 부분을 물에 담급니다.
2. 3~10분 담가놓으면 아이스폴리머가 적당히 팽창하면 골고루 펴줍니다.
3. 둥글게 팽창한 후에 물기를 살짝 닦아 목, 이마, 손목에 묶어 사용합니다.
   • 냉장실에 넣어 두었다 사용하시면 더욱 오래갑니다.
   • 지나치게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마시고, 세탁은 손세탁하십시오.

◇소 재 : 기능성 폴리에스터, 면
◇내용물 : 고분자 아이스 폴리머
◇사이즈 : 길이 108cm, 폭 5.5cm, 냉각부분 43cm
◇무 게 : 16~20g, 사용시 중량 200g



30개 이상 주문가능 (택배비 없음)
일반형 **4,000**원 (시중가 5,000원)
고급형 **5,000**원 (시중가 6,000원)
※주문하실 때 상품번호(예, 고급형 Ⓐ형)를 알려주십시오.

문의)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거제도 총명사 아미타후불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마음의 빗장을 풀다

진정으로 자신이 행복을 원한다면 스스로 마음의 빗장을 풀어야 한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한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속에 담겨있는 온갖 번뇌를 버려야 한다.

〈차 한 잔의 선물〉은 항상 바쁘고 지쳐있는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빗장을 열게 해 주는 책이다. 책은 부처님의 말씀을 가득안고 있는 고요한 아침 산사를 거니는 듯 한 여유를 안겨준다. 이름 모를 풀과 꽃들이 향기를 전하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을 때, 잠시 쉬어가라고 자리를 내어준다. 서슬 퍼런 젊은 날의 고뇌들을 한 번쯤 돌아보게 하며, 스스로에게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에 대한 화두를 부여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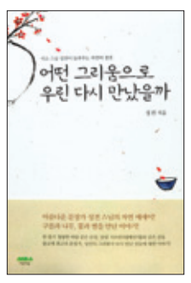
차 한 잔의 선물 | 자영 지음 | 미네르바 펴냄 | 1만800원 이은정 기자

마음을 치유해 주는 자연의 경전

라디오 스타, 불교계의 글쟁이, 아름다운 문장가, 미소스님…. 이 모든 수식어는 바로 용문사 주지인 성전 스님에게 따라붙는 말들이다. 성전 스님은 최근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줄 자연 에세이집을 출간했다.

〈어떤 그리움으로 우린 다시 만났을까〉는 스님만이 만들어낼 수 청량한 자연의 경전이다. 강, 구름, 바람, 햇빛, 별, 꽃, 산에게 저자 스스로가 끊임없이 물을 던지고 고뇌하고 반성하며 얻는 답들이다. 책을 어렵지도 길지도 않은 글들로 구성됐으며, 지시문이나 강한 메시가 담겨 있지도 않다.

스님은 법정 스님을 잇는 불교계의 문장가로 알려져 있다. 특유의 아름다운 문장과 자연과 삶에 대한 찬미는 현대인들이 꼭 한번 읽어야 할 경전이다. 나무와 꽃과 구름, 바람과 햇빛, 밤하늘의 별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들은 마치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와 같은 잠언과 같다.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이야기들이 명쾌하면서도 간다하게 서술돼 있다.



어떤 그리움으로 우린 다시 만났을까 | 성전 지음 | 마음의 숲 펴냄 | 1만4800원 이은정 기자

우리가 '쥐 신세'를 면하려면

어른들을 위한 동화 '마하무스 이야기'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양 이 꼴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쳇바퀴 돌 듯 똑같이 되풀이 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 쥐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쥐들은 늘 뭔가를 쏜다. 이 쏘는 일은 한시도 멈출 수 없는 현실이자 멈추어서도 안 되는 숙명이다.

생쥐 마하무스는 이 일을 지긋지긋해 하며 거부한다. 마하무스는 쏘는 일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고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기 일쑤다. 쥐 주제에 자기 분수도 모르고 늘 딴생각만 하는 이런 마하무스를 다른 쥐들은 '별난 쥐, 게으른 쥐, 못난 쥐' 로 치부한다. 마하무스가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다.

마하무스는 하루하루 목숨을 연명하기에 급급한 쥐들과 달리 앞날을 위해 식량을 비축할 생각을 해낸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자신만의 창고를 마련한다. 하지만 큰비가 와서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그와 더불어 자기 형제 쥐나 다른 쥐들이 뱀이나 솔개같은 포식자들에게 속절없이 목숨을 빼앗기는 일을 끊임없이 목격한다.

마하무스는 의문에 휩싸인다. '왜 자신의 노력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물거품이 돼야만 했을까? 왜 쥐들은 이토록 힘없는 존재로 태어나 허무하게 생을 마감해야만 하는가?' 자신의 현실과 존재에 대한 의문이 깊어질수록 마하무스는 멍하니 생각에 잠기는 일이 더욱더 잦아진다. 그러던 중 마하무스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그 소리가 진짜인지 확인하려고 다른 쥐들에게 물어보지만, 오히려 비난과 따돌림을 받고 심지어 미치광이 취급까지 당한다.



그렇게 외톨이가 돼버린 마하무스에게 어느 날 운명처럼 스승 '두루밝은 빛' 이 나타난다. 그는 마하무스의 귀에만 들리는 소리의 정체를 단번에 알아맞히고, 함께 여행을 떠날 것을 제안한다. 그리하여 마하무스는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길, 자신이 궁금해 했던 삶과 존재의 모든 비밀이 낱낱이 밝혀지는 여정에 오르게 된다.

〈마하무스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쥐들의 세상은 인간 세상의 축소판이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살아남기 위해 하루하루를 영위할 뿐인 연약하고 두려움 많은 쥐들은, 굳어버린 습관과 눈앞의 현실에 얽매인 채 늘 불안과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초라한 우리의 자화상이다. "쥐 주제에"라거나 "자기 분수를 알고"라며 "쏘는 일"에만 매달리는 쥐들처럼, 우리 또한 자신의 처지에 안주하거나 현실에 매몰되기 십상이다. 그렇기에 만일 마하무스처럼 '나는 왜 쥐로 태어났는가, 나는 어째서 이렇게 밖에 살 수 없는가, 무엇이 나를 이렇게 살도록 만드는가?' 라는 의문을 품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쥐 신세' 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인간세상의 축소판을 말하는 〈마하무스 이야기〉

〈마하무스 이야기〉는 이처럼 자신의 현실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고 한계를 벗어나고자 꿈꾸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것이 우리 자신과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일깨운다. 마하무스는 다른 쥐들의 비난과 우려에도 굴하지 않고 주어진 틀에서 벗어나 '딴 생각' 을 한다.

마하무스는 새롭게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짐으로써 쥐라는 껍데기를 깨고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향해 나아간다. 지혜로운 멘토 '두루밝은빛' 은 마하무스로 하여금 자신이 "그저 한 마리 볼품없는 쥐"가 아니라, 쥐로 살기로 선택한 영혼이자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임을 깨닫도록 이끈다.

이 책은 자신의 삶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이 선택한 것이며,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자신이 뿌린 씨앗의 결과이며, 따라서 자신이 그리고 꿈꾸는 세상의 창조주도 바로 자기 자신임을 일깨운다. 그리하여 자신을 옭아매는 모든 틀과 장애를 깨고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돼 현실을 변화시키고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용기와 힘, 지혜와 길을 제시한다.

마하무스 이야기 | 유영일 지음 | 김우선 그림 | 아름드리미디어 | 1만2000원 이나은 기자

이야기가 담긴 현판

사찰에 가면, 남루해 보이는듯 한 사찰의 현판(懸板)을 쉽게 볼 수 있다. 볼품없고 판자 쪼가리에 불과해 보이는 현판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현재 '불교신문' 의 논설위원으로 활동 중인 〈한국의 사찰 현판3〉의 저자 신대현 씨는 "사찰의 현판은 다양하고 많은 기록물을 남기고 있으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숨은 이야기가 많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현판은 그 절의 지나온 역사의 일단을 알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고 강조한다. 현판은 중수나 중건을 기념해 그 일이 일어난 배경과 과정, 그리고 불사가 완결된 상황을 상세히 전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차 사료가 된다. 사찰을 연구하다 보면 구전 외에는 참고할 만한 문헌자료가 없는 현실에서 현판은 귀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또한 저자는 "현판에는 불교사 연구에 필요한 역사가 담겨 있어, 금석문과 문헌을 아우르는 중요 사료로 재인식 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당시 사회의 평범한 사람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찰이라는 공동체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펼쳐져, 일반 사람들이 읽어도 재미가 넘친다. "현대에는 '스톨리텔링' 이 유행하고 있는데, 현판에도 한 편의 시나리오처럼 극적인 스토리들이 많이 담겨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저자는 이미 1,2권을 통해 스토리가 담긴 현판들의 이야기를 말해왔다. 3권에서는 앞서 두 권에서 밝혔던 현판의 의미에 더해 보다 더 다양한 현판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북한사찰의 현판에 관해서도 소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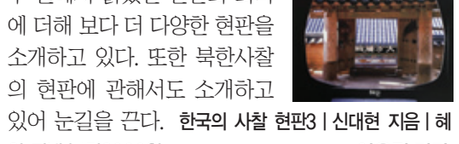
한국의 사찰 현판3 | 신대현 지음 | 혜안 펴냄 | 1만3000원 이은정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6~12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기도	법륜	정토
2	힘내라 청춘	법륜	정토
3	스님은 사춘기	명진	이솔
4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경전 구절	이진영	불광출판사
5	현재 이 순간에 머물기	인경	명상상담연구원
6	명쾌한 깨달음	백창우	운주사
7	선재 스님의 이야기로 버무린 사찰음식	선재	불광출판사
8	마음의 비밀 1	성운	토방
9	어떤 그리움으로 우린 다시 만날을까	성전	마음의숲
10	콘사이스판 불교사전	김승동	민족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어디까지 채워야 행복해지겠습니까?

소유에 목마른 현대인들을 위한 냉수 한 잔

법정 스님의 〈무소유〉가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무소유' 는 점차 우리시대의 화두가 됐다. 물질만능시대에서 '무소유' 사상은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신선한 충격을 안겨줬다. '무소유' 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현대인들은 이 '무소유' 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시켜야 하는 것일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 2010년 10월부터 6주 동안 서울 정동프란치스코회관에서는 '우리시대 무소유를 묻는다' 를 주제로 즉문즉설 형식의 대중강연이 열렸다. 강연에는 환경운동가 지율 스님, 공동체 운동가 박기호 신부, 진보운동가 이남곡, 시골교회의 임락경 목사, 요가수행단체 '아난다마르가' 의 칫다다, 민들레 국수집 사장 서영남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대표인물로, 강연을 통해 우리시대의 무소유 길을 묻고 대답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물질 없이 살아갈 수 없다. 이들 모두는 무소유에 관해 공통적으로 "'무소유' 란 단순히 아무것도 갖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무소유는 물질과 마음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사는가에 따라 그 규정이 달라진다. 단순 · 소박함을 고집하는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물질적 소유가 더 중요하게 여겨질 것이고, 물질을 통한 마음의 소통에 의미를 두는 사람에게는 물질의 분배가 더 중요하게 여겨질 것이다.



예로 억만장자이지만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끊임없이 물질의 사회적 소통을 실천하는 사람도 무소유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다. 강연자들 역시 각자의 삶의 궤적에서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민' '진리를 추구하는 집요한 의지' 등이 무소유임을 공통적으로 밝혔다.

6명의 강연자들은 나를 비울 때 비로소 내가 사는 세상을 사랑으로 채울 수 있고, 그것이 결국 영원한 행복, 지복으로 가는 길임을 각자의 삶을 통해 들려준다. 또한 이들의 이야기는 로또복권을 긁는 사람부터 개발에 목숨 건 정치인까지 불행의 늪으로 빠져드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한다. 결국 '무소유' 가 개인적인 안빈낙도의 가치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할 미래임을 말해준다.

소유에 목마른 현대인들을 위해 냉수 한 잔을 건네는 듯 한 여섯 현자의 메시지들은 〈비워야 산다〉라는 책으로 다시 만나볼 수 있다. 본래 강연은 '생명평화결사' 가 매년 실시하는 기획 강연으로 우리 사회의 정신적 사표가 되는 선지식을 모아 시대의 화두를 생각해보는 자리다.

비워야 산다 | 지율 · 박기호 · 이남곡 · 임락경 · 칫다다 · 서영남 지음 | 휴 펴냄 | 1만5000원 이은정 기자

수불 스님과 함께 한 중국 강호江湖 12 선찰禪刹 순례기



※신국판 변형, 304쪽, 올컬러, 값 15,000원
사진가 유동영의 생생한 사진으로 공안의 역사 현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禪여행 글 · 정찬주



※신국판 변형, 336쪽, 올컬러, 값 15,000원
사진가 윤명숙의 생생한 사진으로 공안의 역사 현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과학시대가 바로 禪의 황금기

불교적 사유로 웅숭깊은 글을 써온 소설가 정찬주가 선의 황금시대를 연 중국 강호(장시 성과 후난 성)의 대표적 선사들이 주석했던 열두 사찰을 순례했다. 안국선원 수불 선원장 스님과 그 재가 불자들이 함께한 순례에서 순례일행은 천년의 시공을 넘어 선사들과 조우하며 행복한 구도의 향연을 펼친다. 저자는 아인슈타인이 "자연의 세계와 정신적인 세계를 모두 포함하면서, 자연과 정신 모두의 경험에서 나오는 종교인 불교야말로 현대과학의 요구에 부합하는 종교"라고 말한 것처럼 그리고 수불 스님의 말씀대로 선의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고 공간의 제약을 넘어 쉽게 옛선사들의 발자취를 접할 수 있는 21세기 과학시대가 바로 선의 황금기라고 주장한다.

일주일만 앉을 수 있으면 당신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이 책은 4세기에 걸친 선의 황금시대 진면목을 저자의 빼어난 안목과 수불 스님의 친절한 해설을 통해 보여주며, 순례 일행의 선 체험 이야기와 함께 일주일만 앉을 수 있으면 행복할 수 있는 전광석화 같은 수불 스님의 가르침을 전한다.



수불 스님의 법문을 경청하는 저자 정찬주. 수불 스님은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조사와 공안의 역사 현장에서 수시로 법석을 펼치며 순례일행의 눈을 열어주었다.

뜰 앞의 잣나무 글 · 정찬주

초조 달마에서 육조 혜능, 조주, 임제, 운문선사의 벼락같은 깨우침
중국 10대 선사의 삶과 자취를 따라 허베이河北, 허난河南, 안후이安徽, 후베이湖北, 광둥廣東까지
광활한 중국 대륙 2,000Km를 세 차례 종단한 소설가 정찬주의 혼이 담긴 禪순례 이야기.
현장에서 취재한 새롭고 친절한 禪 입문서

미들하우스

tel. 02. 333. 6250 미들하우스

타고르 심취한 소녀 팔순에 박물관 열어

김양식 원장(한·일문화연구원) 인도박물관 개관

"평생의 염원이었어요. 인도를 직접 방문하고 나서는 문화적 충격을 받았죠. 고향에 돌아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 소녀가 10살 때 오빠의 중학교 교과서에서 인도 시인 타고르의 시 '초승달'을 읽고 시를 쓰며 막연하게 인도를 동경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1975년 아시아시인대회에 참가해 인도를 갔다가 '바로 이곳이구나!' 생각하고 40여년간 인도를 오가며 모은 수집품으로 박물관을 열었다.

한(韓)·인(印)문화연구원 김양식 원장(80·사진)이 7월 2일 서울 서초동에 '인도박물관'을 개관했다.

40여년간 인도를 방문하며 한두 점씩 수집해온 김 원장은 약 330㎡(100평) 공간에 조각, 공예, 회화, 현대미술품 등 1000여 점을 순차적으로 전시한다.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한 김양식 원장은 1969년 〈월간문학〉으로 등단한 시인이다.

그는 인도 문학과 예술에 심취해 인도를 공부하고 방문하면서 세월을 보냈다. 마흔이 넘은 나이에 동국대 대학원 인도철학과에 들어가 'R. 타고르작품에 나타난 우파니샤드 사상'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1년 한인문화연구원을 창설한 그는 〈기탄잘리〉 〈초승달〉 등 타고르의 저서를 포함해 다수의 인도 문학 작품을 한국어로 번역하기도 했다.

김 원장은 2002년 인도와 한국의 문화·예술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해온 것을 인정받아 인도 정부에서 시행하는 '빠드마 슈리상'을 받았다. 이는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사람에게 수여하는 우리나라의 국민 문화훈장과 같은 상이다.

일찍이 인도의 시성 R. 타고르의 시편을 통해 인도를 동경해오면서 인도인의 삶 자체가 바로 인도의 사상이며 종교, 철학임을 알게 된 김 원장은 불교·힌두교가 형제지간이라고 생각했다.

"30년 전부터 매일 오전 4~5시에 기상해 기본적인 요가·명상 수행을 합니다. 〈반야심경〉 사경도 하구요."

김 원장은 여성재가불자 108인이 기도 하다. 집안은 독실한 가톨릭이지만 스스로를 불자라고 생각한다.

인도박물관 상설전시실은 종교, 공예, 생활문화를 주제로 전시하고 있다.

전시실에서는 삼지창과 뱀, 염주, 정병을 들고 있는 시바의 배우자이자 가네샤의 어머니인 빠르봐티 상(11세기), 날씬한 팔다리와 풍만한 가슴과 엉덩이를 과장되게 비틀고 있는 여인상(11세기), 사방불탑(10세기) 등 주요유물부터 각 지방의 텍스타일과 각종 민화, 인도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진 각종 공예품을 볼 수 있다.





① 시바신 조형물 앞에서 포즈를 취한 김양식 원장 ② 인도박물관 상설전시실 내부 모습 ③ 빠르봐티 상(11세기) ④ 사방불탑(10세기)

기획전시실은 인도 악기 전시 공간이다. 악기는 '땀부라' 등 인도 전통악기를 종류별로 거의 모두 소장하고 있어 인도 전통악기에 대해 알 수 있다.

매달 둘째·넷째 수요일 저녁에는 기획전시실에서 인도 영화를 상영할 계획이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도 민화 그려보기 등 체험교실도 운영한다.

"수집품들이 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더 나이 들기 전에 많은 사람들과 인도문화를 공유하고 싶었어요."

한국 고전 춤을 시로 쓰고 인도에세이 집을 발간할 계획인 김 원장은 "불자들이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의 문화와 예술을 마음껏 체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02)585-2185

이나은 기자

불교합창페스티벌에 참가하세요

7월 29일까지 조계종 문화부 접수

조계종 문화부(부장 진명)는 불교음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1 불교합창페스티벌'을 개최한다.

행사는 한국불교음악인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가 후원한다.

참가자들은 문화부에서 개발한 2011신작찬불가 합창곡을 지정곡으로 11월 6일 서울교육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합창경연을 벌인다.

참가자격은 20~60명 성인으로 구성된 사찰 및 불교단체 합창단으로 합창단원은 지속적으로 활동한 신도로 구성돼야 한다.

참가자들은 문화부에서 개발한 2011신작찬불가에서 반드시 1곡을 선곡해 참가하고 나머지 1곡은 2010신작찬불가 또는 기존 찬불가에서 선곡해 참여해야 한다.

참가방법은 조계종 홈페이지와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cafe.daum.net/lotussound)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7월 29일까지 총무원 문화부(우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45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또는 이메일(yungchang@buddhism.or.kr) 및 팩스(02-722-2606)로 접수하면 된다. (02)2011-1770

한편 문화부는 7월 5~6일 '2011 전국불교합창단 임원연수 및 총회'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합창단 임원들이 지역별 합창단 활동을 공유하고 불교음악 강의를 들었다. 이나은 기자

'자비의 길' 다큐멘터리 발간

주한인도대사관은 다큐멘터리 DVD '자비의 길(The Path of Compassion)'을 발간했다.

다큐멘터리에서 고대 불교 유적지를 묘사하며 고대 건축물과 예술작품을 통해 석가모니의 일화와 불교 발전의 발자취를 더듬는다.

다큐멘터리에서는 룸비니, 보드가야, 사르나쓰, 쿠쉬나가르 등 세계 4대 불교 순례지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그의 출생지를 비롯해 깨달음을 얻은 곳, 첫 번째 강론을 한 장소 그리고 마지막 금욕생활을 한 곳까지 석가모니 삶 전반의 생생한 순례의 길을 소개한다.

이 다큐멘터리는 불교의 율법인 데라바다(Theravada)와 마하야나 바즈라야나(Mahayana Vajrayana)의 전통에 대한 폭넓은 관점을 제시한다.


다큐멘터리 '자비의 길'의 한 장면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베노이 K 벨(Benoy K Behl)은 저명한 예술사학자이면서 사진작가이며, 동시에 불교 권위자이다.

아시아 예술과 문화 유산을 기록하는데 있어 선구자적인 업적을 세운 그는 세계의 여러 대학과 박물관, 불교사원에서 초청 강연을 했으며 유적에 관한 3만4000점 이상의 사진과 100편의 다큐멘터리를 촬영했다. (02)798-4257

이나은 기자



간다라 문화예술協 31일까지 사진전

간다라 문화예술협회(한국대표 윤덕)와 주한 파키스탄 대사관이 전시회를 연다.

'간다라의 영혼, 파키스탄의 불교문화유산'이란 주제로 7월 22~31일 조계사내 나무 갤러리에서 사진전을 개최한다.

전시에서는 파키스탄의 불교 유적지와 고대 순례승들이 파키스탄에 속한 실크로드상에 남긴 암각화 사진을 볼 수 있다.

이나은 기자

천진영 기자의 문화산책 ⑧ 덕수궁 휘트니뮤지엄 展

워홀의 '녹색 코카콜라'는 만민 평등

9월 25일 까지 덕수궁미술관에서 열리는 '이것이 미국미술이다, 휘트니미술관展' 개막식 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주한 미국대사, 주한 슬로바키아 대사, 주한 체코대사 등 서울의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부럽다. 불교계 미술 전시회에서 볼 수 없는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는 사회 인사들의 행보에 서운한 생각마저 든다. 그러나 부질없다. 열렬한 환호를 받지 못함을 시민들의 탓으로 돌일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휘트니뮤지엄은 '미국의 미술과 작가들을 지원'한다는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개관했다. 그런데 그 배경이 독특하다. 철도왕 밴더빌트의 손녀 휘트니 밴더빌트가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미국 작가들의 미술품을 메트로폴리탄뮤


앤디 워홀, 녹색 코카콜라 병(1962)

재산이 많다고 더 맛있는 콜라 먹을 수 없어 대중문화에서 찾은 평등

지엄에 기증하려다 거절당하자 설립했기 때문이다.

메트로폴리탄뮤지엄은 전통성을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유럽의 미술을 더 가치 있다고 평가해왔다. 이에 반대한 휘트니 재단은 자국의 예술가를 지원했고 이 같은 지원은 국제미술의 무대를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겨오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본인 소장 미술품을 공공 미술관에 기증 하려고 하고, 자국의 예술 발전을 위해 기꺼이 돈을 투자하는 이런 사회적 배경 속에서 미국 예술은 정체성을 갖고 성장할 수 있었다. 미국은 독립 이후에도 오랜 세월 동안 유럽의 문화의 식민지였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국의 문화의 우월함과 정체성을 증명 하려고 애썼다.

우리의 근현대도 오랫동안 일본·서양 문화의 식민지였음을 부정하기 힘들다. 게다가 한국불교미술의 정체성은 더욱 모호하다. 머지않은 미래에 '이것이 한국불교 미술이다'라는 전시를 할 날이 올 때 우리는 과연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 것인가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

전시회는 20세기 중반 미국 미술의 화두였던 팝아트가 눈길을 끈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팝아트 작가로는 앤디 워홀과 2008년 '행복한 눈물' 사건으로 유명해진 로이 리히데슈타인 등이 있다. 이들은 코카콜라, 만화, 대중문화, 패스트푸드 등 미국대중소비문화를 마술작품에 담고자 했다.

특히, 워홀은 코카콜라, 캠벨 스프캔, 마돈나 등 비슷한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유일한, 단 하나의 작품이라는 전통예술의 공식을 깨고 누구나 같은 제품을 구입 할 수 있는 대중소비문화를 표방했다.

워홀은 112개의 녹색 코카콜라 병을 판화작업으로 찍어낸 작품을 두고 "모든 콜라는 다 똑같다. 돈이 있다고 더 맛있는 콜라를 사 먹을 수 없다. 대통령이 마시는 콜라나 길거리 걸인이 마시는 콜라나 엘리자베스테일러가 마시는 콜라나 다 똑같다"고 말했다.

워홀은 미국을 대표하는 아이콘인 콜라에서 '누구에게나 평등한 콜라'를 찾아냈다. 평등한 콜라는 평등한 시민을 나타낸다. 만인 앞에 평등한 콜라. 소비의 평등. 이것이 우리가 열광한 미국미술의 가치다.

재미있는 사실은 평등한 콜라가 보여준 가치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설하신 부처님의 뜻과도 일맥상통한다는 것이다.





지혜의 샘

자-타-카 이야기 11

-원한을 맺은 원숭이들-

구성-김흥인









성범스님과 함께 보는 금강경

꽃은 시샘하지 않는다

행복으로 인도하는 부처님 말씀 – 밖에서 찾지 마세요.



저자 성범 스님

자신의 생각을 지키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강경을 읽는 사람은 어리석음에서 지혜로, 괴로움에서 행복으로, 작은 마음에서 큰마음으로 바뀌어 집니다. 또한 마음을 어떻게 써느냐에 따라 성인도 되고 범부도 되며 그리고 행복하기도 불행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이 책은 저자가 오랫동안 독송하면서 막혔던 부분을 쉽게 풀었기 때문에 그냥 어느 쪽이라도 펴서 읽으면 명상이 이루어지고 괴로움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행복은 나를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따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행의 근본이치를자세히 밝혀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고 불교공부가 재밌어지며 아마도 상당한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괴로움이 진실한 것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내 마음의 변화에 상관없이 존재해야 하지만 마음이 바뀌면 괴로움도 사라져 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인식만 해도 고통은 줄어들게 된다.
그 이유는 모든 고통과 분노와 슬픔, 그리고 기쁨 등의 감정은 모두가 마음이 만들어낸 망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망상에 지배당하지 않으면 그러한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구봉선원 – 대전 서구 관저동 1086(2층) / 042)543-3722

해성불원(海成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온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도록 발원 하옵니다.

베트남, 중국(한족),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결혼정보 초혼 · 재혼 –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궁합을 보고 궁합이 좋은 아가씨 자택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의심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자격 :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 1통, 갑근세 증명 1통, 전세 계약서 사본 1통)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성 있게 일괄 처리

국제결혼 서류대행
1. 번 역 3. 친지방문
2. 공 증 4. 국적취득신청
상 담 010-9955-9093

중년여성 일본 결혼 할 분

결혼 비용 일체 일본에서 부담

1. 본인이 여러 신랑을 맞선을 보고 자유선택
2. 일본은 인건비가 비싸 안마사, 지압사, 피부관리사 등 자격을 취득하면 월 5~6백만원 수입 절대보장
3. 기술은 1개월이면 취득할 수 있음
4. 기숙사 완비 되어 있음
5. 뜻이 있는 분 상담 받으세요
6. 불자님 절대 우대 넓은 세상을 보라

불교가족 선남 선녀 짝 지어 주기

불교 가족 중 과년한 선남-선녀들에 초혼 · 재혼자 신청하여 주시면 궁합을 보아 좋은 배필을 선정하여 맞선을 보도록 알선함. 년월일시는 음력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담당스님 **만 해** 합장

◆ 담당 : **만해 스님** 합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우.402-202 (**전등사** 내)
주 · 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 **070-8192-1661**
서울사무실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70아쟈빌딩1505호(해피씨티 내)



윤창화의 선원총림을 가다

1000년 전 그곳과 오늘 ㊳

선화(禪畵)와 총림의 정원(庭園)

선원총림은 그 자체가 극락세계



이상배 화가 作, 수락산 내원암

禪사상 담은 사찰 정원
한 · 중 '저연', 일본 '인위'
정원 뿌리는 중국, 일본서 발달

선화(禪畵), 선미술

'선화(禪畵)'는 선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미술적 기법을 통해 진리의 세계를 나타낸 것으로 '선미술(禪美術, Zen Art)' '선종(禪宗) 미술'이라고도 한다.

선화는 선(禪)이 모태가 된다. 선화에는 몇 가지가 있다. 선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 선문답의 내용을 담은 공안화(公案畵), 보리달마 등 선승의 모습을 그린 초상화, 깨달음의 경지를 묘사한 것 등이 있다.

한편으로는 그 영역과 장르가 애매모호한 것이 또한 선화의 세계이다. 단정적으로 어떤 것을 '선화'라고 말할 수 없지만, 넓은 의미에서 선(禪)과 관련된 것이라면 다 선화라고 할 수 있다. 화단에도 선화가 있지만 딱히 한 장르로 정착돼 있지는 않은 듯하다. 특히 요즘에는 그냥 묵(墨)으로 객기(客氣)처럼 휘둘러 놓고서, 그것을 '선화(禪畵)'라고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선이 대중에게 매우 매력적이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아무 곳에나 갖다 붙인다고 해서 그것이 선문화나 예술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전해지는 선화의 종류는 선의 초조인 보리달마의 모습을 그린 '달마상' 이조(二祖) 혜가(慧可)의 구도심을 담은 '설중단비도(雪中斷臂圖)' 한산(寒山)과 습득(習得)의 기행을 그린 '한산습득도' 마음을 찾아가는 과정을 소를 찾는 것에 비유한 '심우도(尋牛圖)' 달마가 갈대를 타고서 중국으로 건너왔다는 '절로도강도(折蘆渡江圖)' 여산 혜원의 '호계삼소(虎溪三笑)', '포대화상도' 그리고 육조혜능이 행자 때 8개월 동안 디딜방아를 찧었다는 그림 등이 있다.

선미술은 균제(均齊)의 미(美)를 깨뜨린 불균제의 미(美)를 특질로 한다. '졸(拙)의 미(美)'라고도 할 수 있다. 굵은 선(線)으로 한 번에 그려버린 듯한 보리달마의 모습이나 기이한 모습의 '한산습득도', '호계삼소(虎溪三笑)' 같은 것이 그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불균제'란 미완의 뜻이 아니고, 정형성을 깨뜨린 그러나 군더더기 없는 '완전의 미(美)'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다.

선화의 핵심은 탈속(脫俗)에 있다. 탈속한 맛이 없다면 선화, 선미술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고 마음 내키는 대로 휘두른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높은 미술적 기법을 가진 작가가 그 미술적 기법에 구애됨 없이 언어문자로 표현된 선의 세계, 선의 경지를 그렸을 때 비로소 선화가 된다. 번뇌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해탈의 경지를 그림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화가 자신이 선심(禪心)이 되지 않고서는 어렵다.

선미술의 색채는 단순 소박해야 한다. 화려함을 절제하고 수묵(水墨) 하나로 그려야 한다. 수묵은 그 성질 자체가 마음을 청정하게 하지만 농염(濃艶)은 번뇌를 점점 증식시킨다. 선화에는 공간의 여백이 많아야 한다. 꽉 채우는 것은 욕망으로서 세속의 그림이다. 그것은 공(空)이 아니며, 무소유, 무집착이 아니다. 단순함은 심신(心身)이 탈각된 상태, 그것이 곧 선이 추구하는 목표이다. 선화는 단순하지만 힘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선화의 생명이기도 하다.

〈벽암록〉에 등장하는 달마의 확연무성(廓然無聖), 마조도일의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 평상심이 바로 진리), 운문의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 날마다 좋은 날), 조주의 정전백수자(庭前栢樹子; 뜰 앞의 잣나무), 방 거사의 호설편편(好雪片片; 내리는 눈, 조각조각 아름답구나), 만법귀일 일귀하처(萬法歸一 一歸何處; 모든 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구지화상의 한 손가락[俱胝一指], 경청우적(鏡淸雨滴; 경청화상, 창밖의 빗소리를 듣다) 등 이런 공안을 선화로 표현한다면 선미술의 세계는 다른 차원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선화의 시조는 왕유(王維; 701~761)이다. 왕유는 성당(盛唐)의 시인으로서 '시불(詩佛)'이라고 불렸다. 북송(北宋)의 시인 소동파(蘇東坡)는 왕유의 시를 일컬어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다[詩中有畵, 畵中有詩]"라고 표현했다. 지금은 없어져 전하지 않지만 왕유가 그린 설중파초(雪中芭蕉; 눈 속의 파초)는 선화의 문을 연 명작이라고 한다. 파초는 비가 오는 여름이 돼야 잎이 무성하게 피는데, 한 겨울 '눈 속의 파초[雪中芭蕉]'란 논리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을 '불가사의(不可思議)'라고 하는데, 불가사의란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언설(言說)로는 표현할 수 없다는 뜻이다. 곧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깨달음의 세계, 선의 경지를 말한다. 17세기의 화가이자 문인인 동기창(董基昌)은 그의 화론(畵論)에서 왕유를 남종화(南宗畵)의 시조로 규정했다.

선종사원의 정원

우리나라 선원이나 사찰의 정원 가운데는 딱히 '사원 정원(庭園)'이라 부를만한 것은 없다. 봉암사 등 이름 있는 선원도 마찬가지지만,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등 총림도 정원이라고는 도량에 불두화(佛頭花) 등 꽃나무 몇 그루 있을 뿐이다. 물론 이것은 주변의 자연 경관이 아름다워서일 것이다.

그래도 우리나라 사찰 가운데서 정원이 가장 잘 조성돼 있는 곳을 들라면 주저할 것도 없이 황악산 직지사일 것이다. 직지사 정원은 우리나라 사찰 가운데서도 보기 드문 정원이다. 특색은 산지가람(山地伽藍)인데도 도량 한 가운데로 비스듬하게 물길을 만들어 물을 끌어 들인 점이다. 물은 제법 맑은 소리를 내면서 대웅전 마당 앞을 지나 그 아래 절 입구까지 이어진다. 가히 일품으로 소동파(蘇東坡; 1036~1101)의 시(詩)를 연상케 한다.

계곡의 물소리는 드넓은 부처님의 말씀[溪聲便是廣場舌]
산색은 그대로 청정한 법신[山色豈非淸淨身].

직지사 도량은 전체가 하나의 자연스러운 정원이다. 초창기에는 인위가 가해졌겠지만, 지금은 오래돼 인위적인 자취는 사라지고 나무 한 그루, 돌 하나도 그대로 주위의 자연과 어우러져 하나가 되어 있다. 특히 세속적이지 않아서 산사(山寺) 정원으로서는 모델이 될 만도 하다. 직지사 주승(住僧)의 마음이 선심(禪心)과 같아서가 아닐까?

선종사원의 정원이 유명하기로는 단연 일본이다. 일본 교토(京都)에 있는 임제종 대본산 톈류지(天龍寺)와 료안지(竜安寺), 킨카쿠지(金閣寺), 다이토쿠지(大德寺) 등 선종사원의 정원은 말 그대로 지상에서 선계(禪界)를 드러내고 있다. 한번 들어가면 영영 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을 듯하다. 특히 '카레산스이[枯山水; 마른 산수]'라고 하여, 돌과 모래로만 산수(山水)를 표현한 석정(石庭)은 일본 선종사원에서만 볼 수 있는 특색이다. '석정'이란 '돌 정원'이라는 뜻으로 써래로 모래를 손질해 흐르는 물결을 표현하고 수목이나 바위로 섬이나 산을 표현해 고요와 자연을 나타낸다.

그 가운데서도 톈류지[天龍寺]의 방장(方丈) 정원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료안지(竜安寺) 석정(石庭), 고야산 고곤부지(金剛峰寺) 석정 그리고 다이토쿠지(大德寺) 석정은 모래와 돌로 산수를 표현한 카레산스이[枯山水] 석정(石庭)의 최고봉이다. 석정은 적적(寂寂)을 목적으로 하는 선(禪)과도 일치한다. 비록 극락은 아니지만 선승이 머물기에 이보다 아름다운 곳이 다시 또 있을까?

중국 선종사원 가운데 정원이 뛰어 나기로는 항주 영은사(靈隱寺)가 있다. 영은사 정원은 남송 때부터 이름이 나 있는데, 범위가 넓고 서호(西湖)를 끼고 있어서 지금도 항주 사람들의 안식처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동양 3국의 사찰정원을 비교한다면 중국과 한국은 자연적이고, 일본은 인위적이다. 그러나 인위적이라고 해서 격하시킬 것은 아니다. 일본 사람들은 인위적으로라도 정원을 만들어 선의 세계를 표현하고 감상하는 것을 선호했고, 중국과 한국 사람들은 자연적인 것을 더 선호했을 뿐이다.

선종사원의 정원은 중국이나 한국보다는 일본에서 크게 발달했다. 그러나 그 원류는 중국 선종사원에 뿌리를 두고 있다. 중국은 이미 고대부터 드넓은 천자의 궁(宮)에 정원을 만들어 산수(山水)를 향유했는데, 송대에 이르러 선불교가 크게 발전하면서 선종사원에서도 경내(境內)에 정원을 조영(造營)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조성한 것은 아니다. "전국의 명승지는 모두 명찰이 차지하고 있다"는 중국의 옛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원은 주로 명승지에 자리 잡고 있었다. 특히 항주 서호 주변에 있는 영은사와 정자사 경관이 이름 있고, 영파에 있는 천동사 경관도 손가락에 꼽힌다. 천동사는 '천동10경(天童十景)'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였다.

남송시대 5산 10찰을 포함한 선원총림의 정원은 매우 아름다워서 문인(文人), 명사(名士)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는데, 그들이 선종사원을 찾은 것은 정원 속에 선(禪)과 시(詩)가 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 예로 남송의 첫 황제였던 고종(高宗)은 1127~1161년까지 무려 34년 동안 재위했는데, 퇴위 후에는 5산 가운데 하나인 항주 영은사(靈隱寺) 경내의 냉천정(冷泉亭)에서 여생을 보냈다.

"문을 열고 나가면 산수가 다가오고[出門見山水] 문을 열고 들어오면 불전이 보였으니[入門見佛殿]"

선원총림은 그 자체가 그대로 극락세계였던 것이다.



윤창화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hanghwa9@hanmail.net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 입금계좌: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2000만 佛子님의 필수품 디지털 불경 뉴룸비니
불자님들의 心琴을 울린 효동선각스님의 독경이 가까이 있습니다
2011년형 뉴룸비니 탄생기념 특별 할인 판매 대 행사
최고의 명품! 선물로도 최고!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불경역시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세롭게 탄생한 디지털 불경 재생기 '뉴룸비니'
국내 처음으로 휴대용 디지털 불경 룸비니를 제작하여 시판에 들어가 선풍적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으며 이에 보답하기 위하여 기능이 더욱 향상된 2011년 최신모델을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합니다.
뉴룸비니는 담배곽 크기만 하고 가벼워 휴대하기가 편하며 불자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테이프나 CD가 없어도 듣고 싶은 불경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뉴룸비니에 관음도가 있어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 불자님의 수호신 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효동선각 스님의 독경을 듣다보면 모든 근심 걱정 번뇌가 소멸되며 일념무아 됩니다. 독경은 타고난 바리톤 음성으로 각종 불교 행사에서 인정받고 있는 효동선각 스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독경을 진행 하셨습니다. 스님은 무형문화제 50호 故송암스님의 수제자로 양산 통도사로 출가하여 백양사,법주사,용주사에서 수행하셨고 서울 효동 범음대학 4년 수료와 중앙승가 대학을 졸업하시고 현재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 석사과정을 이수 하셨습니다.
(규격 8.5x5.2x2.0cm) 가격 34,000원(건전지포함)
※룸비니에 관음도가 있으므로 늘 휴대 하시면 수호신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2011년형 뉴룸비니 탄생기념행사로 200set 한정 특별할인판매
팩키지 1 뉴룸비니, 아답터(가정에서 전기사용)특별가 37.000원
팩키지 2 뉴룸비니, 아답터, CD 2개 특별가 45.000원
팩키지 3 뉴룸비니, 아답터,테이프 3개, CD2개 특별가 54.000원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문의전화 (02-723-9184)
입금계좌 농협(170-12-056037 정애영)
1,000set 이상 주문시 스님의 독경 및 법문을 입력시켜 드립니다. (독경, 법문 녹음CD가 필요 합니다.)



한국구술인물사⑬ / 전 재 성 빠알리성전협회 회장

시위 보다 펜의 힘이 컸다

최동순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비록 무혐의로 풀려나긴 했지만 일련의 과정에서 전재성은 일그러진 우리 사회를 목도한다. 그는 민청학련 가담자에 대불련 회장이며 민중불교회 사건으로 감방생활을 했던 터라 수사관들이 항상 관찰하는 요주의 인물이었다. 시위가 벌어질 기미만 보이면 전재성은 사전 구금당했다. 허약한 체질에 반복되는 구금이 이뤄지자 그는 현장운동보다 집필을 통한 운동을 시작한다. 민중불교운동의 이념적 근거를 찾아내고자 관련 서적들을 파고들었다.

1976년 최연은 전재성에 이어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에 피선됐다. 최연은 중앙대 출신으로 전재성 회장 때 총무부장을 역임했다. 또 최연은 연구조사국(국장 이현주)을 도와 민중불교운동의 근거를 찾기 위해 여러 번 모임을 주선한다. 이 때 전재성도 모임에 참여했고, 마침내 1976년 여름 수련회에서 '민중불교'를 주제로 발표하기로 했다. 장소는 전북 전주 부근의 송광사였다. 대불련 지도교수 중 한 사람이었던 동국대 인도철학과 원의범 교수는 전재성의 글을 보고 극찬한다. 둘은 전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김포공항에서 이야기를 나누느라 비행기를 놓쳤다. 결국 그들은 택시를 타고 서울에서 전주 송광사 소양캠프장까지 왔다. 전재성은 '민중불교론 서(序)'를 발표했다. 이어서 전보삼, 김유철, 배춘상, 최주홍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 때부터 그는 민주화를 위한 시위보다 집필을 통한 계몽운동으로 방향을 수정한다. 당시 전주 부근의 송광사에서 발표했던 〈민중불교론 序〉를 토대로 좀 더 보완해 불교 언론을 찾아다녔다. 그러나 불교권 어디에서도 전재성을 글을 게재해 주는 언론사가 없었다.

"황석영씨한테 그 때 제가 사실은 그 때 처음 쓴 글이죠. 그게 처음 쓴 글인데 그래서 그 〈민중불교론〉 안에는 제가 그 당시에 그 여러 가지 그 개인의 실존적인 문제 사회, 대 사회적인 문제, 그 다음에 또 불교의 그 당시에 위치, 뭐 또한 사회적인 모순 이런 것들 집약시켜가지고 그 때 글을 쓴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실어줄 데가 불교계에 없어가지고 그 때 황석영 씨를 제가 알게 되서 또 자주 황석영씨 집에 놀러 갔는데…."



대불련 본부가 있던 자리에 세워진 PJ호텔

그런데 〈민중불교론〉 원고가 황석영에게 전해진 이후 1년이 지나도 게재되지 않았다. 전재성은 원고를 돌려달라고 했다. 마침 〈대화〉 잡지의 편집장이었던 송건호(한겨레신문 창간) 선생이 1977년 10월호인 폐간호에 게재했다. 당시 지학순의 글 〈노동자 인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긴급조치 9호 위반에 해당하자, 〈대화〉 잡지는 폐간하게 된다. 이 때 전재성의 〈민중불교론〉이 지학순의 글과 동시에 잡지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반향이 좀 컸던 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때 또 지학순 주교가 '노동자 인권을 보장하라', 그 당시에 긴급조치 9호 서슬이 퍼런 긴급조치구호 상황인데 노동자 인권을 보장하라 그런 글을 실었으니까 당국에서 가만 놔두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두 도매급으로 넘어간 거죠 그 때 같이 잡혀 들어간… '민중불교론'이란 거를 실어가지고 두 개가 아주 큰 자막으로 잡지에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나온 지 한 일주일 만에 폐간이 됐지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나오니까 여러 가지 그 당시에 그 운동권 쪽에 불교쪽에 동대라든가 서울대라든가 이런데서 그 좀 양식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제 글을 보고 그랬던 거 같아요."

전재성은 시위보다 오히려 펜의 힘이 크다는 점을 알았다. 수많은 불교인들이 그의 〈민중불교론〉을 읽고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제석(帝釋)과 함께 떠나는 신화(神話) 여행⑤

등장인물 소개 1

어느 종교나 대개 '수호신'을 가지고 있다. 불교 역시 마찬가지다. 불교에서는 불법을 수호하는 여덟 수호신이 있는데 이를 팔부신장(八部神將)이라고 부른다. 이 중 천(天)·용(龍)을 으뜸으로 치기 때문에 천룡팔부(天龍八部) 또는 천룡팔부중이라고도 부른다. 이들은 본디 인도 고대 신화 속에 등장하는 존재들이었지만 불교에 흡수되면서 불법을 수호하는 신이 됐다.

사람인 듯 사람이 아닌 듯 '인비인(人非人)' 천룡팔부의 정체

이 팔부신장은 각각의 신통력에 의해 인간의 모습을 할 수는 있지만 인간은 아니다. 즉, 여덟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여덟 '명'인 것은 아니고 굳이 말하자면 여덟 가지 존재라고 보는 쪽이 더 정확하다. 인간과 같은 세계에 살기도 하지만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기도 한다. 이들의 존재는 화려한 수식어와 함께 흥미진진하고 장대한 분량과 규모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대승 불교 경전에 주로 나타난다.

특히 〈법화경〉에서는 도입부부터 천룡팔부를 소개하며, 나중에는 사갈라용왕의 딸 '용녀(龍女)'가 성불하는 모습이 상세하게 그려지는데 이때 천룡팔부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한다. "천룡팔부는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닌 중생(衆生: 감정이 있는 생명체)이다."

천룡팔부의 으뜸, 천(天)과 용(龍)

무협의 대가 김용은 또한 소설 〈천룡팔부〉에서 〈법화경〉을 출처로 여덟 존재를 소개하는데 이 소개에 따르면 가장 으뜸인 천(天)은 천신을 일컫는다. 이때 천신이란 바로 제석(帝釋)을 의미한다.

불교에서는 천신이라 하여도 완전무결한 존재가 아니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니고 있지도 않는다. 다만 인간과 비교해 보았을 때 훨씬 장수할 뿐 아니라 큰 힘을 지니고 있으며 많은 복을 누린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무상(無常)하다 하였으므로 제아무리 천신이라 하여도 수명이 다했을 때 찾아오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천신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 다섯 가지 징후가 나타난다고 한다. 이 징후를 살펴보면 인간이 죽음을 맞이할 때 나타나는 징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먼저 의복이 남루해지고 그 다음에는 머리 위에 꽃이 시들며 점차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나중에는 겨드랑이에서 땀이 나며 끝내는 마음속의 기쁨이 사라진다고 한다. 천신의 죽음과 그 징후를 통해 불교는 죽음 앞에서 모두 평등함을 똑똑히 보여준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뛰어넘어 '완전한 해탈'의 경지에 이른 아라한, 즉 부처야말로 신 '이'


도리천

섬기는 가르침을 담고 있는 지혜와 자비의 존재임을 강조한다.

두 번째 용은 용신을 의미한다. 불경에 나오는 용은 중국(동양) 전설 속에 등장하는 용과 전체적인 이미지가 매우 흡사하지만 전설 속에서 용은 발이 없다는 차이점이 있다. 자연을 신격화 했던 중국(동양)의 전설 속에서는 이무기가 천운을 만나 여의주를 얻으면 용이 된다고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동양인이 생각하는 용은 물속에 살면서 바람과 비를 다스리는 수호신으로써 불경에 나오는 용신으로 자리를 잡았다.

물속에 살면서 물을 다스린다는 점에서 불경과 동양의 용은 서양의 용과 확실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서양인이 생각하는 용은 동양인이 생각하는 용에 비하여 훨씬 비만한 몸매를 지녔으며 주로 입에서 불을 내뿜으며 산 속 깊은 곳에 사는 무섭고 사악한 존재로 그려진다.


조민기 작가 · 칼럼니스트

문무왕의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㊱ 불국사

불국사에서 통일신라의 불국토를 보다

신라불교초기부터 시작된 전불(前佛)신앙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발전해 진신상주신앙(眞身常住信仰)이 됐다. 진신상주신앙은 과거세로부터의 인연을 설하기 보다 신라의 국토가 불국토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삼국유사(三國遺事)〉의 '낙산이대성 관음 정취조신(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 조에는 의상 스님이 낙산에서 관세음보살을 만나 낙산사를 세우게 된 인연을 말하고 있다. '대산오만진신(臺山五萬眞身)'에서는 태자 보천과 효명이 기도할 때 오대에서 각각 일만의 관음, 세지, 지장, 나한 문수 등이 몸을 나투었다고 전한다.

'진신공양(眞身受供)'에는 효소왕(孝昭王) 때 망덕사(望德寺) 재회(齋會)에 석가모니불의 진신(釋迦眞身)이 나타났으며, '생의사 석미륵(生義寺 石彌勒)' 조에서는 미륵보살이 생의사에 나타났고, '어산불영(魚山佛影)' 조에서는 만어산(萬魚山)에 부처님의 영상이 나타났다고 기록돼 있다. 이런 기록으로

불국사는 불국토 신앙의 절정
김대성이 창건, 혜공왕 때 완성
신라인 꿈꾸던 불국토를 실현

볼 때, 신라인들은 신라의 땅을 불국토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불국토 신앙의 절정은 바로 경주 불국사(佛國寺)이다.

〈삼국유사〉의 '대성효이세부모(大城孝二世父母)' 조에는 경덕왕 10년(751) 당시 재상이던 김대성이 전세(前世)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창건했다고 기록한다. 하지만 김대성은 이 공사를 완공을 하지 못하고 사망했고, 이후 국가에 의해 완성됐다. 불국사는 혜공왕 10년(774)에 30여 년 만에 완성됐다.

불국사는 신라인이 꿈꾸던 불국토(佛國土)를 3갈래로 구현했다. 석가모니 부처님 세계와, 아미타불의 극락세계, 비로자나불의 연화장 세계가 모두 녹아있다. 불국사의 경내는 석단(石壇)에 의해 단상(壇上)의 불국토와 단하(壇下)의 속계(俗界)로 양분된다. 크고 작은 돌을


불국사

빈틈없이 쌓아올려 만든 석단에 청운교(青雲橋)·백운교(白雲橋), 칠보교(七寶橋)·연화교(蓮花橋)라는 2쌍의 다리를 놓았다. 청운교·백운교는 자하문(紫霞門)을 거쳐 석가모니 부처님의 세계로 올라 석가 다보탑과 대웅전을 만난다. 대웅전 앞에 있는 3층 석탑과 다보탑(多寶塔)은 서로 마주 서 있는 쌍탑형식으로 돼있는데 뒤편으로는 경론(經論)을 강설하는 무설전(無說殿)을 두고 이 영역을 회랑이 에워싸고 있다. 연화교와 칠보교를 올라 안양문(安養門)을 지나면 극락전에 이르게 된다. 그 안에는 금동아미타불좌상을 모셔져 있다. 무설전 뒤에는 관음전이 있고, 그 서편에는 금동비로자나불좌상을 봉안한 비로전이 있다. 이러한 구조는 부처님의 세계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세계라는 뜻이다.

대웅전에는 〈법화경〉을 중심으로 현시대에 나타난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신앙이 나타난다. '견보탑품'에는 다보부처님이 보탑 속에서 자리의 반을 비켜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청하는 모습이 있다. 이런 내용은 동아시아 불교전래 시기 석가다보이불병좌상으로 묘사됐다. 불국사 대웅전은 탑이라는 모습으로 이런 모습을 재현했다. '견보탑품'의 "부처님 앞에 7보로 된 탑이 있으니 높이가 5백 유순이요, 가로와 세로는 2백 50유순인데, 땅에서 솟아올라 공중에 머물러 있었다. 갖가지 보물로 장식했는데, 난간이 5천이요, 감실(龕室)이 천만이며, 무수한 당기, 번기로 꾸미었고, 보배로 된 영락을 드리웠다. 보배로 된 풍경 만억을 그 위에 달았다"는 묘사가 불국사 대웅전 마당에 나타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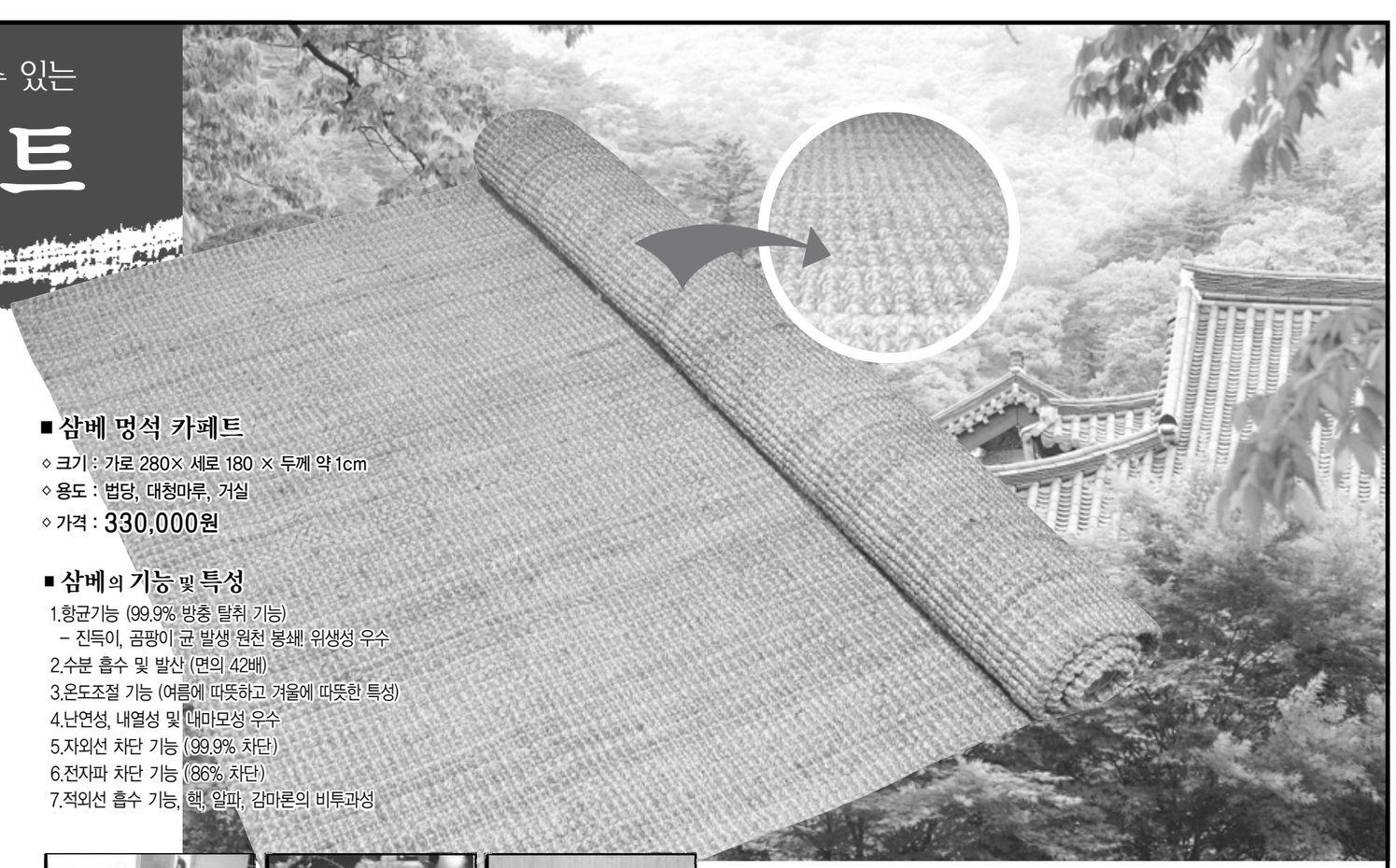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4계절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네츄럴 삼베 멍석 카페트

오직~ 현불샵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전제품 무료배송*
◇ 원산지 : 한국


(中) (大)

■ 삼베 매트 (大) 가로 180 × 세로 70 × 두께 0.8cm ⇨ 120,000원 1인용 매트로 최적!
■ 삼베 매트 (中) 가로 75 × 세로 50 × 두께 0.8cm ⇨ 60,000원 차운전석 시트로 최적!
◇ 용도 (공통) : 요가용, 매트용, 스트레칭, 명상수련, 활공, 휴식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징 : 손으로 직접 제작한 천연제품으로 일반 나일론 제품과는 다릅니다.
◇ 사용 초반에는 석유 냄새가 날 수 있으나 마 특유의 냄새이므로 1주일 뒤면 냄새가 사라집니다.



■ 삼베 멍석 카페트
◇ 크기 : 가로 280× 세로 180 × 두께 약 1cm
◇ 용도 : 법당, 대청마루, 거실
◇ 가격 : 330,000원

■ 삼베의 기능 및 특성
1.항균기능 (99.9% 방충 탈취 기능)
– 진득이, 곰팡이 균 발생 원천 봉쇄! 위생성 우수
2.수분 흡수 및 발산 (면의 42배)
3.온도조절 기능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따뜻한 특성)
4.난연성, 내열성 및 내마모성 우수
5.자외선 차단 기능 (99.9% 차단)
6.전자파 차단 기능 (86% 차단)
7.적외선 흡수 기능, 핵, 알파, 감마론의 비투과성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의식 의학

경북 상주시 외서면 이촌리 산 47번지 새절 의단원 054)535-9870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 울산)

역학 개인지도 (빙의, 퇴마)

한달만 물상으로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영가 보는법과 실전위주로 개인지도함.
역학 : 물상으로 명리, 영가지도,
궁합, 택일, 구궁법, 작명
최면 : 전생요법,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부산)333-3258
011-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부산무형문화재연수원(바라,작법무)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학 인 모 집
보유자 큰스님 직강
(범음범패 천수바라 작법무 사물)
010-2563-5550 (속성반)
사 찰 행 사 (천도재 산신대제 수륙대제)
영축사(사주영가찾는법 속성지도)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바라작법무연수원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양 도 공 고

법원등기된
전국불교승가총연합회
세계불교단체총연합회
법인불교단체 양도
011-412-8040
법 광

양평 단월 펜션수련원 무료 개방

▷대상: 신행단체,일반불자
▷황토목조 건축으로 된
펜션 수료원을 무료개방합니다.
예약요망 010-4562-1081
불교반야원
양평 명상수련원장 무각 합장



전국서점에서 구입(주문)해 주세요!!
大山도인스님 010-5105-5000

빙의 퇴마교육 및 상담

▶ 누구나 손쉽게 배울 수 있는
빙의 대화 및 퇴마법 (4가기 방법)
▶ 저렴한 비용으로 퇴마해 드림
▶ 신병치유 및 대화
031)666-7732
010-5472-5928
청운사 경담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수강생 모집

사주,궁합,택일, 성명학
사주학 초보에서 실전개업까지
최단기간 비법특강.
자격증 수여. 수강료 저렴
수시접수
30년 전통 대한역학교육원
02)763-456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경기 부천, 도심산사
011-9707-3490

입 종 안 내

한국불교법화종
위 종단은 50년된 전통종단이며
종단을 좀더 활성화하고자
입종을 안내합니다.
(행사협조, 친목도모, 계첩, 법계증, 사찰등록증,
권익보호와 운영에 관심있으신분 환영)
부산 사하구 감천동 567-2 (성불사)
법화종 051)204-8494
총무원 011-885-8989

사 임 공 고

대한불교본조계종
독성암 주지 임대호
위 본인은 지식과 덕망이 부족하
여 대한불교본조계종 중앙종회
의장직 사임을 공고합니다
불기 2555년 7월 20일
대한불교본조계종 총무원 귀중

상생처 찾음

사주명리, 명상치유,
빙의령 치유 등
불사에 필요한 방편력 보유
경자생 비구.
010-4876-1042

종무소에서 일하실 보살님 모십니다

▷ 경남 합천- 1인 1실 제공
010-9374-8716

동영상 역학강의

용신, 실전사주,고급-일진내정법
(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등의 과목을 거리나 시간의 제약
을 받지 않고 저렴한 수강료로 빠른
시일내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동영상 역학 강의입니다
www.beumchun.com

자기 자신에 대한 승리야말로
승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승리거니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정복하고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다스려 가야한다.
- 법구경 -
영가천도도량 약천사 협찬 02)3391-8523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아주 특수한 기도법

☎ 032)664-0048 / 011-741-0867

복지시설(요양시설, 명상센터) 운영하실 분

- 건평 400평 완벽한 시설
- 내부시설 일부 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1억원 투자 가능한 분
- 보장책 있음
010-9320-0189

공 동 체 구 성

불교가 변해야 합니다.
이에 동의하시는
부산,울산,대구,양산 등 에서
포교원을 운영하시는 분
연락바랍니다.
010-6243-3527

법당보살님 모십니다

강원도 철원군 소재 조계종 사찰임.
가족같이 신심 있으신
법당 보살님 연락바랍니다
033)455-5088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2515-0664

공양주 모십니다

010-2828-066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중계동, 60세 이하)
출퇴근 하실 분.
02)3391-8523 / 011-9002-8523

법회안내 (수행의 나침반) 강의

전불심법 자정수행 가지방편 개오도량
▶ 불교중요경론 핵심을 선별하여 강의
▶ 법회를 준비하고 있는 스님,전법사 및 사부대중
▶ 수행의 나락에서 갈팡질팡하는 사부대중
불교를 알고싶은 사람, 수행을 해보고 싶은사람은 오세요.
매주 토요일 오후7~10시. 청지사도량 수행은 아란야처
불음청지사 02)963-6345. 011-334-2507 정묵 합장

낙 태 영 가 천 도 비 법



이 한권의 책속에 낙태영가를 집에서
할 수 있도록 비법을 수록하였습니다.
특별보급가 1만원(195쪽)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458-1 부처골 지장선원
054)383-8553 / 011-9585-4908
농협 703088-51-013554 지장선원
*입금 후 전화주시면 바로 책 보내드립니다.

사 주 운 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 (여자) 신청하시고
상담은 통장 입금 상담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통달
011-498-5067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佛敎儀式 (범음, 범패) 學人모집

효타암에서 불교의식 전문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 약간 명 • 원서접수 : 수시접수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주민등록 1통,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의식 교육원 효 타 암
부산시 금정구 금사동 34-4 경북 군위군 부계면 금륜사
051)524-9406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초급 4개월 : 중급 4개월 : 연구 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수시접수
3)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 ~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 원 역 리 학 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특강 영가 찾는 법

영가천도는 반드시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천도해야 영험이 있다.

간단하고 쉽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그동안 공개되지않은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역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간단한 원리로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무료공개강좌 - 7월 27일 (수) 오후 2시
7월 30일 (토) 오후 2시

1. 조상(귀신)이 발동한 것을 아는 법 :
어느 조상에게 빌어야 되나?
- 대.세운에서도 발동한 것을 찾는 법
2. 기도를 하더라도 묶여있거나 장애가 있는 곳에
가서 풀어야 된다.
3. 본 법을 알면 무속인의 주장신도 알 수가 있다.
4. 무속인 보다도 더 정확하게 뽑아낸다.
5. 결혼하면 양가집 조상이 부딪치는 가정
6. 결혼이 안되거나, 결혼을 해도 풍파가 많은 가정.

※ 초보반 별도 모집

백 암 역 리 원
02) 597-1101. 011-9150-2284
노량진역(1.9호선)5번출구 동작구청 옆

불상조성 모연문

구미 원각사에서는 360년된
부처님과 함께 아미타불 관음보살
삼존불을 모시고자 합니다.
아울러 세개의 좌대를 조성하오니
많은 분들의 선근인연으로 원만불사가
회향되기를 발원 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원 각 사
주지 대혜 합장

경북 구미시 선산읍 노상리 150번지
054)481-2363 / 010-7187-8400
우체국 계좌:700286-06-010215(장성윤)

정확도 효과성 제일

전국 교보 · 영풍 · 반디앤루니스 · 인터파크 · 예스24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 육임 학습서 ◆
· 효사육임강론 2011개정증보 제8판본 상 · 하 권 45만원
· 효사육임사주감정법 2011개정 제2판본 1권 5만원
· 효사육임요지 2011최신판 1권 5만원 이상3종

◆ 육임 활용서 ◆
· 도사에게 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 5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제6판본 1권 좌정용 35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3판본 순별6권 휴대용 3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좌정용 2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휴대용 25만원
· 오행수법제례의식집 2011개정 제5판본 1권 5만원
· 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 제3판정련본 1권 5만원
· 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15만원 이상8종

◆ 육임 및 각 오행술 분개 CD프로그램 ◆
· 효사활인천역집 2011완결최종판 (종합) 350만원
· 효사육임산책 2011최신판 순별 전6권 수록 90만원
· 효사래정비법 혁신판 수정보완본 월장별 전12권 수록 (대계전서) 70만원
· 도사에게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 수록 20만원
· 효사일상생활감정법 2011정련 제5판본 1권수록 20만원
· 효사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정련 제3판본 1권수록 30만원
· 효사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수록 30만원
· 매화역수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월영도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성명학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정통부적보감 2011정련판 수록 5만원
· 토정비결수록 5만원
· 꿈해몽 5만원 이상 13종

◆ 기 타 ◆
· 효사도정기 2011최신판 5만원
· 불가법요집 2011최신판 5만원

◆ 본사 직접판매 고가 육임활용서 및 활용 CD프로그램 목록 ◆
· 고귀명수 전통1권 / 전순별6권, B4 / A4, 미색모조 / 백색모조 중 선택 정가350만원
· 육임복변집 좌정용 전6권 정가250만원
· 육임산책 휴대용 전6권 정가250만원
· 효사활인천역집2011완결최종판 종합CD프로그램(무인증장착) 정가350만원
· 효사육임강의CD100개 정가 120만원
· 한국육임학회 인터넷강의 동영상 매1회 (24시간수강) 7천원

[주문전화] 02)738-8680 / 070-7514-8680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301-778137/ 육임나라㈜
농 협 301-0071-8027-01/
www.taotemple.net / 입금 후 다음날 수취가능
육임컨텐츠개발전문 - 육임나라 (주)

스님...대출이 필요하십니까?

불교가 모태가 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찰관련대출…
보장되지 않은 대출이율과 이사장이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겪어야하는 종교적 성향에 따른 대출금 상환독촉을 겪어보신 스님들께서는 이제야 귀의처를 찾았다고 안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보현사신협은 불교를 모태로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불교병원건립 등 불교복지재단설립을 위해 창립된 전국 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1 사찰매매시 잔금대출, 불사자금 대출 전문 불교은행입니다.
2 이사장(前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주지 지성 큰스님) 스님을 비롯한 대덕 큰스님들께서 운영하시는 불교은행입니다.
3 보현사신협은 수익금을 초파일 연등법회, 제등행사, 봉축위원회 분담금 지원, 불교대학 장학금, 불교신행단체 지원 등 불교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전국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4 보현사신협 전 직원은 불자로서 20년 전통의 노하우로 가람의 평가 및 사찰의 역사적 가치까지 정직하고 꼼꼼하게 평가해 드립니다.

대출금리 연 7.2~7.6% [1억 대출시 월이자 최저60만원]





불교은행 보현사 신협 확장 이전기념 (2008. 01. 28) 이사장 지성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1-527-1037,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불자정보

▷ 문 의 : 02) 2004-8215,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0 / 상단 돌출 150,000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포교원 안내

- 위치 : 김해시 어방동 531-5 태양빌딩 5층 중 4층
- 평수 : 45평 육합
- 삼존불, 탱화, 후불, 신중, 지장, 칠성
- 가전제품 등 일체 완비, 에어컨 2대
- 인등 100등, 연등 165등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2천만원중 조금만

011-742-8458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 법당 : 17평
- 요사 : 37평
- 부지 : 170평
- 납골당 1500기 완공

- 위치 : 경기외곽
- 법당 : 30평
- 요사 : 100평
- 부지 : 2500평
- 가액 : 15억

- 위치 : 대구
- 법당 : 60 평
- 요사 : 100평
- 부지 : 1200평
- 가액 : 25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바다전망 좋은 절

- 총대지 : 약 2,700평
- 법당 약 50평, 요사채 40평, 산신각
- 바다 전망 최고, 사찰 뒤편 산
- 텃밭 300평
- 가액: 7억 8천만원

선원 및 토굴 (밀양)

- 총대지 : 약 2,000평(종교용지 포함)
- 법당 및 용왕, 산신, 요사
- 마당 넓은 사찰
- 심산유곡, 야생화 만발
- 가액: 4억 5천만원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부처님이 내려주신 축복의 가람터 추천

당사가 보유중인 전원주택지. 별장지 중 지세에 밝은 큰 스님이 특별히 절터나 기도원 용지로 적합하다고 추천한 다음의 토지를 불자 사부대중께 우선 양도합니다. 공통적으로 남향, 뒤로는 소나무 숲, 앞으로는 탁트인 경관, 포장도로를 접하고 계곡을 끼고 있습니다

1. 경남 밀양시 상동면 1,300평 토목공사 완료 평당 27만원
2. 골기와 한옥별장 • 암자, 대지 150평, 건평 40평 부산 청룡동 법어사 옆 5억 3천만원
3. 경남 양산시 원동면 560평 택지조성 완료 3백년생소나무숲 평당 60만원
4. 경남 양산시 원동면 290평 택지조성 완료 평당 60만원
5. 경남 창녕군 길곡면 1,200평 낙동강 내려보임 평당 20만원
6. 경남 하동군 청암면 650평 토목공사 완료 큰계곡, 평당 38만원
7. 경남 사천시 곤양면 2만 2천평 임야 호수가, 관리지역 약 5천평, 소나무숲 약 3천평 평당 2만 진주혁신도시과 하동항 조선단지 중간

청산전원주택 대표 중산 010-3872-035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
- 부지 : 300평 (종교용지)
- 법당 : 30평 (목조, 단청)
- 요사 : 40평(현대식)
- 기타 : 산신각, 마애석불등
- 가액 : 2억 6천만원(절충가능)
- 특징 : 도심인근의 사찰로 포교와 기도처로 아주 좋음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소재
- 부지 : 15,000평
- 법당 : 40평 (목조, 3포7포, 단청)
- 요사채 : 80평
- 산신각: 15평(목조, 닷집)
- 기타 : 석불(24자) 연못, 석등
- 가액: 5억 2천만원
- 특징 : 기암괴석과 산세가 어우러진 대가람임(20억 불사)

좋은인연 됩시다 소장하고 계신 그림 도자기 등 귀중한 물품을 무료감정해드립니다
동진불사 대구 010-9636-0455 / 서울 010-5828-0455

암자(급)안내

- 위치 : 충북 제천에서 원주가는 국도변
- 평수 : 총 600평
- 법당, 지장전(같은조물) 약 20평
  요사 15평
- 총계 1억 8천 5백만원 (현시세는 2억5천이상)

010-2763-3816

전원주택 및 토굴안내

- 인제원통 터미널에서15분거리. 산중턱
- 전원주택겸 토굴로 사용가능
- 마당까지 차진입가능
- 이중 흑벽돌, 심야보일러
- 총 1,400평, 대지 300평
- 건평 25평, 밭 잘가꾸어져 있음
- 앞에는 큰강 산세 수려
- 가액: 3억 3천만원(가격절충)

010-3337-9736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 10분거리에 5000세대 아파트단지
- 대지 340평, 건평 200평
- 석간수(물)최고, 최고의 명당
- 비로자나불, 후불탱화, 차탁
- CCTV. 대용량심야전기보일러
- 가액: 4억 3천만원 (대출 1억 8천만원됩니다)
- 시설완비,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7-787-6666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가야곡 야촌리
- 대지 125평 조경완벽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10평, 공양간 15평 연못
- 석물- 5층석탑, 해태 1쌍
- 가액: 1억 3천만원

011-9004-1492

사찰 납골당 부지 안내 (노인요양원 최적지)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 총면적 1만 5천평
- 대지 2천평, 토목공사 됐음
- (대지 허가 남)
- 관리지역, 산세 수려하고 배산임수 명당터임,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여 노인요양원으로 최적지임
- 가액: 차후 전화상담 후 결정

010-8545-6548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오창에서 천안시 중간
- 부지 2000여평
- 법당: 목조 30평, 관음전 목조 25평
- 요사채 2층 건물 1동
- 1층건물 3동 (방 많음)
- 깔끔하게 잘 지었음
- 가액: 11억
- 꼭 사실분만 전화주세요

011-412-2464

66년 된 토굴(무허가)

- 위치 : 부산
- 법당1동, 공양간1동,
- 요사채 1동 , 산신각
- 나한적 각 1동

※법당에 약물 나오는 용궁 있음

010-7309-7307

사찰, 양도(임대) 안내

- 양평군 병산리 878-50, 산 168-2
- 대지 19,217㎡(5,830평)
- 건물 4개동(법당, 요사채 외 2동)
- 수미단(부처님 3불) 소불, 약사불 등
- 장기임대에서 매매전환가능함

02)403-3333
010-4225-0012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성북구 정릉3동
- 60평, 단층건물
- 모든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90만원 시설비 4300만원

02)916-2977

토 굴 안 내

- 위치 : 창원시 의창구 용전마을
- 건물 두채, 임법당, 입식부엌, 방3칸
- 텃밭 50평,
- 가액: 시설비포함 4년, 8백만원

011-9393-496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 최고위치, 최고시설
- 법당, 방2개, 거실, 주방
- 평수 30여평
- 보증금 500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1800만원 (꼭 필요하신 분 전화바랍니다)

055)277-0146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 1층 요사채 35평, 2층 법당 11평, 산신각 3평, 대지 90평
- 외부: 5층석탑, 미륵존불, 양쪽 석등, 1자반 약사여래불 주차시설완비
- 가액: 1억 6천 5백만원

011-4085-1119

선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광안3동 75-27(2층)
- 평수: 38평(백령선원) (아미타불 및 3존불)
- 대통 왕 쑥찜질방 영업중
- 살림가능
- 전세 1,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없음

011-859-5550

영 천 토 굴 터

- 위치 : 영천시 고경면 시내에서 10분 이내 2차선에서 100M 이내
- 남향이며 마을 끝, 산자락에 붙어 있어 조용하고 양명한곳
- 기와집 1동, 황토집 1동, 대지 500평
- 가액: 8천만원

011-505-6505

사찰(급)안내

- 위치 : 상주시 외서면 소재
- 총 17만평
- 10만평, 4만평, 17,000평
- 각각 분할 판매가능
- 2차선 도로 인접
- 냇가, 토질도 우수함
- 상담 후 조절

010-7188-6359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 내동초등학교 앞
- 1층 38평, 2층 38평
- 법당 내부 홍송으로 처리 A급 시설
- 옥상38평, 대지67평
- 가액 2억 9천만원

010-3569-3021
010-2659-5830

사찰터(급) 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춘양면
- 고려시대 절터 부도탑 있었음
- 대지 : 2,460평
- 가액 : 상담 후 조정

010-2674-1444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명일동 상가 빌딩 2층
- 법당 : 삼존불, 후불, 칠성, 신중
- 방3개, 주방, 해우소1개
- 평수 : 45평
- 보증금 1천3백만원, 월10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 현재 법회중

010-5362-3370

사찰(급)안내

- 경북 영천시 북안면 유하리
- 대지 400평(종교용지, 주차장)
- 대웅전 20평, 요사채 20평
- 수세식 화장실, 부엌 시설완비
- 교통용지, 편리, 투자가치 높음,
- 가액: 9천 5백만원

010-2407-5899
054)336-9775

임 야 안 내

- 위치 : 상주시 외서면 소재
- 총 17만평
- 10만평, 4만평, 17,000평
- 각각 분할 판매가능
- 2차선 도로 인접
- 냇가, 토질도 우수함
- 상담 후 조절

010-7188-635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80년된 사찰. 등산로 입구
- 바다 보이는 전망 좋은 곳
- 법당30평, 요사채40평, 창고10평 옥탑, 해수관음상
- 주차장 넓고 텃밭도 있음
- 가액 : 3억 5천

010-4601-7881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신암동 새마을 5거리
- 3층건물 2층, 법당 42평
- 삼존불, 산신, 각탱화, 소불 270불(지장, 관음)
- 위치 최상, 깨끗한 동네
- 보증금 500만원, 월 45만원
- 시설비 3500만원
- 즉시법회 가능, 집기류일체

010-2224-896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춘산면 (의성 비봉산 자락)
- 대지 220평
- 법당: 20평 ,삼존불 요사채, 창고...
- 가액: 7천만원

010-4786-8257

암자(급)안내

- 위치 : 충남 소재 매우 오래된 사찰
- 평수 : 종교용지 1800평
- 절묘한 도량으로 산기운이 강한 기도터이므로 신심이 돈독하신 분으로 마음공부나 기도정진하실분 외에는 전화사절 합니다
- 지병관계로 급히 인연을 찾고 있습니다
- 가액: 8억 6천만원

010-2034-779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
- 총 800평, 법당20평, 요사채 3방 4, 큰 창고, 관상용 양어장
- 주차시설 완비
- 비구니스님 기도처로 최고명당
- 가액 : 2억

010-3138-489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신암동 새마을 5거리
- 3층건물 2층, 법당 42평
- 삼존불, 산신, 각탱화, 소불 270불(지장, 관음)
- 위치 최상, 깨끗한 동네
- 보증금 500만원, 월 45만원
- 시설비 3500만원
- 즉시법회 가능, 집기류일체

010-2224-8967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제천시
- 대지 80평, 요사채 25평
- 법당 15평, 시설 완벽함
- 몸만 오시면 포교가능함
- 가액: 1억 8천만원 (가격절충불가)

011-792-896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명일동 상가 빌딩 2층
- 법당 : 삼존불, 후불, 칠성, 신중
- 방3개, 주방, 해우소1개
- 평수 : 45평
- 보증금 1천3백만원, 월10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 현재 법회중

010-5362-337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신암동 새마을 5거리
- 3층건물 2층, 법당 42평
- 삼존불, 산신, 각탱화, 소불 270불(지장, 관음)
- 위치 최상, 깨끗한 동네
- 보증금 500만원, 월 45만원
- 시설비 3500만원
- 즉시법회 가능, 집기류일체

010-2224-8967

사 찰 안 내

- 위치 : 진주시에서 10분거리
- 평수 : 535평
- 대웅전, 천불전, 요사채방 35개
- 산신각, 종각, 용왕당
- 주차장 30대 주차가능
- 가액: 6억 5천만원

010-9889-3188

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기 군포시 당동
- 가액: 1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최저양도
- 면적 65평 방8개 법당공양간 및 시설완비
- 주지소임관계로 급 양도

031)427-4747

사 찰 별 장

- 위치 : 경북 영덕군 창수면 지방도 근접한 청정지역에 건물 54평 대지 566평
- 사찰터 660평 하천 물이 흐르고 관정설치 정화조 100인용 시설
- 별장 사찰적지. 주인직
- 가액 : 1억 7천만원

010-3538-2211
054)682-8888

포교원(불교대학)

- 위치 : 경북 문경시 시내 중심
- 3층건물 3층 (옥상 단독 사용)
- 평수 50평, 방3, 주방1, 거실 등
- 시설: 아미타불, 108약사소불 108탑인등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1300만원

※시청, 시외터미널, 홈플러스등 교통요지로써 철학가능 스님이나 종단사무실 요망

010-5258-1147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 부지 : 160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가액 : 13억 2천

- 위치 : 경남
- 부지 : 30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전각 5채
- 가액 : 32억 5천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전국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매물접수 고불, 석불, 골동품, 탱화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납골공원 및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시내에서 10분거리
- 면적 2만평, 법당까지 도로포장
- 극락전 50평, 법당 45평, 요사채 50평 2동, 용궁100평
- 종각30평-산신각 10평(목조단청), 연못, 폭포수
- 상황버섯 재배, 표고버섯 재배, 장뇌산삼 10년근 약 100만주
- 사회복지 법인, 입불지장전 도량 약 300평, 농장 2천평 . 백년송 소나무 경치좋음
- 가액: 70억, 꼭 하실분만 연락

011-1703-2770

포교원 및 명상원(급)안내

- 위치 : 경기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6층건물 3층
- 평수: 80평
- 보증금: 4,000만원 / 월70만원
- 약만이천세대 아파트 밀집지역에 있는 메인 대상가.
- 포교활동 최상급 지역(주변 불자 많음)
- 인연되시는분 상담후 형편에 맞게 절충 가능

010-2425-042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분당인접
- 대지 면적 약 2500평
- 건물평수 50평짜리 2동
- 등산로 인접, 전망, 터 최고
- 국유지 약 2만평 인접
- 산책로로 사용가능
- 가액: 건물포함 평당 95만원 (융자 10억)
- 중환자 숲속, 요양의집으로도 적격

011-726-4711

대형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지하철역세권
- 대형포교원(10년 운영)
- 4층중 2개층 사용, 140평
- 옥상 80평 (지소대, 텃밭, 창고)
- 차고 有, 주차 100대 可
- 現불교대학, 서실, 다실운영중
- 큰방 5(초 특급)생활불교가능
- 보증금 30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6천만원(가격절충)

010-6797-3223

도심속에사찰안내

- 위치 : 청주 상당구 우암동,
- 대지 62평 2동, 요사채 1동, 법당 25평 1동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 지장탱화,고불,
- 산신 한자반, 금동관세음 108불, 대형 16나전
- 방4, 주방1, 욕실2 창고2개, 스튜디오방송녹음실포함
- 마당에 작은 연못, 옥상휴게실
- 스튜디오녹음실은 불자가수녹음, 스님들 음반 현재 스님들께서 음반출시, 음반작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 모든 포함 4억 2천만원
- 직접방문설명, 절충가능하며 꼭 하실분만 전화주세요

010-5883-225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양천구 신월동 곰달래길
- 4층중 2층 사용
- 현재 운영중 (뜸, 대체의학 , 상담)위주로 하실분
- 삼존불, 탱화, 에어컨 구비되어있음
- 시설비 無
- 보증금 2천만원, 월 100만원
- 몸만 오시면 됨

010-6425-3885

사 찰 안 내

- 충남 공주시 유구읍 연종리 21-6번지 세종시에서 40분거리
- 임야 840평, 대지 종교용지 683평, 전 150평 - 계 1673평
- 대웅전, 목조 , 외5포, 내7포, 설선당, 삼성각, 석굴암, 기타참고, 해우소등
- 2006년 신축 경관 화려
- 가액: 6억 5천

041)551-8672
011-9413-8040

사 찰 안 내

- 위치: 강원도 강릉시
- 부지: 2,500평
- 별도부지 230평(심야보일러) 사용가능
- 신축임법당 30평외 3동
- 천연 약수 있음
- 가액: 3억(절충가능)

011-373-0697
011-9901-3530

포교원(급)안내

- 대구 성당못-성당시장 중간
- 평수: 65평, 4층 전체
- 옥상 : 창고 10평
- 시설물 : 삼존불, 지장불, 신장탱화 일체
- 부엌 : 입실10평, 화장실 2, 목욕실, 방 3, 다용도 창고 2
- 시설은 최상급, 몸만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 1천만에 월100만원 시설비는 1천만원 임

011-807-0040

사 찰 안 내

- 위치: 진주시에서 10분거리
- 평수 : 50평(2층)
- 구조: 삼존불 모셔있고, 방2개, 주방
- 남녀 화장실 별도
-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0만원
- 시설비 별도 (최고시설)

010-4668-7380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화북면
- 임야 14000평, 법당(조립식) 15평
- 와벽돌요사채 65평, 세면장, 화장실 10평
- 부속건물 110평허가남
- 2000여평대지로 전환된 상태, 청송 군위 경계선에 보현산을 마주하고 산세수려함
- 가액: 2억5천만원

033)563-8007/011-9560-6437
010-3918-0333

사찰(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 근처
- 기도도량으로 최고 적지
- 산세 수려하고 물도 흐름
- 총평수: 대지 600평, 임야 약 1천평
- 대웅전 30평, 산신각, 요사채 2동 50평씩
- 조경완비, 주차장 넓고 텃밭 준비
- 가액: 4억 8천만원,
-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010-8837-4843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 관광지
- 총 72,000평
- 법당 30평, 산신각, 요사체 부속 건물3동
- 부도탑 700기 허가득함
- 산세수려 경관좋음

017-511-0074
010-3333-166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명일동 상가 빌딩 2층
- 법당 : 삼존불, 후불, 칠성, 신중
- 방3개, 주방, 해우소1개
- 평수 : 45평
- 보증금 1천3백만원, 월10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 현재 법회중

010-5362-337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덕군 창수면 지방도 근접한 청정지역에 건물 54평 대지 566평
- 사찰터 660평 하천 물이 흐르고 관정설치 정화조 100인용 시설
- 별장 사찰적지. 주인직
- 가액 : 1억 7천만원

010-3538-2211
054)682-88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진주성 부근)
- 평수 : 50평(2층)
- 구조: 삼존불 모셔있고, 방2개, 주방
- 남녀 화장실 별도
-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0만원
- 시설비 별도 (최고시설)

010-4668-738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춘산면 (의성 비봉산 자락)
- 대지 220평
- 법당: 20평 ,삼존불 요사채, 창고...
- 가액: 7천만원

010-4786-825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북안면 유하리
- 대지 400평(종교용지, 주차장)
- 대웅전 20평, 요사채 20평
- 수세식 화장실, 부엌 시설완비
- 교통용지, 편리, 투자가치 높음,
- 가액: 9천 5백만원

010-2407-5899
054)336-9775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 10분거리에 5000세대 아파트단지
- 대지 340평, 건평 200평
- 석간수(물)최고, 최고의 명당
- 비로자나불, 후불탱화, 차탁
- CCTV. 대용량심야전기보일러
- 가액: 4억 3천만원 (대출 1억 8천만원됩니다)
- 시설완비,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7-787-6666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가야곡 야촌리
- 대지 125평 조경완벽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10평, 공양간 15평 연못
- 석물- 5층석탑, 해태 1쌍
- 가액: 1억 3천만원

011-9004-1492

사찰 납골당 부지 안내 (노인요양원 최적지)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 총면적 1만 5천평
- 대지 2천평, 토목공사 됐음
- (대지 허가 남)
- 관리지역, 산세 수려하고 배산임수 명당터임,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여 노인요양원으로 최적지임
- 가액: 차후 전화상담 후 결정

010-8545-6548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오창에서 천안시 중간
- 부지 2000여평
- 법당: 목조 30평, 관음전 목조 25평
- 요사채 2층 건물 1동
- 1층건물 3동 (방 많음)
- 깔끔하게 잘 지었음
- 가액: 11억
- 꼭 사실분만 전화주세요

011-412-2464

66년 된 토굴(무허가)

- 위치 : 부산
- 법당1동, 공양간1동,
- 요사채 1동 , 산신각
- 나한적 각 1동

※법당에 약물 나오는 용궁 있음

010-7309-7307

사찰, 양도(임대) 안내

- 양평군 병산리 878-50, 산 168-2
- 대지 19,217㎡(5,830평)
- 건물 4개동(법당, 요사채 외 2동)
- 수미단(부처님 3불) 소불, 약사불 등
- 장기임대에서 매매전환가능함

02)403-3333
010-4225-0012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성북구 정릉3동
- 60평, 단층건물
- 모든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90만원 시설비 4300만원

02)916-2977

토 굴 안 내

- 위치 : 창원시 의창구 용전마을
- 건물 두채, 임법당, 입식부엌, 방3칸
- 텃밭 50평,
- 가액: 시설비포함 4년, 8백만원

011-9393-496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 최고위치, 최고시설
- 법당, 방2개, 거실, 주방
- 평수 30여평
- 보증금 500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1800만원 (꼭 필요하신 분 전화바랍니다)

055)277-0146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 1층 요사채 35평, 2층 법당 11평, 산신각 3평, 대지 90평
- 외부: 5층석탑, 미륵존불, 양쪽 석등, 1자반 약사여래불 주차시설완비
- 가액: 1억 6천 5백만원

011-4085-1119

선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광안3동 75-27(2층)
- 평수: 38평(백령선원) (아미타불 및 3존불)
- 대통 왕 쑥찜질방 영업중
- 살림가능
- 전세 1,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없음

011-859-5550

영 천 토 굴 터

- 위치 : 영천시 고경면 시내에서 10분 이내 2차선에서 100M 이내
- 남향이며 마을 끝, 산자락에 붙어 있어 조용하고 양명한곳
- 기와집 1동, 황토집 1동, 대지 500평
- 가액: 8천만원

011-505-6505

사찰(급)안내

- 위치 : 상주시 외서면 소재
- 총 17만평
- 10만평, 4만평, 17,000평
- 각각 분할 판매가능
- 2차선 도로 인접
- 냇가, 토질도 우수함
- 상담 후 조절

010-7188-6359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 내동초등학교 앞
- 1층 38평, 2층 38평
- 법당 내부 홍송으로 처리 A급 시설
- 옥상38평, 대지67평
- 가액 2억 9천만원

010-3569-3021
010-2659-5830

사찰터(급) 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춘양면
- 고려시대 절터 부도탑 있었음
- 대지 : 2,460평
- 가액 : 상담 후 조정

010-2674-1444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명일동 상가 빌딩 2층
- 법당 : 삼존불, 후불, 칠성, 신중
- 방3개, 주방, 해우소1개
- 평수 : 45평
- 보증금 1천3백만원, 월10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 현재 법회중

010-5362-3370

사찰(급)안내

- 경북 영천시 북안면 유하리
- 대지 400평(종교용지, 주차장)
- 대웅전 20평, 요사채 20평
- 수세식 화장실, 부엌 시설완비
- 교통용지, 편리, 투자가치 높음,
- 가액: 9천 5백만원

010-2407-5899
054)336-9775

임 야 안 내

- 위치 : 상주시 외서면 소재
- 총 17만평
- 10만평, 4만평, 17,000평
- 각각 분할 판매가능
- 2차선 도로 인접
- 냇가, 토질도 우수함
- 상담 후 조절

010-7188-635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80년된 사찰. 등산로 입구
- 바다 보이는 전망 좋은 곳
- 법당30평, 요사채40평, 창고10평 옥탑, 해수관음상
- 주차장 넓고 텃밭도 있음
- 가액 : 3억 5천

010-4601-7881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신암동 새마을 5거리
- 3층건물 2층, 법당 42평
- 삼존불, 산신, 각탱화, 소불 270불(지장, 관음)
- 위치 최상, 깨끗한 동네
- 보증금 500만원, 월 45만원
- 시설비 3500만원
- 즉시법회 가능, 집기류일체

010-2224-896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춘산면 (의성 비봉산 자락)
- 대지 220평
- 법당: 20평 ,삼존불 요사채, 창고...
- 가액: 7천만원

010-4786-8257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제천시
- 대지 80평, 요사채 25평
- 법당 15평, 시설 완벽함
- 몸만 오시면 포교가능함
- 가액: 1억 8천만원 (가격절충불가)

011-792-896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명일동 상가 빌딩 2층
- 법당 : 삼존불, 후불, 칠성, 신중
- 방3개, 주방, 해우소1개
- 평수 : 45평
- 보증금 1천3백만원, 월10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 현재 법회중

010-5362-337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신암동 새마을 5거리
- 3층건물 2층, 법당 42평
- 삼존불, 산신, 각탱화, 소불 270불(지장, 관음)
- 위치 최상, 깨끗한 동네
- 보증금 500만원, 월 45만원
- 시설비 3500만원
- 즉시법회 가능, 집기류일체

010-2224-8967

사 찰 안 내

- 위치 : 진주시에서 10분거리
- 평수 : 535평
- 대웅전, 천불전, 요사채방 35개
- 산신각, 종각, 용왕당
- 주차장 30대 주차가능
- 가액: 6억 5천만원

010-9889-3188

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기 군포시 당동
- 가액: 1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최저양도
- 면적 65평 방8개 법당공양간 및 시설완비
- 주지소임관계로 급 양도

031)427-4747

사 찰 별 장

- 위치 : 경북 영덕군 창수면 지방도 근접한 청정지역에 건물 54평 대지 566평
- 사찰터 660평 하천 물이 흐르고 관정설치 정화조 100인용 시설
- 별장 사찰적지. 주인직
- 가액 : 1억 7천만원

010-3538-2211
054)682-8888

포교원(불교대학)

- 위치 : 경북 문경시 시내 중심
- 3층건물 3층 (옥상 단독 사용)
- 평수 50평, 방3, 주방1, 거실 등
- 시설: 아미타불, 108약사소불 108탑인등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1300만원

※시청, 시외터미널, 홈플러스등 교통요지로써 철학가능 스님이나 종단사무실 요망

010-5258-1147

사 찰 안 내

- 위치 : 진주시에서 10분거리
- 평수 : 535평
- 대웅전, 천불전, 요사채방 35개
- 산신각, 종각, 용왕당
- 주차장 30대 주차가능
- 가액: 6억 5천만원

010-9889-3188

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기 군포시 당동
- 가액: 1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최저양도
- 면적 65평 방8개 법당공양간 및 시설완비
- 주지소임관계로 급 양도

031)427-4747

사 찰 별 장

- 위치 : 경북 영덕군 창수면 지방도 근접한 청정지역에 건물 54평 대지 566평
- 사찰터 660평 하천 물이 흐르고 관정설치 정화조 100인용 시설
- 별장 사찰적지. 주인직
- 가액 : 1억 7천만원

010-3538-2211
054)682-8888

포교원(불교대학)

- 위치 : 경북 문경시 시내 중심
- 3층건물 3층 (옥상 단독 사용)
- 평수 50평, 방3, 주방1, 거실 등
- 시설: 아미타불, 108약사소불 108탑인등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1300만원

※시청, 시외터미널, 홈플러스등 교통요지로써 철학가능 스님이나 종단사무실 요망

010-5258-114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진주성 부근)
- 평수 : 50평(2층)
- 구조: 삼존불 모셔있고, 방2개, 주방
- 남녀 화장실 별도
-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0만원
- 시설비 별도 (최고시설)

010-4668-7380

포교원 빌라 안내

- 위치 : 여주 - 이천시 중간 부발읍 교통편리
- 도로 주변 상가 단층 25평(내부시설 완벽)
- 보증금 3백만원/월30만원, 시설비+포함 1천5백만원)
- 현재 법회중. 급. 개인 사정상 보시가격으로 드립니다

010-6880-8803 선착순

- 부발읍.신원리 도로10분거리. 방3 등등(5천3백)(상태:상급)
- 건물 전체/외,내부 리모델링(새로단장) (옥상방수 깨끗 넓음)사용
- 융자없음. 교통편리. 시세보다 아주 싼가격으로. 더 큰 곳으로 이전관계로 양도함

031)635-4041

진실 아니면 거짓, 선택할 수 있는 답은 두가지 뿐

수리아의 검-Ⅲ

고지연 불교 판타지 소설

사막의 세 머리 용 (10)



삽화 · 김홍인

용들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다.

"우린 질문하는 존재야."

"대답을 듣는 존재이기도 하지."

"진실과 거짓, 인간은 이 둘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어."

"그 대답이 맞으면 아무 것도 변하지 않지만, 틀리다면 모든 것이 사라져."

"마치 지금 이 사막처럼."

"그런데 이 녀석은 그렇지 않아."

"이 녀석이 우리라는 건 이상한 일이야."

"원래 우리는 진실과 거짓, 둘 중 하나만을 말해. 혼동을 주지는 않지."

"그리고 인간이 택하는 거야, 진실과 거짓 중에. 하지만 이 녀석은 진실과 거짓을 섞어 놔."

"인간이 무엇을 선택하든 상관없어."

"의미와 표현을 섞어놓지. 게다가 우리는 오래 전의 언어 밖에 하지 못하는데, 이 녀석은 그렇지 않거든."

"이 녀석은 요즘의 언어를 할 수 있어."

난다가 물었다.

"그럼 아이는요? 아이를 삼킨 것도 지금 자고 있는 저 용인가요?"

"우리는 인간을 먹지 않아. 이건 우리 둘과 저 녀석 모두 마찬가지야."

"맞아. 우린 먹지 않아. 그 아이가 우리 뱃속으로 들어간 건 우연이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릴 죽여야 해."

"왜 신들이 우릴 이대로 두는지 모르겠어. 우린 죽어야 해."

"그러니까 어떻게요?"

"수리아의 검이라면 우릴 죽일 수 있어."

"맞아. 우린 전에도 그걸로 죽임을 당했지."

난다는 놀라서 무니를 쳐다봤다. 그들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있던 무니는 친구의 그 시선에 무슨 영문이냐는 표정을 지었다. 그런 친구에게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고개를 흔들어 보인 난다가 다시 용을 보며 말했다.

"그게 아니면 용님들을 죽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있나?"

용이 다른 용에게 물었다.

"없을 걸."

다른 용이 대답했다.

"아무튼 우리말을 알아들은 건 네가 처음이야."

"네가 우릴 죽여주면 좋겠는데. 곧 이 녀석이 깨어날 거 같거든."

난다가 그쪽을 쳐다봤다. 정말 잠들어 있던 용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는 거 같았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너와 저 친구는 죽게 될 거야."

"명심해. 우린 진실과 거짓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게 하지만 저 녀석은 그렇지 않아."

"자,"

"이제,"

"저 녀석도 우리가 돼."

이윽고 세 번째 용이 눈을 떴다. 해가 완전히 모습을 드러낸 아침이었다.

잠에서 깨자마자 인간과 눈을 마주쳤지만 용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순간, 난다는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무니는 얼떨떨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특히 무니는 난다가 나머지 두 머리의 용과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더 그랬다. 난다는 용이 이제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속으로 빠르게 정리해보았다. 용의 입은 죄와 벌, 둘 다를 상징했다. 죄도 주고, 벌도 주는 것이다. 그들을 만난 자들은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야 하며,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죄와 벌을 동시에 받게 된다. 엄청난 위력의 불을 뿜어내는 곳이 용의 입인 것은 그런 이유이다. 그러나 난다는 미처 무니에게 설명해줄 시간이 없었다. 난다는 어쩔 수 없이 사르나트의 바퀴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윽고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 꼭 쥔 바퀴를 들여다보고 있던 난다에게 또 다시 후끈한 열기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가운데서 잠들어 있던 세 번째 용이 머리를 기울여 난다와 무니를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새벽에 살아남은 인간들인가?"

다른 용들과는 달리 굉장히 크고 울림이 있는 목소리였으며, 고대어가 아니었다. 무니의 눈이 번쩍 뜨였다. 난다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난다는 나머지 두 용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들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세 번째 용은 정작 난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니 쪽을 쳐다보는 거 같았다. 다시 용의 거대한 눈동자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 이번엔 난다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다. 난다는 불안해졌다. 용이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리는 이제 네게 질문을 하려고 한다.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택하라."

난다는 세 번째 용 역시 자신을 '우리'라고 칭했다는 것에 약간의 안도를 느꼈다. 그럼 남은 두 용도 이 질문에 참여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용이 말한 '너'는 난다가 아니었다. 그 눈동자는 어느 새 다시 무니를 향하고 있었다. 무니의 표정에는 당혹스러움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그로서는 이 상황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뭘 물어보겠다는 거야?"

무니가 물었다. 난다가 급히 말했다.

"대답은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용은 난다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건 나머지 두 용도 마찬가지였다. 용의 세 머리는 모두 무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무니는 도움을 청하듯 난다를 바라봤다. 난다는 무니 앞을 가로막고 섰다.

"그럼, 대답도 '우리'가 하게 해주세요."

용은 그런 소년이 성가시다는 듯 거대한 발에 달린 검은 발톱으로 난다를 툭 튕겨냈다. 난다는 멀리 사막의 모래 속으로 툭하고 떨어졌다. 무니는 그런 친구와 용을 번갈아보더니 말했다.

"지금 뭐하는 짓이야!"

"우리는 네게 질문을 할 것이다. 진실과 거짓, 둘 중의 하나를 택하라."

"그래. 질문을 하든 무엇을 하든, 어디 해봐. 대답만 하면 되는 거지?"

난다는 모래를 털며 일어나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다. '도대체 어쩌려고?' 그러자 나머지 용 중 한 마리가 자그만 목소리로 뭐라고 짧게 중얼거렸다.

"덩치도 큰 녀석이 무슨 목소리가 그렇게 작아!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들려. 아무튼 빨리 빨리 해. 이러다간 완전히 익을 거 같으니까."

안 그래도 뜨거운 지면에 태양까지 비추기 시작하자 그 열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난다 역시 힘겨워하며 무니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용들은 무니의 당돌함에 당황이라도 한 것인지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또 다른 용이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이야기했다. 아까보다는 분명하게 들렸지만, 무니는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였고 난다가 있는 곳까지는 들리지 않았다. 그러자 짜증스러운 투로 무니가 말했다.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대답을 어떻게 해? 혹시 이거 벌써 시작한 거야, 아까 저 녀석부터?"

용들은 황당해하는 소년의 질문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가운데 용이 말했다.

"답하라. 우리는 우리이거나 우리가 아니다. 진실인가, 거짓인가."

이 말만은 무니도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었고, 난다에게도 또렷이 들렸다. 아까 다른 용들이 말하길 세 번째 용에게 질문을 받은 자는 진실을 택한다고 해서 벌을 피할 수 있었던 것도, 거짓을 택한다고 해서 벌을 받았던 것도 아니라고 했다. '무슨 뜻이지?' 무슨 말장난 같기도 했다. 게다가 새로 생긴 용은 진실과 거짓을 뒤섞는다고 했다. 나무 바퀴는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었지만, 난다는 계속 읽을 수가 없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 위기를 예지하는 것일까, 참과 거짓을 판단한 것일까. 저 질문에 함정이 있는 건 분명했다.

무니는 자신과 맞서 있는 거대한 용을 쳐다봤다. 시선을 정면으로 향하니 용의 다리만이 눈에 들어왔다.

"진실 아니면 거짓, 선택할 수 있는 답이 이 두 가지 밖에 없다는 거야?"

난다는 무니의 이 질문을 듣고 이마를 쳤다. 용이 말했던 '진실과 거짓 그리고 의미와 표현을 섞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 거 같았다. 용의 질문 자체가 그것이 진실이거나 거짓 둘 중의 하나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때문에 의미와 표현 사이에서 헤매게 된다. 즉 제대로 된 답을 선택할 기회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저 문제에서 아마 답은 진실도 거짓도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해도 불을 피할 수는 없다! 난다는 이런 생각을 하며 사르나트의 바퀴를 다시 들여다봤다. 이번엔 나무 바퀴의 의미가 분명히 읽혀졌다. 난다는 전속력을 다해 용과 무니를 향해 달려갔다. 그러나 그 순간, 용이 또 다시 발톱으로 그를 더 멀리 날려 보내고 말았다. 대답을 생각해내기 위해 고민하던 무니는, 그런 친구의 모습을 보더니 잔뜩 화가 나 용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아무튼 좋아. 어리석은 그 질문에 답을 하자면, 그 말은 진실도 거짓도 아니야."

도심 포교당(급) 안내

시대를 부릅니다.
山中불교에서 도심불교로!

산중큰절은 주말이면 수천에서 수만명이 몰려와 인산인해를!! 千年명산대찰이 몸살을 앓고 있구나. 빌딩을 숲으로! 가승은 입산, 진승은 하산이라 했든가!

◆ 한국선종본찰에 모셨던 금동삼존불 봉안. 지장, 신중탱화, 원만상 봉안.
◆ 평수 : 101평. 백명이상 기도, 법회
◆ 18년 된 서울 수도권 인구 30만 신도시임.
◆ 교통 : 서울역에서 전철로 35분.
반포대교에서 자가용으로 35분.
(산본역에서 도보3분).
◆ 품위있는 우아한 시설임.
◆ 도심선방 : 새벽, 낮, 저녁 30명 수용.
◆ 주지실. 기도법사실, 종무소 완비.
샤워룸, 공양간 및 고급복사기, 냉장고 2개, 김치냉장고1개, 살림집기 일체.
◆ 몸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 1천 500만원, 월 150만원
시설비 : 3,000만원

도심포교에 원력 세우신분 대 환영합니다.

010-3474-0057

사 찰 화 재 보 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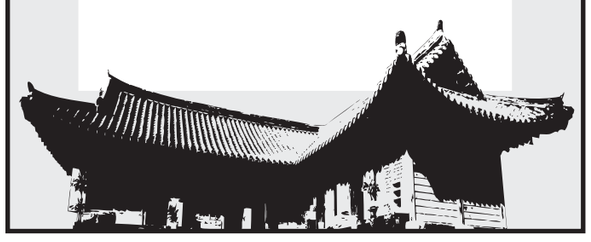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1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36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1년의 역사와 자산70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❶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❷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❸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❹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탈 종 공 고

- 법 명 : 용담 (龍潭)
- 속 명 : 강동현 (姜棟現)
- 승 번 : 011-0992 서울교구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71번지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0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사)한국불교태고종중앙회 법하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⑭

안래홍(雁來紅), 장수와 회춘을 향한 바람

중국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인물 진시황(秦始皇; BC 259~210)은 불로장생의 명약을 구하기 위해 동남동녀(童男童女) 수천명을 당시의 방사(方士, 마술사) 서복(徐福)과 함께 제주도인 탐라로 보냈다 한다.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욕망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류의 소망이다.

진시황의 의관들은 '수은(水銀)'을 처방했는데 진시황은 영생불멸의 물질로 오해하고 사용했다. 수은은 소량을 섭취 할 때 일시적으로 피부가 팽팽해져 진시황은 수은을 불로장생약으로 믿게 됐던 것이다.

그 당시 '수은'은 아주 귀해서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속에 속하는 물질이었다.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은 전국의 수은을 모아, 수은으로 연못을 만들어 놓고 수은을 먹고 얼굴에 발랐다. 사료(史料)에 의하면 결국 진시황은 수은 중독으로 코가 썩고 정신병이 생겨 폭정을 거듭하다 마침내 부하들에게 살해당했다고 한다.

조선 중기의 여류시인으로 유명했던 난설헌(蘭雪軒) 허씨가 남긴 210편의 시(詩)중, 절반 정도 되는 87편이 불로장생의 세계에서 사는 신선들의 삶을 그린 유선시(遊仙詩)이다. 그 중 선계(仙界)를 바라는 노래라는 의미인 망선요(望仙謠)의 일부를 읽어보자.

瓊花風軟飛青鳥(경화풍연비청조)
옥구슬 꽃 바람 타고 청조가 날자
王母麟車向蓬島(왕모린거향봉도)
서왕모 기린수레 봉래를 향해 가네.
蘭旌蕙帳白鳳駕(난정예피백봉가)
목란 깃발 꽃술 배자 흰 봉황 수레타고
笑倚紅欄拾瑤草(소이홍난습요초)
난간에 기대 웃고 요초를 줍는구나.

이렇듯, 장생불사의 꿈은 고금을 통해 면면히 이어진다. 지금도 종종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장생불사를 향한 현대인들의 치열한 욕망을 볼 수 있다. 사슴뿔을 이용한 한약재의 고급 화라든지 웅담이나 살아있는 곰의 피를 채집한다든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인 구렁이들의 형편을 보면 그렇다.

얼마 전 서울에 있는 미술품경매에 노란 바탕에 붉은 안래홍을 화면 가득히 그린 석운(石雲) 정은영(鄭恩泳, 나비그림으로 유명한 구한말 석하(石下) 정진철(鄭鎭澈)의 아들)의 유려한 색채감각이 돋보이는 그림을 만나 한 참을 들여다 보다 만감(萬感)과 만상(萬想)을 느꼈다.

불사와 회춘을 향한 집요한 인간의 욕망과 비바람 치는 여름, 햇빛 졸아드는 가을을 지나 눈보라치는 겨울에는 흔적도 없을 색비름(안래홍)


석운 정은영(石雲 鄭恩泳)의 '안래홍'

색비름이라 불리는 안래홍
봄부터 늦가을까지 빨간잎 유지
먹으면 몸 가벼워져

에 그 의미를 부여해서 그리고 또 그린 선현들의 의중을 바라보면서 헛된 인간의 욕망과 그 근저를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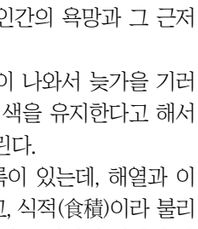
색비름은 봄에 빨간 잎이 나와서 늦가을 기러기가 날아올 때까지 빨간 색을 유지한다고 해서 안래홍(雁來紅)이라고 불린다.

약재료로도 사용한 기록이 있는데, 해열과 이질, 치질, 변비 등에도 쓰고, 식적(食積)이라 불리는 소화기 종양에 구하기 힘든 기러기 내장의 각질내벽 대신에 사용했다고 한다. 한방에서는 오래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만병을 퇴치하는 기능도 있다고 전한다.

그림에서는 은둔해서 사는 선비를 나타내는 국화와 함께 그려지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식물이 장수와 회춘을 의미하게 하도록 했을까? 그 이유는 명칭에서 찾아보면 좋을 듯하다.

기러기가 날아 내리는 듯한 모양을 한 이 화초의 이름 중에서 홍(紅)자와 안(雁)자를 다시 합해서 홍안(紅顔)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홍안의 미소년이라는 말에서 읽을 수 있듯이 젊어서 얼굴의 혈색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홍안은 오래가지 못한다. 팔만사천가지 병이 모이고, 내 것이 아닌 사대로 이루어진 이 몸은 언제 어디서 기별 없이 아침이슬처럼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수행과 업장소멸만이 밝은 내세를 기약할 수 있는 법이다.


동화사 포교국장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77



탑(塔)

'생각'이 시작되던 날부터 탑들이 생겼다. '생각'은 염원이 되었고 염원이 탑을 쌓았다. 씨앗이 날려 숲이 불어나는 것처럼 사바(娑婆)엔 탑이 늘어갔다. 아득한 세월로부터 건너온 탑들은 세월이 사라지면서 남긴 꿈이었다. 탑을 쌓은 염원들이 꾸던 영원한 꿈이다.

도량에 들어 아득한 시절을 품은 석탑 앞에 서면 그 영원한 꿈들을 만나게 된다. 그 중엔 기억할 수 없는 나의 꿈도 있을지 모를 일이다. 그 아득한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석탑은 절이 들어서기 전부터 서있었다고 생각하고 싶어진다. 저 멀리 절을 잃고 외로이 선 석탑 앞에 다시 절이 서고 누군가 석탑 앞에 서서 아득한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석탑은 절이 서기 전부터 그 곳에 있었고, '생각'이 시작되던 날부터 석탑은 거기 있었다.

내가 있기 전부터 내 안에 서있는 나를 보고 싶던 어느 날, 무너지지 않는 석탑처럼 서있고 싶던 어느 여름날, 서산 보원사지에서 석탑을 바라보며.


편집국 사진부 차장

한국의 **선시감상** ⑲ **조선 편양언기 선사의 '언 스님이 꿰는 단주로써 지음[彦師貫短珠韻]'**

법계연기가 손바닥 안에 있다

半尺紅絲錯貫珠 (반척홍사착관주)
얼마 안 되는 붉은 실로 염주를 다듬어 꿰나니
重重剎海掌中收 (중중찰해장중수)
하 많은 세계가 손바닥 안에 거두어지네.
傍人且莫分賓主 (방인차막분빈주)
여보게. 또 손님과 주인 나누지 말라.
一二相參自點頭 (일이상참자점두)
하나 둘 서로 섞여 스스로 알아차리네.

편양언기(鞭羊彦機:1581~1644) 스님은 참다운 도인의 경지란 "공이 색임을 알면 공무(空無)에 막히지 않고 색이 공임을 알면 유상(有相)에 막히지 않으며, 공도 아니고 색도 아니며 공도 되고 색도 됨을 알면 중도(中道)에도 머물지 않은 삼관(三觀)을 뚫고 나간 것"이라고 깨달음의 경지를 말했다. 스님은 이러한 깨달음에 기초해 3여 년 동안 보임(保任)으로 양치기를 한다거나 10여 년 동안 시장에서 숯장수, 물장수 노릇을 하는 등 승속무애(僧俗無碍)한 삶을 살았다. 이 시는 스님의 이러한 승속이 무애한 불이(不二)를 잘 보여주고 있다.

스님은 단주를 꿰는 언 스님을 보면서 중중 무진한 화장세계가 손바닥 안에 있음을 본다. 단주를 인드라 망에 비유한 것이다. 제석천에는 그 궁전을 장엄하는 보배그물이 있는데 그 그물마다 보배구슬이 달려 있고 그 구슬 한 개 한 개 마다에는 일체보주의 영상이 나타나 서로 서로 중중무진하게 벌려 있다 한다. 이 원융무애하고 상즉상입(相即相入)하는 법계연기를 단주가 손바닥 안에 있다는 비유로 표현했다.

또한 "마음과 경계가 일체가 되면 이것이 불이(不二)이며 불이 안에는 범부와 성인, 선악의 차별이 없다"고 한 스님의 뜻이 주객이 없는 무분별의 세계로, 자신의 안에 모든 부처와 세계가 있음을 스스로 아는 자리로 드러나고 있다.

수행자의 손에서 일상적으로 굴려지는 단주에서 스님은 원융 무애한 법계연기를 보았던 것이며 단주로써 그러한 세계를 펼쳐보였다. 또 지금 우리들이 굴리는 단주에서 단주가 나이고 내가 단주인 경지를 맛보기 원했을 것이다.


원법 스님(운문사 · 문학박사)

법정스님 뵙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진정한 행복이란 자기만의 꽃을 피우는 일이다


불일암에서 법정스님의 법문을 듣는 정찬주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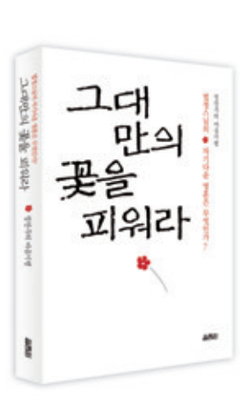
재가제자 정찬주 작가가
법정스님의 수행처를 찾아 깨달은 명상의 글


법정스님의 빠삐용 의자

작가는 법정스님이 수행했던 암자와 절을 순례하며 우리들에게 자기만의 꽃을 피우자고 손을 내밉니다. 법정스님의 자기다운 영혼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대만의 꽃을 피워라』를 길벗 삼아 법정스님의 자취를 찾아가는 '무소유 성지순례길'을 걸어보면 어떨까요? –현장스님

스님의 수행처를 다 순례하는 동안 나는 스님의 무소유 가르침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 스님은 꽃 피듯 물 흐르듯 사는 것을 무소유의 삶이라고 사유하신 것이 분명하다.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으므로 진정으로 홀가분해지고 자기다워지는 삶이 무소유의 삶인 것이다. "나도 없는데 하물며 내 것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셨다. '귀속의 귀'가 열려야만 들을 수 있는 가르침이다. 스님, 뵙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정찬주

그대 만의 꽃을 피워라
법정스님의 자기다운 영혼은 무엇인가?
정찬주의 마음기행



문의 (02)3144-3700 | www.Yolimwon.com 열림원



대행 스님

모든 것이 자기에게 갖춰져 있는데 왜 컴컴하게 사십니까

염습할 때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지요

문) 저는 14년간 연화 불교상조 일을 해 오던 중 2010년 1월부터 불교 TV 방송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국토상조 충북 청주지점을 맡게 되어 불자님들에게 장례 일체의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 업무 내용은 돌아가신 영가님들의 시신을 깨끗하게 목욕시켜 드리는 일인데, 시신을 대하거나 염습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가시는 영가님과 유족들에게 이익이 될는지요? 저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되어 나름대로 지극하게 마음을 내면서 한다고 하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답) 네.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인간으로 와서 한 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모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지금 찰나에 살고 있습니다. 한 철이라 하였습니다마는 저 들에 있는 나무는 봄이 오면 잎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여름이면 열매를 맺고, 가을이 오면 잎이 떨어지고, 겨울이 오면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잎이 모두 떨어졌다고 해서 그 나무뿌리가 아주 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에 있어서 잎이 떨어지는 것은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 몸이 떨어지는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나무의 잎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 나무의 뿌리가 죽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몸을 벗는다고 해서 결코 다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생사가 둘이 아닌 것이니라. 본래 난 것이 없기 때문에 본래 죽을 것도 없느니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죽으면 그 의식이 살아 있을 때의 의식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니, 자기가 살면서 온갖 탐진치에 의식들이 다 물들어 있다면 미혹한 곳을 찾아 헤매게 될 것이고, 자기의 의식이 밝고 자유로워 모든 것이 공한 줄을 안다면 더 차원을 높여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 살아 있을 때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을 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이 여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 이치가 복잡하고 다단하다 할지라도 한 순간의 꿈입니다. 한 순간의 꿈에서 벗어나면 세세생생에 끝간데 없이 그냥 그대로 불바퀴 속에서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생의 삶에서, 윤회의 굴림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자기에게 다 갖추어져 있는데 왜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컴컴하게 살아야 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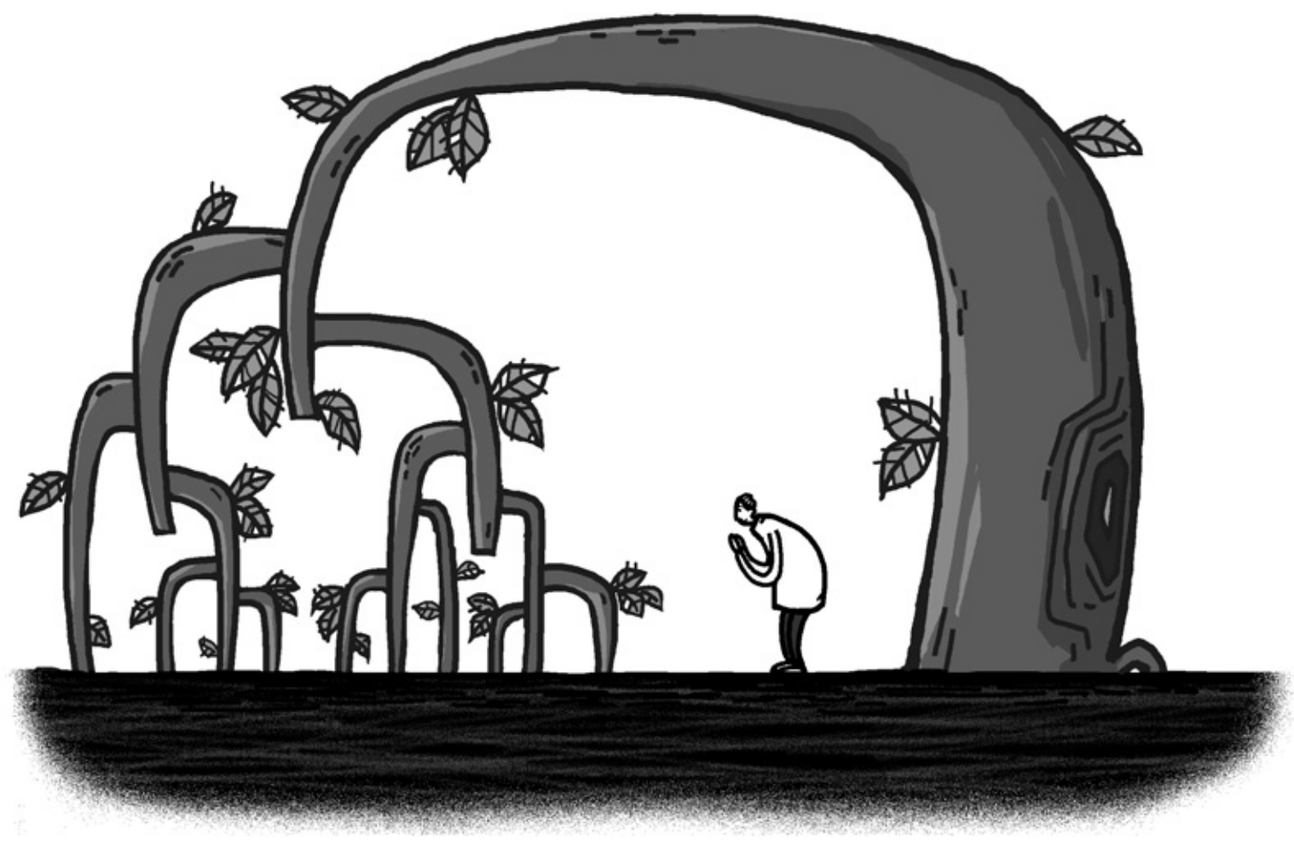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래서 일체의 모든 것, 즉 이 우주 천지의 모든 것들이 나온 근본이, 바로 모든 사람의 마음에도 직결되어 있음을 알고, 그 직결되어 있는 마음의 근본, 즉 주인공을 믿고 거기에다 모든 것을 되맡겨 놓아야 합니다. 나온 그 자리에다가 다시 믿고 진실히 맡겨 놓을 때, 맡겨 놓는 동시에 그것이 연결이 돼서 간절한 그 한생각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영가님과 그 가족들에게도 그 마음이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 부처 자리는 오고 감도 없고 나고 죽음도 본래 없는 공한 자리이기에 그 어떤 것도 본래 집착할 바가 없음을 깨달아 일체 부처님 자리에 밝게 한자리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인공! 오늘 00 영가님이 일체 부처님 자리에 한자리 하게 하는 것도 주인공,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고 바로 우리의 근본 부처 자리, 즉 주인공에다 맡겨 놓으면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주인공에다 관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한다면 모두가 통합니다.

부족한 내 한 생각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유생 무생을 둘로 보지 않는 자비스런 그 한 생각 한 생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모든 것을 일체와 직결된 내 안에 모두 놓아나간다면 전부 재생이 되어 나옵니다. 그러니 오직 내 안의 통신처를 믿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항상 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생활하는 속에서 다가오는 인연들을 자비롭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아름답고 소중한 결실로 피어날 겁니다.

굉장히 슬플 때가 많아요.

문) 저는 굉장히 슬플 때가 많습니다. 지구의 모든 돌아가는 상황과 그 지구 안에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픈데요, 어떻게 하면 그 상황의 지배를 안 받고 즐거워질 수가 있고 그것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답) 당신부터 즐거워질 수 있어야, 즐거운 걸 알고 자기부터 알아야 남을 즐겁게 해 줄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모르고는 나의 육체를 건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의욕이 없어지죠. 남을 건질 수 있는 의욕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족을 이끌어 나가려 해도 나부터 알아야 된다는 결론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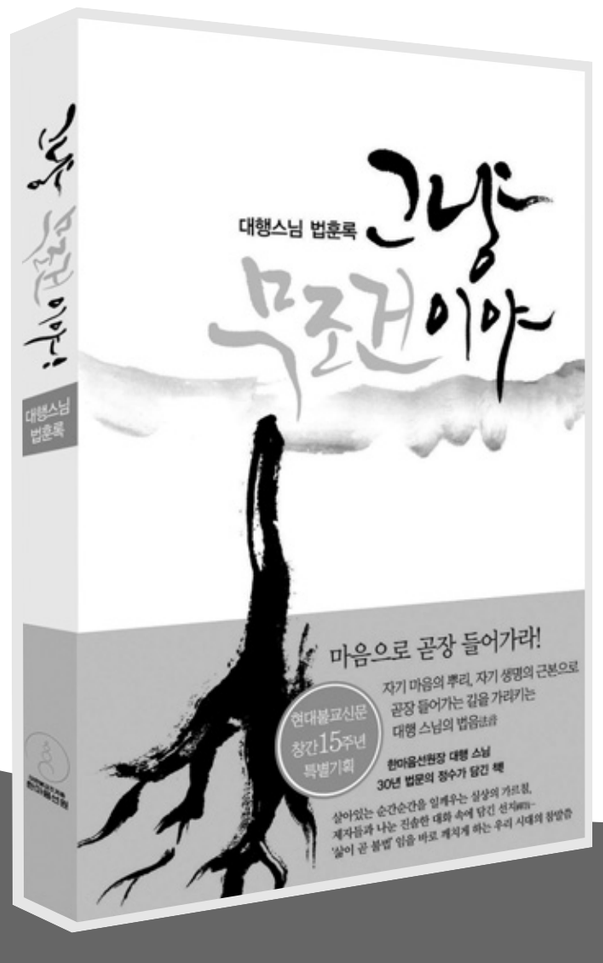
지금 당신이 있기 때문에 아픈 줄도 알고 당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도 있고 당신이 있기 때문에 상대도 있고 당신이 있기 때문에 일하는 것도 모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부터 알아야죠? 내가 그걸 자세히 말로 하려 해도, 진리이기 때문에 말로 안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 하자면, 당신 몸뚱이를 이끌어 가는 당신의 근본 주인이 있는 건 아십니까? 그냥 생각으로만 아시죠? 통하지 못합니까? 나의 주인하고 나의 육체 나하고 통하지 못하느냐고요?

이게 과정이라고 할 수도 없고 100% 한다고 할 수도 없겠지마는 나와 나를 발견하는 데는 무조건 믿어야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이유가 붙으면 그건 무효가 됩니다. 관하는 것이 통할 때는 정수에까지 찰나에 이루어져야 이게 관법(觀法)입니다. 그래서 '주인공! 너만이….' 그 주인공은 수억겁을 거치면서 진화를 시키고 형성을 시킨 장본인이거든요. 지금도 이끌어 가지고 가는데 이끌려 가는 사람이 이끌어 가지고 가는 사람의 그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르고 무시 아닌 무시가 되니까 여러분한테 주어진 걸로만 살게 돼 있지 더 줄 수는 없다 이겁니다. 더 주어질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몸이 아프다면 '주인공, 너만이 너의 육체를 건강하게 낫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데서 의사로서 응신이 돼서 자기를 보필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모두 예전부터 이 공부는 은산철벽을 뚫는 거와 같고 바닷물을 건너가는 것과 같다. 배가 있으면 강이 없고 강이 있으면 배가 없으니 어찌 건너갈 수 있겠느냐. 그러나 마음이라면 한 찰나에 건너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병이나 어떠한 고달픈 시련이나 또는 가정에 어떠한 문제가 닥쳐도 우리 이 공부 하는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아유, 그런 건 왜 걱정을 합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을…." 하고 아주 즐겁게 살거든요. 그 모두가 아주 일거수일투족이, 이 세상 살림하는 거, 사는 거, 모두가, 우주의 섭류 돌아가는 것도, 과거 현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내가 공해서 없는데 어디 붙을 자리가 있겠는가!

☞ 29면에서 계속

재 미래가 돌아가는 것도 다 하나의 광대무변한 평등공법으로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써 내 주인공을 진짜로 믿는다면…. 옛날에도 그랬죠. 하도 기도를 하고 그렇게 찾으니까, 어느 스님이 가다 보니 사방으로 절을 하고 온통 물을 떠 놓고 야단법석을 하니까 "자네한테 신이 있고 자네한테 주장자가 있고 자네한테 법신이 있는데 왜 딴 데 가서 자꾸 절을 하고 찾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가는 걸 듣고선 그대로 다 버리고 그냥 나 주인공을 진짜로 믿고 찾았더니 살았더랍니다. 그런 게 걱정이 안되는 거예요, 본래는.

그래서 이 내 자성이라고 하는 주인공은요, 본래 더럽고 깨끗한 게 둘이 아닌 청정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둘이 아닌 청정함을 알라.' 이렇게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해가 안 가시면 바닷물에 수없는 흙물이든 핏물이든 고름물이든 어떠한 물이든 거기 닥치면 그게 모두가 둘이 아니라는 얘기죠. 둘이 아닌 젖는 것뿐이니라, 이게. 젖는 거. 파도가 치고 이러는 것도 다 마음의 장난이고 젖는 것뿐이니라. 젖는 것은 어느 물에도 젖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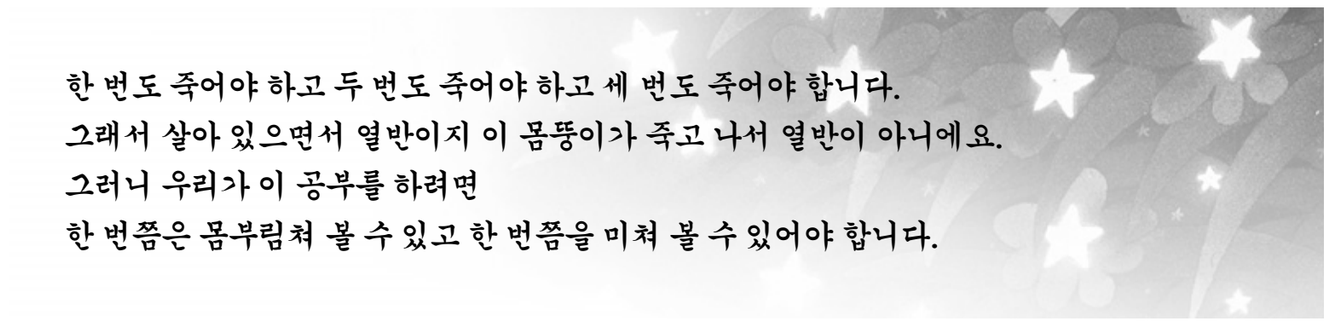
그러니까 그런 뜻을 생각해서 모두 여러분의 몸을 이끌어 가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몸이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속에서 생명들이 작용을 해 주기 때문에 다니는 거고, 마음을 크게 쓰느냐 작게 쓰느냐 하는 그 삶도 역시 여러분의 근본, 여러분을 이끌고 다니는 기사, 기사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끌고 다닌다 이거죠.

나는요, 그래서 기쁘게 살고 있어요. 난 누구나가 보고 가고 누구나가 얘길 하면 그냥, 또 얘길 안 해도 알겠지마는 사람이 나와 더불어 같이 산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죠? 남이 아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울거나 그렇게 할 때에, 그거보다도 더한 일도, 집을 뺏기고 거리로 나앉을 때나 이런 때도 같이 웃어 줄 수 있고 같이 해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죠?

그래서 나는 살면서 길에 지나가다가도 나보다 모자라는 사람, 불쌍한 사람, 애들을 끌고 집을 내쫓겨서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냥 죄 털어서 줘야 배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너무 많이 나가요.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외국에서는 신도들이, 회장님들이 이 경제를 다 다스려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해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공부한 사람은 이런 공부를 가르쳐 줘서 너무나 감사해서 머리를 깎아서 신을 삼아 드려도 그 은공을 못 갚는다는 거죠. 그리고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꼭 갖다가, 운영하시라고 갖다 줘요.

어느 날 하루는 어떤 분이 아들이 아프다고요, 아들이 아픈데 병원을 아주 여러 군데 다녀 봐도 "이건 고질병이 돼서 못 고칩니다." 이러더래요. 그리고 천도재를 지내러 왔어요. 여기 돈으로 한 오천 불은 될 거예요. 가져왔는데 그 오천 불 받자마자 말입니다, 그 옆에서 울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사글세로 살았는데 사글세 값 보증금 낸 것이 다 까져서 인제는 나가라고 하니 어디로 나갑니까?" 하면서 울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천도재 지낼 걸 줬죠. 재밌는 얘기죠?

그래 천도재 지낼 사람은 와서 "스님, 왜 천도재 안 지내 주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네가 급하다 하니까 천도재는 금방 빨리 했다. 벌써 지내 줬다." 이랬죠. 그랬더니 그래도 못 마땅해서 머무적머무적하더니 그냥 가더군요. 그러더니 그 이튿날 그냥 새벽같이 왔어요. 왜 왔느냐고 하니까요, 자기 아들이 그렇게 앓고 그렇게 먹지 못하던 게 그냥 일어나서 먹더라, 그리고 일어나더라 이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시를 어디에 했나요? 이쪽에도 보시를 했고 저쪽에도 보시를 한 거죠? 양면을 다 살린 거죠? 이게 진짜 보시예요. 물질적으로만 주는 게 보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 아픔을 내 아픔과 같이 생각하고 그냥 정신으로써 보시하는 게 물질적으로 보시를 얼마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광대무변할 뿐만 아니라 이 우주의 섭류의 근본이 우리 근본 마음에 다 이렇게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인생을 편안하게 사세요. 자기가 하기에 달려 있으니까. 또 내가 이렇게 가르쳐 준 대신에 딴 사람도 그렇게 건지란 말입니다.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말입니다.

똑똑하면 마음공부도 잘할 것 같은데…

문) 똑똑하고 이론적으로 아는 게 많으면 이 마음공부도 더 잘할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데도 마음은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는 게 많으면 마음공부 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닐까요?

답) 여러분이 안다는 게 있다면 아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른다 해도 아니 되고 안다해도 아니 되죠. 그러니 모든 것은 다 내 자성에, 자성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겨 놔라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맡겨 놓고 가고 있어요. 놓고 가고 있는데 걸레 빨아서 그냥 아무렇게나 쭉 짜서 세숫대야에 담아 놓듯이 그렇게 놓고 가라 이겁니다, 금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신발 벗어 놓을 때 금이라면 함부로 아무렇게나 벗어 놓을 수 없겠죠. 여러분이 아무리 금덩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여러분이 관리하는 거지, 여러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라고 생각했다가는 오산이에요.

이런 이야기도 있죠. 부인을 넷을 두었는데 자기가 죽게 돼서 그 첫 부인에게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생략해서 말을 하겠어요. 죽을 때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안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계절이 올 때마다 더우면 얇은 거 입히고 추우면 두꺼운 거 입혀서 너를 그렇게 위했는데 아니, 가자는데 안 가느냐고 그러죠. 그렇지만 어떻게 이 몸뚱이가 가겠습니까? 다 내버리고 가죠, 몸뚱이도. 둘째 부인한테 또 가자고 "그렇게 내가 너를 좋아서 따라다녔는데…." 하니까 "네가 좋아서 나 따라 다녔지 아, 내가 좋아서 너를 따라 다녔느냐." 하더라는 얘기죠. 돈이죠. 돈도 가져갈 수 없죠. 그 다음에 자식도 가져갈 수 없고 그 다음에는 자기와 자기입니다, 인제. 그건 죽으나 사나 따라갑니다. 올 적에도 따라왔고 갈 적에도 따라가야죠. 따라간다는 언어도 붙지 않는 자리죠. 그렇다고 모두가 허망하다 생각하진 마세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영원한 것입니다.

가을이 돼서 단풍이 떨어지긴 해도 그것을 몸이 허망하다고 생각은 하지 마세요. 붓대를 잘 틀어 쥐었다면 한생각에 바로 잘 그려서 또 나올 수도 있고 못 그려서 소도 될 수 있고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것도 자기 마음에 달린 겁니다. 여러분은 수십 광년 전에 미생물에서부터 생겨서 거듭거듭 모습을 바꿔 가면서 진화돼서 사람으로까지 온 것이 여러분 배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럼 배 속에 시발점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종점의 모습이 바로 지금 현세에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종점이냐, 시발점이냐? 그게 없다. 종점도 아니고 시발점도 아니에요. 내가 수시로 변해서 돌아가고 진화해서 돌아가니까. 2차원으로 있던 사람이 4차원으로 될 수도 있고 4차원에 있던 사람이 5차원 6차원 7차원까지 갈 수 있고 9차원 즉, 십이인연의 뜻을 다 알고 자유인이 돼서, 사방이 툭 터져서 오심력을, 즉 말하자면 원심력을 얻어서 원통을 굴리게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될 때 바깥에서 굴려야 원통은 굴려지지 그 원통 안에 들어서는 그 원통을 굴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바깥에 서서야 이것이 굴려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원통 속에서도 벗어나야 된다. 몸속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한생각 그렇게 놓고 간다면 얼마나 여러분은 자유로서의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끝간 데 없이 그렇게 삶의 보람을 느끼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급한 것이 이론적인 말이 문제가 아닙니다. 만 가지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쓸데없는 거고 행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모두들 조금만 느끼고 알았으면 깨쳤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부처님이 가르치신 뜻은 그게 아닙니다. 한 번도 죽어야 하고 두 번도 죽어야 하고 세 번도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 있으면서 열반이지 이 몸뚱이가 죽고 나서 열반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공부를 하려면 한 번쯤은 몸부림쳐 볼 수 있고 한 번쯤을 미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꾸 의식들에 끄달리게 됩니다

문) 공부를 한다 하면서도 자꾸 내 의식들에 끄달리게 됩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끄달리고 이런저런 감정에 끄달리고 이런저런 분별심에 끄달리고. 스님, 단순하게 살고 싶은데 왜 이리 마음이 복잡한지 모르겠습니다.

답)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그 생활 속에서 수없이 나오는 것에 끄달리지 말고 속지 말라 이러는 겁니다. 지배하는 지배인은 부처니까 그저 속지 말라.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그냥 거기서 모두 입력이 돼서 나오는 거니까 그 생각을 내는 그 마음이 당당하게 '나는 속지 않아, 너한테서 나오는 거니까.' 하고 거기다 다시 입력을 할 때 그 앞서 입력된, 과거에 입력된 그 인과응보라든가 유전성이라든가 영계성이라든가 세균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그냥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고 현재에 입력하는 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편안합니까? 그래서 팔자운명도 붙지 않는 자리요 병고도 붙지 않는 자리요 또 우환도 붙지 않는 자리다. 그래서 '내가 공해서 없는데 어디 붙을 자리가 있겠나?'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그걸 이름해서 주인공이라고 하는데 다섯 가지 여섯 가지가 한데 합쳐서 돌아가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갑니다, 지금. 돌아가니까 그게 주인이자 공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한 것을 주인공이라고 하니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안되는 것이 거기서 나올 때는 '되게 할 수도 있는 것도 거기서 나온다.' 이렇게 믿고 거기 맡기고 또 잘돼서 나오는 건 '아이구, 감사하구나!' 이렇게 또 감사하게 맡겨 놓고, 또 정히 그렇게 하는데도 안되는 거는 '아! 안되는 것도 법이려니 되게 굴리는 것도 거기서 굴려서 나올 거야.' 하고 믿어라 이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물러서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홀연히 내가 밝아지거든요. 앞서의 카세트의 노래란 게 없어지고 운명 팔자 이런 게 그냥 송두리째 무너지고 지금 새로 넣는 것이 입력이 돼 가지고 아주 슬기롭게 나오거든요. 그러니 내 마음 편안하니 좋지, 아래 중생들 제도하니 좋지, 위 부처님 자리 한자리 하니 좋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럭하다 보면 여러분이 밝아지고 자기를 자기가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지면 둘이 아닌 도리를 또 배우느라고 자꾸자꾸 길잡이한테 물어 가면서 공부해야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요, 한번 왔다가 "스님, 이러이러하옵니다." 그러면 "어, 당신 주인공밖에는 해결 못해, 그거." 이럽니다, 내가. 항상 뭐 정성 들여라 이런 게 없습니다. "어, 그거 당신 주인공밖엔 해결 못해." 그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얼마 있다 와서 "아유, 스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재판이 걸려 있어도 그렇게 "그건 당신 주인공밖에 해결 못해!" 이러거든요. 말을 여러 마디 해서 뭘 합니까? "어, 당신 주인공밖에 해결 못해." 이럽니다.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고 와서 정말이지 감사하다고 그럴 때 웃음이, 씽긋이 웃음이 나면서 너무나 좋은 거 있죠.

그러니까 서로 다 이것이 상대가 좋으면 나도 좋고 내가 좋으면 상대도 좋고, 이것이 한마음의 뜻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모든 과정이 다 이 몸에 들어 있는 의식들이 한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거기다 맡기십시오. '거기서밖에 해결 못한다.' 하고요. 자기 주인공 죽는 법은 없습니다. 영원한 거니까요.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선문염송 17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 30권 중 17권 출간! 선(禪)을 상징하는 '덕산 방' 의 주인공, 덕산선사의 공안과 동산선사의 공안이 실려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불조정맥 중,영,한 3개국어판! 절찬 판매중
*화 두 영,중,한 3개국어판! 출간 예정
www.zenparadise.com
정맥선원 대원 선사님 법회 문의 031-534-3373

프리미엄급 명품홍삼
하안거夏安居 특별 시은施恩 행사
정수精水와 원기元氣를 보補하는 홍삼紅蔘
藥不活人약불활인 약으로 사람을 다 살리지 못하고
病不殺人병불살인 병으로 사람을 다 죽이지 못하며
氣盡命盡기진명진 기운이 다하면 수명이 다 하는 것
是貴養氣시귀양기 기를 기르는 것을 가장 귀하게 한다
고품질,소량한정 생산으로
수행정진 중이신 스님에게 한정판매
특별한 대중공양의 소중한인연
엄선된 6년근100% 홍삼주근(몸체)추출진액
(잔뿌리를 넣지않은 순수 주근추출)
맛 · 향 · 효능에 있어서 차별화된 고품격홍삼
정진중이신 스님들의 피로회복 · 체력증진 · 면역력증진
홍삼진액 제대로 한번 만들었습니다
特홍삼진액 천天 100ml 60포 87만
홍삼진액 천天 100ml 60포 37만
홍삼진액 지地 100ml 60포 27만
홍삼진액 양良 100ml 60포 17만
※ 5Box 이상 대중공양시 10% 할인
※ 국민은행: 804201-01-210397 기세원 / 농협: 352-0207-2570-93 기세원
名品紅參 氣勢元
6년근 명품홍삼 기 세 원
제품구매 및 문의 053)743-7726


여래원 천연 초제비누
아토피 · 건선 · 고질적피부병
"아토피(피부병)는 불치병이다???"
"세상에 나을 수 없는 피부병은 없습니다.
6년여의 효과적 임상실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여래원 해파스님의 6년여 임상을 거쳐 탁월한 치료효과가 검증된 약제 비누입니다. 불치병이라 생각하는 아토피(피부병)를 풍부한 임상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질환 개선을 불자님 눈으로 직접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재료 : 서자초, 홍난석화, 초용피, 종려초, 용부향, 하로근 등 천연생약 30여종 (중화제,방부제,인공향유,인공색소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효과 : 아토피, 각종 습진, 피부병, 건선, 두피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체질 개선과 치료.
⦿ 사용방법 : 전신에 1~2회 마사지 하듯 골고로 발라준다. 타올로 꼼꼼히 문질러서 각종 노폐물과 각질을 충분히 제거한다. 목욕 후 일체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 보관방법 : 사용상 편의를 위해 비누처럼 굳혔기 때문에 수분에 약한 성질로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습성분을 다량함유하고 있어 별도의 보습제품을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 직접 방문하시면 1회에 한하여 무료치유 체험(씻는 방법 시연)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하시면 6년간의 효과적 임상실험 책자를 직접 보내드립니다.
※ 다음까페 '아토피체험방' http//cafe.daum.net/yeoraewon


여래원 천연 초제 비누 ▷
여 래 원 원장 해파 합장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전화 02)429-5093 / 010-8875-5454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3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1kg 35,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4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불자 세상보기

새주소 시행을 막아야 한다



박호석
포교사 · 前 농협대 교수

청량(淸凉)은 부처님의 지혜가 맑고 시원한 것이 찬물과 같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찬탄의 말이다. 그래서 경북 봉화의 청량산에는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께서 상주하시므로 온 산이 불교이름이었다.

1544년 봄, 이 산에 풍기군수 주세붕(周世鵬)이 당도하여 "불경의 말과 음란한 이름은 청량산 선경에 대한 모독"이라는 이유로 청량산 열두 봉우리 가운데 열 개의 이름을 바꾸었다. 그래서 주봉인 의상봉은 장인봉으로, 보살봉은 자소봉, 치원봉은 금탑봉이 된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숭유배불의 시대라도 예전부터 사람이 살아오던 땅이름은 함부로 바꾸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지명에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비들은 꾀를 내어 지명에 나타난 불교 색을 지웠다. 이를테면, 절을 뜻하는 寺(사)를 沙나 舍 · 泗 · 巳 · 蓑 따위로 쓰던가, 寺에 言(신)을 더해 詩(시)로 바꾼 것이다. 또 미륵(彌勒)을 미력(彌力)이라 하거나 용화(龍華)를 龍化로 썼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행정개편이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불교지명이 사라졌다. 전라도 익산군과 광산군에 있던 제석면(帝釋面), 미륵면(彌勒面), 극락면(極樂面)이 없어진 것이 바로 이때다.

불교를 국교로 했던 삼국과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온 나라는 이름만으로도 불국토였다.

조선조의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타난 불교관련 지명을 보면 불타 · 불암 · 불견 · 불족 · 불대 · 불정 · 불명 · 불모 · 불용 · 천불 · 미타 · 문수 · 관음 · 미륵 · 지장 · 나한 · 가섭 · 화엄 · 도솔 · 반야 · 보리 따위로, 웬만한 불교 용어가 다 등장한다. 그리고 필자가 조사한 바로도 현존하는 지명 가운데 불교 용어가 500여 가지에 달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1960년대에 조사된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의 지명에서 '절골'이 무려 80여 곳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진 바가 있다.

불교의 암흑기라 할 수 있는 조선 500년 동안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지명의 훼손과 왜곡이 있었지만, 이렇게라도 버텨온 것은 지명이 가지는 강인한 생명력 때문이었다.

지명은 자신이 태어난 유래와 그 지역의 역사와 풍속을 고스란히 이름 속에 담고 살아온 생명체이다. 그래서 불교나 유교의 지명이라고 함부로 그 생명을 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더욱이 유형의 문화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면면히 이어온 지명도 소중히 간직하고 보전해야만 하는 문화유산이 아니던가.

그런데 이런 유산을, 수백 년 아니 천 년을 넘게 지키고 써온 지명을 하루아침에 생매장하는 일을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다.

그것이 종교 편향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2001년에 인류최고의 문화재인 바미안 석불을 폭파한 탈레반 정권과 다를 바 없는 폭거이고, 그런 동기가 아니었다면 정말로 무지몽매하고 한심한 정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결과는 종교편향이 유독 심한 이 정부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점에서 의혹의 눈길을 떨칠 수 없게 한다.

어떻게 수백 년 써온 보현리와 관음리를 팽개치고 '가마들길' '갈올길'로 바꿀 수 있는가? 어떻게 천년을 써온 가야면의 이름이 시장길에 의탁해서 목숨을 부지한단 말인가? 해당 지역의 수많은 길 이름을 숫자로 대신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라도 본래의 지명을 부여하면 될 것을 왜 깡그리 없애려 하는가?

정부당국은 새로 바꾸려 하는 도로명주소의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우리 세대를 역사와 전통을 말살한 죄인이 되게 해서는 아니 된다.

확정된 새 주소는 3년 이내에는 수정이 불가능하고, 3년 이후라도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수정이 가능하다고 한다.

새 주소체계의 시행 이후의 혼선을 막기 위한 조치일 것으로 이해는 되지만 이는 행정폭력이 아닐 수 없다. 정부당국이 이런 입장을 풀지 않고 시행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그 길에 나가 역사와 문화를 지키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 열정을 보여주어야 한다.

사부대중 칼럼

게으름뱅이가 서둘러야 할 시간



이미령
동국역경원 역경위원

지루한 장마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밀린 빨래에 퀴퀴한 냄새가 나고, 집 안팎이 습기와 곰팡이로 뒤덮여 불쾌하기 짝이 없는 계절입니다.

해야 할 일을 제때 척척 해내는 바지런함과는 거리가 먼 나는 집안 청소며 빨래, 냉장고의 음식 정리 등을 한없이 미루기만 하는 나의 집에는 장마철 손님인 곰팡이며 세균덩어리가 눈에 보이는 듯 해서 영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나는 장마철이 참 좋습니다. 나 같은 게으름뱅이에게 가장 어울리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온종일 비가 내리는 날이면 나는 아주 두꺼운 책을 한 권 꺼내듭니다. 아침인지 한낮인지 저녁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어둑한 집안에서 시간을 잊어버리고 책 속에 빠져들기가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장마철에 책을 파고드는 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든 습관입니다. 도매점을 운영하던 우리 집에는 떠꺼머리 점원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불려나가 자정이 다 되어서야 하루 노동에서 풀려나는 점원들의 방은 언제나 이부자리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나는 주인들이 비워놓은 어지럽혀진 방에 들어가 이불을 들춰봅니다. 어김없이 만화책들이 이불 밑에 깔려 있었고, 이따금은 아직 열 살이 채 되지 못한 내게 다소 이해난감한 야릇한 내용까지도 섭렵할 수 있었습니다.

습기를 머금어 눅눅해진 총각들의 방에서 이불과 한 덩어리가 되어 시간이 흐르는 줄 모르고 만화나 소설을 읽던 그 즐거움은 밖에서 친구들과 소리 지르며 뛰노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었습니다.

넘기는 페이지마다 습기를 머금어 눅눅하고 묵직해지면 평소 바싹 말라 있던 문자들이 더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죽어 있던 단어에 통통하게 감정의 살이 오르기 때문일까요? 아무튼 장마철이면 나는 책을 읽습니다. 그게 세상에서 제일 좋습니다.

장마철이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또 한 가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부러 창 아래에 바짝 머리를 대고 잠을 청하는 것이지요. 나무창틀은 비에 젖어 검게 변하고 유리문도 잘 닫히지 않습니다. 그 핑계를 대고 밤새 창을 열어놓습니다. 그러면 창밖에 내리던 비는 바람에 실려 굵은 방울을 후두둑 잠든 내 얼굴에 뿌립니다.

아, 그 유쾌함! 세상에 어떤 장난꾸러기가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 있을까요?

나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나지만 일부러 눈을 감고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빗방울이 내 얼굴을 조금 더 두드려주기를 기다립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까지 누워서 비를 맞다가 잠이 완전히 깨면 그때 일어나 책을 읽습니다. 부옇게 동이 터와 스탠드 불빛이 바래질 즈음 세상은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으로 소란스러워지고, 나는 그제야 뻑뻑해진 눈을 부비고 잠을 청합니다.

남들 움직일 때 잠을 자고, 남들 쉴 때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게으름뱅이는 사실 맘이 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배짱이 두둑하다 해도 이런 삶을 오래 살 수는 없습니다. 조만간 지갑이 얇아지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게으름뱅이가 행복하게 아침잠을 청할 수 있는 계절이 장마철인 것이지요. 아침부터 밤까지 한결같이 어둑하고 꾸물꾸물한 천연조명이 불안감을 위로해주는 덕분입니다.

비오는 날에는 음악도 꺼버리고 그 좋아하던 책도 잠시 접고 창가에 앉아봅니다. 그리고 사정없이 퍼붓는 빗줄기, 그 절망 가득한 탄식에 귀를 기울입니다.

일 년에 단 한 번 오감을 열어두는 이 비의 명상, 귀 가득 빗소리를 담아보는 일도 장마철에만 이루어지는 게으름뱅이의 수행입니다.

여름은 지루한 장마와 함께 시작합니다. 장마가 슬슬 지겨워질 때면 언제 그랬냐는 듯 뜨거운 태양이 세상을 달구겠지요. 세상은 더위에 질식사하게 되고, 그러는 사이 하늘은 점점 높아져 가고 풀벌레 소리가 세상의 적막을 깨는 날이 찾아오겠지요.

아아, 이 게으름뱅이에게 장마철이 끝난다는 건 생각하기도 싫은 일입니다. 책 속의 단어들이 다시 바싹 메말라갈 테고, 열어놓은 창으로는 더 이상 빗방울이 뿌리지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장마철이 며칠 더 남았을까요? 그렇다면 맘껏 게을러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이겠네요. 게으름뱅이가 서둘러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社說

민족문화수호는 트렌드가 아니다

정부 · 여당이 달라지고 있다. 지난 5월에는 해묵은 사찰 관련 규제법을 완화하겠다더니, 이번에는 사찰 관련 지원금을 대폭 증액했다. 불교 지명이 대폭 사라진 새주소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먼저 대화의 물꼬를 텄다. 불교계의 숙원이던 연등회의 문화재 등록이 문화재청 전문위에서 막히자, 이번에는 주무장관이 직접 나서 올해 안에 연등회를 문화재로 등록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나라당 전통문화발전특위를 비롯한 정부 · 여당 관계자들은 전통문화 수호는 국가적 과제라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불교계는 정부 · 여당의 선심(?)을 선뜻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가 "조계종과 상호의견을 교환했다"는 사안에 대해, 조계종은 아무 소득도 의미도 없는 만남이었다고 평가절하 했다. 템플스테이 예산 등 전통문화재 관련 예산의 증액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다는 태도이다. 특히, 불교계가 정부의 큰 시혜를 받는 양 오해 받는 것을 크게 경계하고 있다.

혹자는 조계종의 이런 태도를 표정관리로 보기도 한다. 이미 지도자급에서 사전 조율된 사안이라는 것이다. 실무자 선에서 옥신각신하는 것으로 비춰 정부는 국민에게서, 종단은 대중에게서 지지와 감동을 끌어내려 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드라마틱한 연출과는 무관하게 정부 · 여당의 움직임을 정치적 포석으로 보는 시작이 많은 것은 내년에 있을 총선 · 대선 때문이다.

운문 선사는 '날마다 좋은 날(日日是好日)'이라 했다. 불자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여여한 날이지만, 주기적으로 선거를 치러야하는 정치인들은 시간의 변화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그들이 불교폄훼와 민족문화를 홀대하던 모습에서 화해의 제스처를 건네는 이유는, 그들의 생사가 불자들이 가진 표에 달렸기 때문이다. MB정부에서 겪어온 불합리와 부당한 대우를 되풀이 않으려면 그들의 진면목을 알아볼 혜안이 있어야 한다. 불교문화 보존과 민족문화수호는 트렌드가 아니다.

혜초기념관 온전히 세워지려면

동국대 혜초원정대가 7월 6일 중국 시안(西安) 센유사(仙遊寺)와 혜초기념관을 건립키로 합의했다.

한 · 중 불교계는 그동안 많은 교류를 해왔다. 하지만 종조의 자취를 좇는 선양 사업이 대부분이었다. 2000년경 서울 조계사가 센유사와 '신라국고승혜초기념비'를 세운 것과 더불어, 종파적 이해관계가 없는 혜초 스님의 기념관을 양국이 세우겠다고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더욱이 한국 종단과 중국 사찰간 협약이 아닌 대학과 사찰간 협약은 한 · 중 불교교류가 한층 성숙해졌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혜초기념관 설립은 동국대 뿐만 아니라 한국 불교계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을 일이다. 하지만 그 모양새가 구호 수준의 일회성 지원이어서는 안된다. 없던 것을 세우고 만드는 불사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미 존재하는 것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도 불사이다. 혜초기념관이 온전히 설립 · 유지되려면 중국 불교계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 한국 불교계는 혜초기념관 설립 지원에 우선해 방치되고 있는 '신라국고승혜초기념비'부터 재정비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화제의 신간
21c 자평 명리학의 신화...
사주풀이의 법수
정통사주 자평 명리학의 신화 ....!
오랜 세월의 침묵을 깨고 일어나라
정통 사주명리학의 핵심적인 용신과 격국의 패러다임을 찾았다.
사주명리학은 사람이 태어난 출생년.월.일.시
사주팔자를 음양 오행인 자연이치로 분석하여
정해진 명(命)이라고 하는 운명적 요소와 성품적
요소를 분석하여 활용적 가치를 찾자는 학문이다.
음양 오행철학은 역(易)의 신비로써
이치를 규명하므로 신비롭게
길.흉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천기누설을 잘하면 모두가 복을 받게 되며
잘못하면 재앙을 부르게 된다.
나의 이력서며 전생기록이며 미래의 설계도인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고자 하나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다.
사주명리의 "핵심"을 찾아라!
누가 운명(運命)을 논(論)하고 숙명(宿命)을 운운(云云)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왜 사주풀이의 법수를 애타게 기다리는가?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오늘날 음양 오행 철학은 지구촌 생활 속에 멘토링이다.
배우지 않아 운명을 알수 없어 교만해지고
이것저것 너무 배워 본성은 어두워지고 있다.
송월스님의 제2탄 드디어 출간!

■ 송월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616쪽 / 정가 75,000원
육임이 보인다 功念 지음/ 4×6배판/양장본/70,000원
新 사주학 핵심비결 송월 스님 지음/신국판/양장본/50,000원
한국인의 별점 자미두수 비법 4×6배판/高山 엄창용 지음/양장본/45,000원
전국 서점 판매중!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신국판/양장본/5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徐昇煥 지음/4×6배판/양장본 I 권 880쪽 II권 68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통론 신국판/양장본/신평 지음/26,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절대 옻이 타지 않는 옻의 원조
농업법인 (주)옻가네

참옻식품의 원조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FDA)에서 인증받은 절대 옻안타는 제품입니다.

2010년 대한민국식품 발명대상 "최우수상 수상" (12월 17일)

헐은 위, 지친 간 토종참옻으로 다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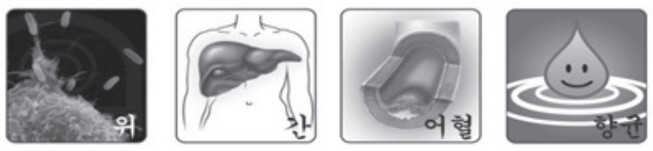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전 KBS 아나운서 이창호입니다.
잦은 방송으로 지친몸, 옻가네 참옻진액으로
언제나 활기차고 젊은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옻타지 않는 옻으로 유명한 옻가네 참옻진액
자신있게 권합니다.

전 KBS 아나운서 이 창 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20년 동안 진행)

십년묵은 체증도 녹이는 참옻

위와 장을
편안하게 속을 따뜻하게

피를 맑게, 냉적(冷積),
적취를 풀어주는 참옻



손발이 차고, 저리고, 추위나 더위를 많이 타십니까?

원인을 모르는 반복되는 고통…
냉적(冷積)이 아닐까?

우리 몸에 뭉쳐진 차가운 기운, 냉적(冷積)이란, 차가운 것이 뭉쳐있는 것인데 위장, 대장, 자궁이 냉하여 순환이 안되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자궁과 장이 딱딱하게 굳어진상태를 말합니다.

1)자궁에 차가운 기운이 쌓여 있으면 혈액 순환이 안되고 어혈이 생겨 자궁물혹, 근종, 생리통, 냉대하 등의 각종 여성 질환이 유발되고

2)위와 장이 차가우면 소화기능 뿐만 아니라 장의 연동운동도 안되서 배변장애가 생긴다.

3)복부비만의 가장중요한 원인도 복부에 냉적(차가운 기운)이 있어서 대사기능이 떨어지고, 붓고, 저리고, 비만을 유발 하는 하체 순환장애의 원인이 된다.

우리몸에 뭉쳐진 차가운 기운 즉 냉적은 각종질환 특히 여성질환을 유발하며 만성소화장애, 비만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특히 복부비만과 하체비만, 여성의 생리통 냉대하 등의 경우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여 하체의 순환이 잘되도록 해야 한다.

농업법인 옻가네는 국내산 토종 참옻을 이용하여 누구나 옻이 타지 않고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 참옻식품을 개발하여, 대한민국 신지식인 대상을 수상, 2010년 제천국제 한방바이오 엑스포 공식지정 상품으로 선정되었다.
국내에서는 **식약청(KFDA)**에서 안전성을 인증받았으며, 그 까다롭기 유명한 미국의 **FDA**에서도 안전성을 인정한 **검증받은 제품**입니다.

발효기술을 접목한 "발효참옻제조" 특허기술

콩을 그냥 먹어도 좋지만 발효시켜서 청국장이나 된장으로 먹으면 훨씬 더 몸에 좋듯이 토종참옻도 발효시키면 몸에 이로운 효과가 훨씬 많아집니다. 옻을 식품에 첨가하여 요리하면 독특한 효과가 있는데, 모든 육류에 첨가하면 고기특유의 누린내를 없애주고, 육질을 부드럽게 하며 기름기를 녹여 고기맛을 부드럽게 하여 고기맛을 더욱 좋게하며, 건강에 매우 좋고 피부미용에도 효과가 아주 좋다.
옻은 천연항균, 살균력이 있어 심한 발냄새, 무좀, 피부질환에도 효과가 좋다.

본초강목

만성위장병	피부 질환, 아토피	부인병, 자궁근종, 생리통	어혈제거, 혈액순환	뼈가 저리고 쑤시고 허리가 아프다
利小腸(이소장) : 장의 기능을 좋게함.	療咳樹(료해수) : 가래, 기침병	女子疝瘕(여자산구) : 부인병 하복통 치료.	除風(제풍) : 중풍을 다스림.	折傷(절상) : 뼈가 부러지고 다친데.
保中(보중) : 소화기관, 위장병 고침.	風寒濕痺(풍한습비) : 감기, 고뿔, 뼈통증.	主女人經脈不通(주여인경맥불통) : 여자의 생리를 순조롭게 함.	消瘀血痛結腰痛(소어혈비결요통) : 허리 아픈데를 풀어줌.	續筋骨(속근골) : 근육, 뼈, 힘줄을 이어줌.
			削年深堅結之積滯(삭년심견결재적체) : 병덩어리를 없애줌.	九服經身耐老(구복경신내노) :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음.
			破日九凝結之瘀血(파일구응결지어혈) : 피를 맑게 함.	眞髓腦(진수뇌) : 뼈속, 머릿속골을 채워줌, 골다골증 치료.

옻이절대 타지(오르지)않는 가족건강 지킴이 토종참옻

- MBC이재용 홍은희의 기분 좋은 날 2010.11.17
- KBS 동의보감, 그 의학적 진실은? 2009.8.6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2006.6.19 2)"옻으로 건강을 다스린다" 2007.4.20
- KBS 싱싱 일요일 "계절의 보석" 2006.8.20
- KBS 무한지대 큐 "돈이 되고 약이 되는 팔방미인 옻나무" 2006.10.31
- KBS 환경 스페셜 "약이 되는 독" 2006.11.22
- 중앙일보 "다양한 옻의 개선 효과" 2010.9.9
- 동아일보 "옻은 어혈제거, 만성간염, 간기능 개선" 2008.10.27
- 한국경제 (작지만 강한기업) 10년 묵은 체증 녹이는 참옻

2010 서울국제발명전시회 2010년 대한민국 식품발명대전

(12월 17일)



금상-옻안타는 옻을이용한 숙취해소 음료개발
은상-옻안타는 참옻발효진액 제조 방법 개발

우수발명 기업선정 (2011년 2월 17일)

최우수상 수상



FDA 미국식품안전청 FCS/SD 제조업체등록, 공정자등등록
KFDA 식품의약품안전청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방송협찬중인 옻가네참옻제품

옻가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체험수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양한 효과를 보신 것에 저희도 무척 놀랐습니다.
더욱 열심히 정성을 다해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손발저림, 황금색변 (2011년 3월 28일) 역삼동 에서 세무사 윤ㅇㅇ

저는 50대 중반의 남성이고 어머님은 70대후반의 여성입니다. 평소에 업무상 술을 자주마시는 저는 다음날 화장실을 여러번 다녀오고, 양 엄지 발톱의 무좀으로 고생을 해왔습니다. 또한 어머님은 무릎에 가래가 있는듯한 느낌과 손발 저림으로 고생을 하시고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실 정도이며, 농삿일을 하시는 관계로 농사철 에는 손바닥과 발바닥에 거북등처럼 갈라져서 고생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어머니는 체질적으로 옻나무 금방에만 가도 옻이 오르는 알레르기 체질에며, 저는 옻닭집에서 약은 먹고 옻닭을 먹었다가 삼성의료원 응급실에 가서 주사를 4대나 맞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는 지인으로부터 옻을 먹어보라는 권유를 받고 손사래를 쳤으나 (주)옻가네에서 개발한 '위간보'라는 제품은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에 용기를 가지고 음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간보'라는 제품을 음용한지 3일도 안되어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즉 대변의 색깔 부터 황금색으로 변하고 화장실에 가는 횟수도 음주를 하지 않은 날과 같아지게 된것 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달쯤 음용한 후에는 발톱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 했는바 무좀에 다 허물어진 발톱안쪽에서 전혀 새로운 발톱이 나기 시작했고, 현재 약 2개월정도 음용한 저는 완치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또한 손발저림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님 생각에 여름휴가때 시골에 가서 어머님께 권유드렸으나, 처음의 저와 마찬가지로 손사래를 쳤으나 저의 음용결과를 설명드리면서, 우선 한봉지만 드셔보시길 간청하니 아들의 진심어린 걱정에 보답해준다는 마음으로 음용해보시고, 바로 다음날 저에게 '애비야 목에 있던 가래가 없어진것 같이 상쾌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주문해주길 부탁해서 택배로 보내드렸더니 한 열흘정도 드시고 부터는 손발 저림이 완화되고 잠도 잘주무신다고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5개월정도 음용하신 결과 손발저림과 손발바닥에 갈라지는 현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젊은 사람의 손발처럼 되어 좋아 하셔면서 온동네 사람에게 자랑하시고 친인척에도 자랑하며 이제는 동네주민과 친인척이 모두 (주)옻가네의 제품인 '위간보'의 팬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주)옻가네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동료 또한 역류성식도염도 저와 같은 권유로 음용후 완치가 되었습니다

"옻 닭" 무더위로 지친 현대인이 즐겨찾는 우리들의 전통보양식!

옻닭요리는 우리의 전통요리로서 중년이상이 즐겨 애용하는 보양식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옻요리가 몸에 좋은 것은 알고 있으나 옻 오름 현상을 두려워하여 기피하고 있습니다. 옻가네 참옻진액은 국내 연구진이 3년동안 연구개발하여 식약청에서 안전성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증명되었고, FDA(미국)에서도 안전성을 인정 받은 제품으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옻이 타지 않는 옻닭요리입니다.



[특징]
1. 닭 특유의 비릿한 냄새가 사라지며, 고기가 부드러우면서도 졸깃해진다.
2. 옻이 지병을 분해하여 기름기가 1/3 줄어들어 다이어트Diet음식으로 좋다.

[요리방법]
1. 토종닭 한마리에 옻액을 500ml~1000ml 넣을 경우, 물은 100ml~500ml 를 추가하고 천일염 1/2 ts넣고 압력솥에서 17~20분간 익힌다.
예 : 옻액 1000ml +물 500ml / 옻액 700ml +물 800ml / 옻액 500ml + 물 1000ml 등 취향에 따라 다양한 배합비율이 가능하고 한약재를 넣고 만드셔도 됩니다.

독성은 빼고 몸에 이로운 것만 담았습니다.

토종참옻 100% 국내산

옻가네 참옻제품 불만족시 100% 환불보장제 실시



(삼계탕은 1.5리터 한병으로 8마리 이상 가능합니다.)
참옻발효진액 (패트병 = 1.5L)
6병 93,000원 12병 168,000원



참옻진액(일반형)
참옻진액 : 2박스(80ml × 60포)
2개월분 198,000원



참옻진액(고급형)
참옻진액 : 2박스(80ml × 60포)
2개월분 260,000원

참옻, 민들레, 인진쑥이 듬뿍! 신제품 토종참옻환 옻가네 10주년 기념 파격 사은품 증정

고급형구입시 100명 선착순 한정으로 사은품 토종참옻환을 드립니다.



토종참옻환 3개월분 69,800원

몸에 좋은 참옻과 민들레, 인진쑥을 더해 가족의 건강을 간편하게 지킬 수 있는 **토종참옻환**

제천약초특구
농업법인 (주)옻가네 제 2010-서울영등포-0212호

상담전화: 080-810-8100
• 주문하시면 2~3일내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